《녹색평론》 총목차

창간호(1991년 11-12월호)

창간사 /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

함께 사는 길 1 / 한살림 공동체운동의 실천과 사상 | 천규석
시애틀 추장 연설 /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
자연경제와 마을민주주의 / 라오스의 민중생활

논문

기술의 책임 | 임홍빈
밥의 위기와 생명의 농업 | 이병철
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 | 김종철
과학, 자연, 性 | 반다나 시바
나는 왜 컴퓨터를 안 살 것인가 | 웬델 베리
여성주의, 육체, 기계 | 웬델 베리

시

우리가 하나가 되기도 전에 | 이선관
내 친구 나무를 생각함 외 1편 | 이가림
한강, 5 외 1편 | 윤중호

서평

《자연의 종말》 | 이추경
《中國大同思想硏究》 | 이규성

제2호(1992년 1-2월호)

제2호를 내면서

함께 사는 길 2 / 한살림공동체 일을 하면서 | 윤희진
타르코프스키와의 대담 / 종말론적 세계속의 인간의 책임 | 김창우 역

우주생명과 현대인의 암세포적 기능 | 장회익
자연환경적 시각에서 본 골프장의 문제점 | 김정욱
골프장 — 共滅의 길 | 김명주
보살의 손 / 고향과 어머니 | 이남덕
하늘을 더럽히는 문명 | 바쓸라프 하벨
작은 行星을 위한 식사 | 프란시스 무어 라페
가이아 경제학 | 호세 루첸버거

시

관우물 외 2편 | 김명수
강 같은 세월 외 2편 | 김용택
성묘 외 2편 | 김용락

서평

《두메산골 앉은뱅이의 기원》 | 이홍재
《바다로부터의 긴 이별》, 《검은 노을》 | 허상문

제3호(1992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

함께 사는 길 3 / 협성생산공동체를 찾아서
이반 일리치와의 대화 (1) / 자주적인 배움을 위하여
가이아를 위하여 | 제임스 러브로크
간디의 사회경제사상 | 수가타 다스굽타
우리 농업 어디로 가야 하나 | 천규석
원자력은 필요한가 | 황상규
지역사회 발전의 대안적 방식 | 박용남
꽃과 고향과 땅 | 김우창
제 오줌이 대중합니다 | 권정생
인간, 흙, 상상력 | 김종철
간디의 오두막 | 이반 일리치
나무를 심는 사람 | 쟝 지오노

시

제비꽃 외 1편 | 송기원
검은 강 | 이동순

고향에 가서 외 1편 | 이은봉

서평

《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》 | 이필렬

제4호(1992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

《토지》의 작가가 말하는 생명, 공해, 일본문제 / 朴景利씨와의 대담
생물종 다양성의 보존 | 이경재
山川과 사람(1) | 류도혁
집에서 하는 환경운동 | 서형숙
尺度로서의 자연 | 웬델 베리
오염된 철새들 — 우랄의 核慘事 | 야부우치 마사유끼
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목마를 타고 있다 | 제임스 골드스미스
유린되는 티베트 | 데이빗 니콜슨-로드
나쁜 요술 — 테크놀로지의 실패 / 제리 맨더와의 대담
이반 일리치와의 대화(2) / 산업사회를 넘어서 공생의 사회로
"사람이 살 수 없는 곳" / 트리스탄 사람들의 이야기

시

용지못에서 외 1편 | 황선하
프로듀우서 손씨 | 강현국
갈참나무 외 2편 | 이재무

서평

《살이 살과 닿는다는 것은》 | 김종철
《한국의 여성과 남성》 | 박혜경

제5호(1992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

위대한 작은 학교 /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찾아서 | 전인순

“이대로 가면 세상이 곧 죽을 것이다” | 앨런 이레이라
작가는 왜 쓰는가 | 朴景利
기독교와 환경윤리 | 김정욱
山川과 사람(2) | 류도혁
풍요의 비용 — 일본의 여가산업과 환경파괴 | 게이번 매코맥
쇠고기를 넘어서 | 제레미 리프킨
위협받는 토착문화 / 라다크의 개발과 반개발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
생명묵상

우리는 이 세상으로 되돌아 온다 | 사티쉬 쿠마르

시

금수강산이라 함은 외 2편 | 이선관
아가 말이 외 1편 | 김형영
서시 외 5편 | 심호택
어느 하루 외 2편 | 박형진

서평

《산넘어 남촌》 | 임우기
《農(사람 · 일터)의 가치와 역할》, 《한국자본주의와 농촌사회》, 《벼랑위의 우리농업, 어떻게 구할 것인가?》 | 이호철

이 작품을 다시 본다

돌다리 | 이태준

독자의 편지 | 이임호

제6호(1992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

과학기술은 역사를 발전시키는가 | 박성래
自然과 리얼리즘 | 구중서
우주적 연대속의 인간과 욕망 | 이규성
시민과 농민이 두레로 짓는 공동체 농장 | 천규석
거름을 통해서 본 농민의 생활사 | 조경만

파국을 향해 가는 자동차 | 볼프강 주커만
진흙으로 만든 궁전 | 하싼 파디
위장된 테러리즘 | 제임스 힐먼
共生時代의 경제 | 오오쓰까 가쓰오
독자의 글 | 박은숙

시

어머니의 밥상 외 1편 | 김남주
불꽃의 시절 외 1편 | 이시영
소래 | 박몽구
여기에 평화가 있어 외 1편 | 나희덕
올여름 외 1편 | 정영상

서평

《생명》 | 김성동

동화

도도새와 카바리아나무와 스모호 추장 | 손춘익

제7호(1992년 11-12월호)

창간 한돐을 맞이하며

편집자에게 | 이남덕 · 이현주
한살림운동과 공생의 논리 / 장일순 선생을 찾아서 | 김종철
환경문제, 환경운동, 민주주의 | 이시재
풍수 말세론 | 최창조
짚 — 농민의 자연, 농민의 문화 | 조경만
중국에서 낭패 본 이야기 | 장회익
생명을 위하여 | 서 숙
우리들의 하느님 | 권정생

시

밥 먹는 자식에게 외 4편 | 이현주
산국화 외 1편 | 이성선
인간의 대지 외 1편 | 이병동

유전공학의 위험성 | 제레미 리프킨
건강과 사회 | 앙드레 고르쓰
원자로와 텃밭 | 웬델 베리
벼농사에 뿌리박은 삶 / 일본의 생활자치운동 | 후루사와 코유
우리의 아름다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/ 필리핀 가톨릭주교단의 사목 서한

서평

《생명 에세이》 | 심호택
《들》 | 김영호

제8호(1993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우리쌀, 누가 지킬 것인가 | 김성훈
문학과 생명운동 | 구중서
도시문화재 漢陽의 보존 | 김성우
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학교를 그리며 | 최성수
아름다운 무늬로 바뀌는 상처 | 전우익

꽃의 출현과 인간 | 루이스 멈포드
개발 — 파멸로 가는 길 | 볼프강 작스
과학엘리트에서 생명운동가로 / 반다나 시바와의 대화 | 최창희
農을 살리는 세계로 | 나까무라 히사시
학교교육의 횡포 | 존 테일러 가토

시

다듬잇돌 외 4편 | 김영무
제 몸이 저를 거역합니다 외 1편 | 윤재철
질경이 2 외 1편 | 윤중호

서평

《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》 | 임효선
《몬드라곤에서 배우자》 | 곽노현
《위기의 환경 — 어떻게 구할 것인가》 | 구자건

제9호(1993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
독자의 편지 | 이균형

이박삼일의 남도기행 | 박완서
생태학적 상상력 | 김영무
歲寒圖를 보며 | 전우익
등명사 쌀뜨물 | 이현주
恨에서 희망으로 / 유기농업 실천 농민의 手記 | 정경식
자연변형의 역사 — 청산도의 논 | 조경만

한국인의 환경의식 | 패트릭 페리토어
인간은 개미가 아니다 | 루돌프 바로
애미쉬 — 살아있는 생태공동체 | 토마스 포스터
애미쉬 농업의 건강성 | 웬델 베리
먼저, 마음을 無로 하십시오 | 오시다 시게토
석유문명 말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| 쓰치다 아쓰시
영양과 식사의 지혜 | 로렌스 플라스케트

시

그늘 외 2편 | 배문성
뿌리에 대하여 외 1편 | 임동확
어느 물고기의 최후 진술 외 1편 | 정영상

서평

《썩지 않는 슬픔》,《하늘밥도둑》 | 이가림
《교회의 녹화》 | 박종대

제10호(1993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

삶의 도량(道場)에서 | 장일순
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/ 이 시대의 문학교육은 무엇을 할 것인가 | 도정일

환경문제와 불교사상 | 김성동
쌀과 風水思想 | 최창조
흙건축 — 잊혀진 정신 / 한국 전통 흙건축의 현주소 | 정기용
목수의 가르침 | 전우익
공생을 위한 농사 / 유기농업 실천 농민의 手記 | 정경식
한국소의 팔자와 농민 | 천규석
개발과 기술제국주의 | 오토 울리히
오늘의 食卓으로부터 생각해 본다 | 쓰치다 다까시
경제성장과 아동발달 문제 | 리차드 다우스웨이트
자연식품 우유? 글쎄요 | 로즈마리 브리아

시

새봄 | 김지하
책꽂이를 치우며 외 2편 | 도종환
감꽃 외 2편 | 정윤천
걸음마 외 1편 | 남호섭

제11호(1993년 7-8월호)

삶의 진실 | 朴景利
농업두레문화만이 살 길이다 / 기술주의 神農業 構想을 비판하며 | 천규석
환경위기와 경제학의 책임 | 박덕제
자연과 공동육아 | 정병호
生命의 形而上學 | 박이문
나무와 맺은 인연 | 전우익
녹색을 찾는 길 | 권정생
오줌을 마시며 거북이의 행복을 생각함 | 이현주
봄이 두려운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 | 문승식
생명에 대한 겸손 | 제임스 골드스미스
소비사회의 극복 | 앨런 테인 더닝
똥 한짐 | 존 버거

시

늙은 풍각쟁이 | 민 영
유혹 외 1편 | 하종오
사과꽃 편지 외 2편 | 박두규
어느 날 외 1편 | 김용락

서평

《이 땅덩이와 밥상》 | 이균형

제12호(1993년 9-10호)

현대 문명의 위기와 전환기의 세계관 | 김지하
농민문화의 전통과 생명운동 | 임재해
간과(看過)의 시대는 계속되는가 | 장경섭
자연과 인간과 하나된 삶을 추구하는 야마기시 가이 | 유정길
농업문화의 위기와 美術 | 이주헌

가이아의 얼굴 | 프리먼 다이슨
고등교육과 고향지키기 | 웬델 베리
세계 환경위기의 현황 | 레스터 브라운
脫成長社會로 가는 시나리오 | 후루사와 코유

시

일 외 2편 | 김용택
제초제와 봄 외 1편 | 이상국
離農民을 기다리며 외 2편 | 이중기

서평

《색동 단풍숲을 노래하라》 | 고 은
《자연과 리얼리즘》 | 김윤태
《월든》 | 찰스 앤더슨

제13호(1993년 11-12월호)

창간 두돌을 맞이하며

주민자치에 관하여 | 김지하
지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| 김우창
쓰레기 — 미래를 들여다보는 화석 | 김찬호
똥냄새를 기억하시나요 | 전경수

北京行 열차에서 | 한윤수

맑스주의와 생산력 | 사랄 사르카르
心性敎育과 작은 학교 | 사티쉬 쿠마르
쓰레기에 막힌 산업생활 | 쓰치다 다까시

시

난장이패랭이꽃 외 1편 | 신경림
지리산가 외 2편 | 정규화
새 한마리의 죽음 외 1편 | 서홍관
고통의 열매 외 1편 | 차정미
진주 대평무우 외 2편 | 장미진

서평

《에코에티카》 | 박이문

독자의 편지 | 이승행

제14호(1994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공생두레농 — 농업위기와 그 대안 | 천규석
생활협동운동의 현단계 | 김영원
쓰레기 소각정책 — 망국으로 가는 길 | 최성각
가사노동에서 지역살림으로 | 김찬호
텃밭에서(外) | 서 숙
가족일기 | 김민희

UR협상 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 | 웬델 베리
거대기술, 무역, 신세계 질서 | 제리 맨더
농업문제의 농업적 해결 | 웬델 베리
일본의 유기농업운동 | 古澤廣祐

시

봄날 어느 하루 북쪽 눈나라 생각 외 1편 | 김영무
가을 밀잠자리 외 1편 | 임길택

자선원 외 1편 | 심호택
1987년 6월 26일의 조국 외 2편 | 백미혜

서평

《사람과 자연은 하나다》 | 한송주
《녹색정치사상》 | 이임호

제15호(1994년 3-4월호)

한국문학의 보편성 | 김우창
자기 땅 갖기 운동으로 농지의 독점과 황폐화를 막자 | 천규석
녹색의 윤리 | 박이문
인류문명과 환경문제 | 최정호
내가 선 이곳 | 강문필

과학의 녹색화 | 제임스 러브로크
여성과 권력 | 페트라 켈리
흙과 문명 | 레이몽 라콩브

프랑스 녹색당의 경제정책

책임, 자율, 연대를 위한 경제 | 알랭 리피에츠

시

딸의 추억 외 1편 | 윤삼하
호야 외 1편 | 이현주

서평

《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》, 《옹치격(雍齒格)》 | 임홍빈

제16호(1994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

쌀과 魂 | 김성훈
무한경쟁 시대와 老子 | 이현주

풍수비판에 대하여 | 최창조
북한 핵문제 교착의 근본원인 | 이삼성
과학기술로 환경문제가 해결 가능한가 | 이필렬
세상은 죽기 아니면 살기인가 | 권정생

자동차 사회의 극복을 위하여

사회정의와 공생의 기술 | 나린다 싱
작은 行星을 위한 차 | 마르시아 라우
서말 구슬이라도 | 전성용
네덜란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| 서형숙
되찾은 靜寂 — 자전거를 위하여 | 볼프강 작스

시

팔공산 골프장 외 1편 | 배창환
山西日記 | 안도현

서평

《여백의 질서》 | 이임호

제17호(1994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

21세기와 동양철학 | 김충렬
국가경쟁력과 인간교육 | 김남두
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면서 | 박완서
교사, 어둠 속의 작은 반딧불 | 윤지형
구원의 논리 | 루돌프 바로
삶과 죽음 | 소기얼 린포체

장일순 선생 추모 특집

왜 한살림인가 | 장일순
떠나신 선생님을 기리며 | 박재일
또 한분의 해월이셨던 선생님 | 서정록

시

쥐 외 1편 | 이하석
달래 할머니 외 2편 | 이동순

제18호(1994년 9-10월호)

미래세대를 위한 호소
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 | 세번 컬리스-스즈키
영어의 문제 | 김진만
환경공해와 유기농업 공동체 | 천규석
惠子와 莊子의 대화 | 이현주
자치 공동체 학교를 꿈꾸며 | 김희동
환경운동에서 본 북한 경수로 문제 | 문유미
고립무원이 된 서울의 진산, 북한산 | 이경재
오래된 미래 /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텔레비전과 사라지는 어린이 | 닐 포스트먼

시

사이드 로드(6) 외 1편 | 이상묵
어느 맑은 가을날이었다 외 4편 | 심호택
새벽길 외 1편 | 우무상
까치밥 외 1편 | 김경윤
마음에 지은 집 | 이관주

서평

《인간에 대한 예의》 | 서경석
《무늬》, 《서른, 잔치는 끝났다》 | 김용락

제19호(1994년 11-12월호)

《녹색평론》 세돌 — 독자들의 메시지

'도덕성 회복'의 윤리 | 정진홍
'민족주의, 국가, 애국심'과 보편적 이성 | 권혁범
언론의 '환경운동' | 구도완
서울에서 살아보니 | 윤정모

간디와 공동체 | 양희규
우리 농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| 송명재
토양의 황폐화와 질병 | 김해용
흙의 문화와 행복의 기억 | 설순봉
땅과 생명 | 곽노순
에콜로지의 혁명적 힘 |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
누가 중국을 먹여살릴 것인가? | 레스터 브라운
무역자유화와 환경수탈 | 단노 세이슈우

연재

'말'을 찾아서(1) | 김성동

시

겨울 열매 외 1편 | 이가림
절에 오시는 비 외 1편 | 윤재철

제20호(1995년 1-2월호)

이 푸른 하늘 아래서 | 이남덕
다시 가 본 시골집 | 윤정모
가족해체시대의 선택과 전략 | 정자환
지구의 의미와 공생주의 | 이진우
생태계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| 김종원
농촌학교와 풀뿌리 민주주의 | 장호순
과학시대의 자연과 인간 | 김용정

연재

'말'을 찾아서(2) | 김성동

마드리드 선언 — 지구의 또다른 목소리
생명의 자리에서 본 핵에너지 | 다카기 진자부로
대안으로서의 가난 | 마지드 라흐네마
희망의 도시 | 도넬라 메도우즈
집 — 인간과 자연의 중개자 | 하가 도루

시

고향 안개 외 1편 | 김명수
초월리에서 외 1편 | 천양희
겨울, 느티나무 외 1편 | 최병해

제21호(1995년 3-4월호)

자연의 회복 | 조요한
화두 | 서 숙
아흔살의 관점 | 헬렌 니어링
여행의 파괴성에 대하여 | 천규석
환경문제와 경제논리 | 이정전
쿠바의 유기농업운동 | 피터 로세트
프란치스코의 도전 | 헨릭 스콜리모프스키

세계화 — 야만주의의 시나리오

문명의 야만성과 세계화 비전 | 도정일
세계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 | 데이비드 코튼
미래를 갉아먹는 경제 | 월든 벨로
외국인노동자 차별의 구조 | 유명기

시

딱한 노릇 외 2편 | 이선관
그 섬에 외 2편 | 김영무
吳太洞 외 1편 | 정옥관
작별사 외 1편 | 김영희

제22호(1995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

꽃을 꽃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| 권정생
6·27 지방선거와 생명민회운동 | 문순홍
과학기술과 주민자치의 가능성 | 임경순
자전거 — 지방자치시대의 수송수단 | 김미영
작은 나라 적은 백성 | 이현주

생명의 강 |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께스
자기초월을 위하여 | 바쓸라프 하벨

《자기희생》의 미학 — 타르코프스키의 삶과 예술

구원을 향한 기도 | 이정하
삶에 대한 책임과 예술 |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
日記抄 — 시간속의 시간 |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

연재

'말'을 찾아서(3) | 김성동

시

아름다운 집, 그 집 외 1편 | 김용택
노란 쥐들 외 1편 | 채상근

제23호(1995년 7-8월호)

시장의 논리와 교육의 논리

근대과학에 대한 물음 | 김용준
교수의 연구업적은 계량화되어야 하는가 | 정문길
인간에게 교육은 무엇인가 | 송항용
교육의 녹색화 | 데이비드 오어

국가에서 공동체로 | 안승준
컴퓨터 사회의 재앙 | 요제프 바이첸바움
삶의 재충전 | 사티쉬 쿠마르
풍요 속의 굶주림 | 디냐르 고드레지
인간의 죽음 | 엘리자베스 퀴블러-로스

시

둑 위의 식사 외 1편 | 이준관
부활(1) 외 1편 | 박기동
봄 외 2편 | 유소림
고사목 외 4편 | 조혜미

소설(재수록)

환각의 나비 | 박완서

서평

《공생의 사회, 생명의 경제》 | 송희식
《책임의 원칙》 | 이필렬
《소비사회의 극복》 | 이임호

제24호(1995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

땅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| 천규석
WTO체제와 한국농업 | 김성훈
분단체제 극복과 생태학적 상상력 | 백낙청
발전을 다시 생각한다 — 발전, 환경, 행복 | 권혁범
철새와 軍아파트 | 양운진

재앙을 넘어 공동체로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매화촌 — 평화의 마을 | 린다 일렌느 솔로몬
인간에게 자동차란 무엇인가 | 쓰기타 사토시

연재

생명의 경제(1) | 폴 에킨스

시

고압선 외 1편 | 이상묵
저녁바람 일렁이는 삼밭에서 외 2편 | 고재종

제25호(1995년 11-12월호)

창간 4주년 기념 대담 / 공경의 문화를 위하여 | 김우창 · 김종철

왜 작은 학교라야 하는가

새로운 학교를 꿈꾸며 | 윤구병
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| 양희규
작은 시골학교를 살리는 길 | 김조년

풀무농업학교를 찾아서 | 홍순명 · 정유성
자유학원 | 김종철
교육이냐 조작이냐 | 비노바 바베

국토의 영양과잉과 赤潮 | 홍욱희
합리주의와 광기와 자연 / 《모비 딕》론 | 한기욱
네덜란드의 녹색계획 | 알렉스 스티픈(外)

시

山詩 (66) 외 1편 | 이성선
왜 검부터 낸대유 외 1편 | 윤재철

연재

생명의 경제 (2) | 폴 에킨스

서평

《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옵디까》 | 권정생
《국가에서 공동체로》 | 전경수
《공간, 육체, 권력 — 낯선 거리의 일상》 | 임옥희

제26호(1996년 1-2월호)

랍비의 선물 | M. 스캇 펙
이스터 섬의 비극 | 클라이브 폰팅
생물공학과 인체의 상품화 | 앤드류 킴브렐

연재

생명의 경제(3) / GNP의 허구 | 폴 에킨스

전통문화와 생명공동체

줄굿의 대동성 | 천규석
한국 전통춤의 생명사상 | 채희완
무당굿과 공동체 | 황루시

시

나이에 대하여 외 3편 | 유소림

꽃 외 1편 | 최종진

서평

《기술문명과 철학》 | 김환석
《녹색세계사》 | 한정숙

제27호(1996년 3-4월호)

풀뿌리 생명운동과 자주 협동의 논리

도농협력과 땅 살리기(좌담) | 천규석 · 이상국 · 정삼조 · 서형숙 · 김종철
공생과 협동의 사회경제 | 후루사와 코유
산업경제를 넘어 생존경제로 | 마리아 미즈
칩코운동과 인도여성 | 제레미 씨브룩
마을의 보건의료체계 | 다니엘르 제인스
공동체의 돈 만들기운동 | 바바라 브란트
레츠와 녹색경제 | 패트리샤 녹스 · 닉 잉글랜드

'초라한 실패'의 門에서 | 이현주
소비주의에 대항하는 네트워크 | 남부원
마음의 비밀 | 피터 톰킨스(外)

"흰 나방이 날개를 펄럭일 때" / 《매디슨 카운티의 다리》 이야기 | 도정일
자연파괴와 남성주의 원리 / 《프랑켄슈타인》론 | 앤 멜로어

시

서쪽의 끝 외 1편 | 하종오
도심에서 만난 늙은 소나무 외 2편 | 주경림

연재

생명의 경제(4) / 미래를 위한 구상 | 폴 에킨스

서평

《생은 아름다울지라도》, 《에로스의 반지》 | 김용락

제28호(1996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

컴퓨터기술의 세계 — 재앙인가, 구원인가

계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| 김기협
연필과 컴퓨터 | 조환규
인터넷은 만병통치약인가 | 클리포드 스톨
정보고속도로와 소비주의 | 프랭클린 세이지
가상현실과 아이들 | 낸시 포어
인터넷과 제3세계 — 고속도로인가, 진흙길인가 | 마이크 홀더니스
컴퓨터와 환경 | 외르그 베버

지구가 아름다운 까닭 | 박완서
우리가 걷는 마지막 길 | 최준석
산업경제와 성차별 문제 | 이승환
쓰레기 종량제 1년을 돌아보며 | 이추경
체르노빌 10년의 의미 | 다카기 진자부로

시

종로 春蘭 외 3편 | 이현주
연꽃 외 2편 | 김영무

연재

생명의 경제(5) / 욕구의 문제 | 폴 에킨스

서평

《독일의 자존심 — 슈타이너학교》 | 김정금

제29호(1996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

생태철학과 보살핌의 윤리 | 정화열
전통문화속의 땅과 풍경 | 김우창
그 시절의 꼼장어 | 서 숙

한 詩人을 추억하며 | 김성동
한 풋내기 농사꾼의 이야기 | 양희규
일본이야기 | 유소림
시화호와 위천공단의 문제 | 양운진
광우병 — 산업축산의 폭력성 | 반다나 시바
나무의 생명과 목수의 지혜 | 니시오카 츠네카츠

연재

생명의 경제(6) / 노동의 본질 | 폴 에킨스

시

세기말의 물결이여 파도여 외 2편 | 이선관
명산(1) 외 4편 | 최석하
콩밭 외 2편 | 심호택
나무 외 4편 | 최종진

제30호(1996년 9-10월호)

불교와 환경윤리 | 법 륜
莊子를 읽으며 | 송항용
희망의 도시, 꾸리찌바 | 박용남
돈황의 모래 | 이홍재
시골에 와서 | 최준석
피넌가루에서 라다크로 | 이문재
오래된 미래와 우리의 오늘 | 박혜숙
식량위기에 직면하여 | 레스터 브라운
삶을 위한 디자인 | 윌리엄 맥도나우

지역자립을 위한 전략

녹색경제를 위하여 | 웨인 엘우드
공동체의 보존과 지역경제 | 웬델 베리
경제순환과 지역화폐 | 마루야마 마코토

시

지구의 일 외 3편 | 김용택
역풍 외 1편 | 백미혜

겨울(1) 외 2편 | 유소림

독자의 편지 | 이인숙 · 조유상

제31호(1996년 11-12월호)

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

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슬픔마저도 | 권정생
문학과 현대사상 | 구중서
열망에 대하여 | 이규성
불복종의 이념 | 양희규
땅에 뿌리박기 위하여 | 장길섭
인도기행 | 김운경
일, 노래, 춤, 풍물의 공동체 | 편해문

공업사회의 붕괴와 공생의 시대 | 쓰치다 다까시
존재의 근거를 되찾아서 | 제레미 리프킨
영어회화의 이데올로기 | 더글러스 러미스

시

사랑말고는 외 3편 | 이현주
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외 2편 | 윤재철

서평

《생명과 자치》 | 권혁범
《환경정의를 위하여》 | 이상헌

제32호(1997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생명을 살리는 농업 | 윤구병
위기에 처한 녹지와 물 | 김정욱
영어 조기교육의 근본 문제 | 김길중

자연의학의 논리와 역사 | 오홍근
이규보의 생태주의 사상 | 박희병
자연과의 애무 | 김원중

경제의 세계화 — 새로운 식민주의의 횡포

기업식민주의에 직면하여 | 제리 맨더
세계무역과 환경 | 에드워드 골드스미스
스와데시 — 간디의 자립경제 철학 | 사티쉬 쿠마르

시

확실히 확실 확 외 2편 | 이선관
협궤열차를 위하여 외 1편 | 최성수
징표 외 3편 | 최종진

서평

《땅사랑, 당신사랑》 | 김성순
《동양사상과 환경문제》 | 정현주
《자동차, 문명의 이기인가 파괴자인가》 | 박용남

제33호(1997년 3-4월호)

풀 한포기도 공경으로 | 장일순
영산 성지학교를 다녀와서 | 윤재철
직거래 모임 '한울회' 이야기 | 이덕자
공동체 꿈과 좌절 | 하나후사 료스케
주자의 환경철학 | 桑子敏雄

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

세계화 시대의 노동운동 | 강수돌
노동운동, 자본, 생태계 | 홀거 하이데

시

새해 달력을 보다 외 2편 | 이시영
애인 외 2편 | 김용택

연재

생명의 경제(7) / 자립을 찾아서 | 폴 에킨스

서평

《우리들의 하느님》 | 임길택
《순교일기》 | 황인숙
자연과의 관계를 풀어갈 열쇠는 어디에? | 김기협

독자의 편지 | 서진옥 · 이현주

제34호(1997년 5-6월호)

죽을 먹어도 함께 살자 | 권정생
문학의 옹호 | 김우창
짧은 이야기, 긴 그림자 | 서 숙
다시 찾아본 협성생산공동체 | 윤재철
정농회와 오재길 선생 | 장길섭
세계화 경제와 불교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
생명공학의 비윤리성과 반생태성

양의 복제, 시민의 침묵 | 김환석
인간복제와 기술의 비윤리성 | 송준만
'멋진 신세계'에 맞서는 도덕적 용기 | 프랭클린 세이지
생명조작 — 자연질서의 교란 | 피터 R. 윌스

시

달이 자는 곳 외 3편 | 이성선
과학 외 4편 | 김영무
잎새에게 외 2편 | 정호승
초상집 외 1편 | 박영근
내 아들의 아들 때에는 외 4편 | 신현주

서평

《초록생명의 길》 | 한만수
《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》, 《이성은 죽지 않았다》 | 박영선

독자의 편지 | 김신근 · 육종인

제35호(1997년 7-8월호)

첨단기술인가, 재앙인가 | 이필렬
속도 그 수레바퀴 밑에서 | 나희덕
교과서를 통해 본 환경교육 | 박강리
블레이크와 자본주의문명 | 서강목
정보화 — 경쟁시대와 인간 | 리영희
돼지 잡는 날 | 김용택
내 마음이 병을 만든다 | 전홍준

시

용흥리 석불 외 1편 | 곽재구
저 농부에게 바치다 외 4편 | 이중기
수선화 외 4편 | 박형진
고향 외 4편 | 최종진
교실 증축 공사 외 2편 | 조향미

소설

내 마음의 세렌게티 | 김소진

서평

《그늘에 대하여》 | 안찬수

제36호(1997년 9-10월호)

생태학적 합리성과 아시아 철학 | 박이문
중국의 경제개발과 지구환경 | 리처드 스미스
캄보디아 여행기 | 유소림
제비와 제비꽃 | 전우익
먼곳의 그림내에게 | 김성동

자동차 천만대 시대의 문턱에서

자동차에 관한 미신들 | 임삼진
지금은 자동차를 길들일 때 | 박용남

시

제가 만든 어둠에 발등을 묻고서라도 외 2편 | 이현주
난지도의 아침 외 1편 | 장철문

서평

《나락 한알 속의 우주》 | 서형숙
《환경과 교육》 | 박경미

제37호(1997년 11-12월호)

녹색평론 여섯돌 — 독자들의 메시지

생태공경의 윤리 | 정화열
사람된 도리를 지킬 뿐이다 | 이현주
과학의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| 이필렬
'지속가능한 개발'은 불가능하다 | 장 원
리우 이후 5년 | 데이비드 해리슨
함박꽃 | 전우익
양들의 침묵 | 황혜원

녹색사상가 1

이반 일리치 — 상투성과 기계에 맞서는 현인 | 마릴린 스넬
우정에 대하여 | 이반 일리치

'세계화'의 재앙

문화영역의 세계화 또는 아큐현상 | 도정일
세계화의 덫 — "20 대 80의 사회" | 한스-페터 마틴(外)

시

게를 뒤집어 놓다 외 1편 | 최승호
비닐 외 1편 | 최종진

서평

《공동체를 찾아서》 | 변홍철
《자본주의의 종말》 | 정현숙

《사티쉬 쿠마르》 | 박남정
《우주선과 카누》 | 이문재
《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》 | 강수돌

제38호(1998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생태공경 — 생태윤리를 위한 교육 | 정화열 · 피티 정
대공황의 불가피성 | 고철기
전자주민카드와 정보화시대 | 정윤수
한 토착민의 자살계획 | 존 바이달
호흡 맞추기 | 전우익
먼곳의 그림내에게 | 김성동
짧은 이야기, 긴 그림자 | 서 숙

녹색사상가 2

프리츠 슈마허 — '작은 것이 아름다운' 까닭 | 다이아나 슈마허

왜 땅을 살려야 하는가

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| 천규석
마을문화를 되찾아서 | 김종철

시

촛불 외 1편 | 이가림
어느 정신 나간 자의 통일론 외 2편 | 이선관
땅의 폭동 외 1편 | 이동순
처음 마음 첫 실마리부터 외 1편 | 전무용

서평

《신쥬쿠의 시궁쥐 비둘기》 | 박은숙
《아름다운 삶, 사랑, 마무리》 | 황혜원

제39호(1998년 3-4월호)

IMF시대 — 삶의 위기를 삶의 기회로 | 강수돌
IMF체제하 생존의 길 | 정성기
'세계화'의 타파를 위하여 | 데이비드 코튼
'프라우트' 경제모형 | 고철기
에너지 전환과 사회체제 | 김종달
간디학교 1년을 돌아보며 | 장영란
라다크에 다녀와서 | 최성각
숲의 사람들 | 유현미

녹색사상가 3

루돌프 바로와 녹색 근본주의 | 로빈 에커슬리
사회주의, 에콜로지, 유토피아 | 루돌프 바로

시

탄생 외 2편 | 김영무
메아리 계곡 외 1편 | 주용일

서평

《떠도는 생태학》 | 전영우
《무탄트》 | 임삼진
《사회생태론의 철학》 | 이진우

제40호(1998년 5-6월호)

'시장/경제' 숭배와 민족주의와 세계화 | 권혁범
한국경제 — 축적양식의 위기 | 홀거 하이데
생명을 섬기는 풀무학교 | 홍순명

삶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새로운 돈

레츠 — 상호부양의 교환체계 | 길 세이팡(外)
지역통화 —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 | 자나 포티어
탐욕과 희소성을 넘어서 | 베르나르 리에테르

시

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외 2편 | 정호승
풀밭에서 외 2편 | 배창환

나무 외 5편 | 최종진
山門 외 2편 | 이용림

연재

시골신부의 집짓는 이야기(1) | 정호경

서평

《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》, 《그 여자네 집》 | 한만수
《빈곤의 세계화》 | 남인순
《신과학과 영성의 시대》 | 최혜영

독자의 편지 | 최영순 · 길종각

제41호(1998년 7-8월호)

'보살핌의 경제'를 위하여 | 김종철
경제에 대한 여성주의의 시각 | 캐럴 브루이에
노동자기업인수와 협동조합운동 | 김성오
불교귀농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| 변홍철
현대시와 생태윤리 | 정순진

시

솔밭에서 외 2편 | 이현주
백조일손지지 외 1편 | 이선관
IMF 덕분에 외 1편 | 최용탁
있다 외 1편 | 유현미

녹색사상가 4

자신의 습관으로 진화하는 우주 — 루퍼트 쉘드레이크와의 대화 | 김재희

연재

시골신부의 집짓는 이야기 (2) | 정호경

서평

《ET할아버지와 두밀리 자연학교》, 《풀무학교 이야기》 | 고병헌
《녹색사유와 에코토피아》, 《녹색한국의 구상》 | 최종덕

《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》 | 김홍숙

제42호(1998년 9-10월호)

영어교육에 대한 몇가지 사견 | 김진만
가족농의 강화 — 세계화 농업에 맞서는 길 | 정명채
시조의 생태미학 | 박혜숙
하틀랜드의 '작은학교' | 한주미
大地의 딸들의 문화 | 힐카 피에틸라
미래의 아이들 | 미셸 오당
웃음소리 | 서 숙
태극기 / 구름이 | 유소림
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발자국 소리 | 나희덕

수돗물불소화의 위험과 비윤리성

수돗물불소화의 문제 | 김종철
불소의 위험 | 봅 워핀든
불소 — 예방물질인가 독성물질인가 | 다이아나 하트
불소문제에 관한 주요 발언

시

용서받는 까닭은 외 1편 | 유안진
벚꽃나무 아래서 외 1편 | 김효정

서평

《선인들의 공부법》 | 김혈조
《살아남기》 | 하정옥
《언덕》 | 황현산

독자연수회를 마치고 | 변홍철

제43호(1998년 11-12월호)

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| 김우창
지역자립의 두레농업으로 | 천규석

전통두레의 현재적 의미 | 채희완
나들이 — 공동육아의 생명교육 | 김정희
슈마허 칼리지를 다녀와서 | 신정현
국유림관리소 공사화의 문제점 | 유재천

비폭력의 과학을 위하여

후손의 처지에서 평가해야 할 생명공학 | 박병상
과학상점운동의 현황 | 김병윤
비폭력주의 — 연민의 과학 | 마이클 네이글러
안데스 농민의 과학 | 마시 스클로브

시

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 외 1편 | 이선관
고향 외 4편 | 최종진
봉선화 외 1편 | 박두규
타작하는 날 외 1편 | 박효제

서평

《일본, 허울뿐인 풍요》 | 김찬호
《삶과 온생명》 | 김국태
《케스 — 매와 소년》 | 최은숙
《살아있는 에너지》,《아인슈타인은 틀렸다》 | 서대현

독자의 편지 | 김진택 · 손중선

제44호(1999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세상의 따순 것 | 공선옥
농촌 지역운동의 현실 | 구자인
나무를 심는 사람들 | 송만호
유전자 침범과 환경윤리 | 미라 퐁
기업과 지구를 위한 CPR | 데이비드 브라워

수돗물불소화 재론

유럽에서의 수돗물불소화 | 루돌프 지겔베커
수돗물불소화 논쟁 | 윌리엄 스타인
불소화 — 세기의 속임수 | 리처드 풀크스
내가 보는 불소화 | 서한태 · 장택희 · 황혜원

의료 — 삶과 공동체를 위한 기술

대체의학의 모습 | 전홍준
사랑의 치유능력 | 장현갑
의학기술 — 재앙인가 축복인가 | 김진국
다윈의학에 대하여 | 이인식

시

고향길 외 1편 | 윤중호
돌아가는 길 외 2편 | 유소림
빈 항아리 외 1편 | 조향미

서평

《한티재 하늘》 | 박남정
《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》 | 김경옥
《아이들을 변호하라》 | 이철국
《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》 | 한창훈

제45호(1999년 3-4월호)

Y2K 위기 앞에서 | 김종철
공동체학교를 위한 제언 | 윤구병
골목가꾸기 — 나의 작은 실험 | 김경민
생명의 발견 | 채인선
자연음악의 경이 | 이기애
얼음 위의 낙원 | 엘리오트 와인버거

컴퓨터교육 — 무엇이 문제인가

살아있는 교육을 위하여 | 김용근
컴퓨터 교육과 학교 | 김상회
정보화와 학교교육 | 안승문
아이들과 컴퓨터 | 제인 힐리

녹색사상가 5

루이스 멈포드 — 대지의 철학자 | 그로버 폴리

시

체르노빌 6 외 2편 | 이선관
단촌역 외 2편 | 김용락
루미 詩抄 | 이현주 옮김

서평

《시인을 찾아서》 | 염무웅
《귀농,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》 | 장길섭
《신자유주의, IMF, 국제연대》, 《어두운 승리》 | 강상구
《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》 | 최성일

제46호(1999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

소농정책의 행방을 묻는다 | 천규석
발도르프학교의 아동교육 | 윤선영
동강댐 과연 필요한가 | 양운진
성난 카우보이 — 축산업자에서 채식주의자로 | 하워드 리먼
귀향 연습 | 현기영

과학, 윤리, 생태학적 사유

유전공학의 약속과 공포 | 이인식
암소 — 우유생산기계? | 크레이그 홀드리지
가장 큰 속임수 — 수돗물불소화 | 필립 써튼
의료의 생태학 | 이종찬

시

수술 이후 1 외 2편 | 김영무
내가 몰랐던 일 외 2편 | 이동순
관음봉 가는 길 외 1편 | 윤재철

서평

《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》 | 김용휘
《시대를 담는 그릇》 | 정기용
《빈들에 나무를 심다》 | 변홍철
《분노의 그림자》 | 이창근

독자의 편지 | 김영원 · 권주열

제47호(1999년 7-8월호)

절제된 사랑법 | 박완서
“아조 할수없이 되면 고향을 생각한다” | 나희덕
노루삼촌 | 장철문
《근원수필》 읽기 | 전우익
생명의 보석 | 베르곤지 · 티트머스
길 없는 사회의 길 없는 교육 | 김진경
삶의 디자인 | 김찬호
소비문화와 약물의 오남용 | 김진국
친환경농업으로 새 천년을 연다 | 김성훈

경제의 방향전환을 위하여

세계화에서 지역화로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새로운 제3의 길 | 정성기

시

도시에서 나비가 사라져가고 있다 외 1편 | 황선하
미운 사람 외 1편 | 이선관
우파니샤드 외 2편 | 이성선

서평

《김지하 사상기행》 | 김인환
《전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》 | 홍순명
《몸의 정치》 | 유홍림

독자의 편지 | 김건엽 · 박준행

제48호(1999년 9-10월호)

'세계화'의 재앙과 대학의 쓸모

시장 전체주의와 인문교육 | 도정일
'세계화', 문화, 대학 | 미요시 마사오
나의 대학시절 | 신영복

들에서 보는 친환경농업 정책 | 천규석
새와 돌멩이에게 상을 드리는 이야기 | 최성각
'지방'을 다시 생각한다 | 박광숙
풍경과 진정성 | 김영동
도연명 | 전우익
꽃과 나무 | 서 숙

시

꽃 한송이 외 1편 | 김용택
아이엠에프 전철 외 1편 | 유소림
배추 한 움큼 외 1편 | 조향미

서평

《바이오테크 시대》 | 박병상
《화엄의 길, 생명의 길》 | 윤중호
《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》 | 박남정
《희망의 밭을 일구는 사람들》 | 안혜령
《한국의 생태사상》 | 서인석
《간디의 물레》, 《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》 | 손경목

제49호(1999년 11-12월호)

바다와 자연의 과학, 정치경제, 형이상학 | 김우창
우주와의 대화 | 이성선
닭들아, 안녕! | 장철문
도시와 환경 | 이경재
살림에 대한 몇가지 斷想 | 장택희
일노래꾼의 첫농사 이야기 | 편해문

지문 디지털화와 전자감시사회 | 박성원
상품 전체주의의 시대 | 후지따 쇼조

WTO 체제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

세계화의 질곡과 풀뿌리 공동체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WTO의 횡포에 맞서는 운동 | 후루사와 코유
WTO와 제3세계의 농업 | 마틴 코

시

백만명분의 오염 외 2편 | 이선관
상강 무렵 외 1편 | 심호택
무밭에서 외 1편 | 배창환
고향 외 1편 | 최종진
별 외 3편 | 황문찬

서평

《그들에게 국민은 없다》, 《촘스키, 끝없는 도전》 | 문부식
《첨단의학시대에는 역사시계가 멈추는가》 | 이종찬
《제2의 창세기》, 《프랑켄슈타인인가 멋진 신세계인가》 | 구영모
《혼자 타오르고 있었네》, 《갈증이며 샘물인》, 《굴참나무숲에서 아이들이 온다》 | 강형철

독자의 편지 | 박소현 · 김영주 · 김창복
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결성소식

제50호(2000년 1-2월호)

50호를 내면서

환경운동의 원점에서 — 서한태 박사와의 대화
시인의 큰 마음 | 김종철 · 송희복 · 남송우
지역공동체와 풀뿌리 지역언론 | 장호순
생명누리의 꿈 | 정호진
NGO와 대안문화운동 | 정수복
학교 밖의 학교 — 우리 마을 이야기 | 최은숙
영원한 물음 | 박이문
텔레비전의 횡포 | 제리 맨더
통권 50호 기념 메시지 | 박이문 · 윤구병 · 양희규 · 신경숙 · 구자인

왜 소농 중심 유기농업으로 가야 하는가

작은 것이 풍요롭다 | 피터 로세트
쿠바의 유기농업 혁명 | 휴 워릭

시

밤의 깊이 외 1편 | 이가림
개마고원빛 외 1편 | 박홍식
애기똥풀 외 1편 | 양동춘

서평

《환경의 세기》 | 이필렬
《에너지 대안을 찾아서》 | 구도완
《객관성의 칼날》, 《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》, 《남성의 과학을 넘어서》 | 이영완
《반 통의 물》 | 유소림

제51호(2000년 3-4월호)

자연의 시간, 인간의 시간 | 윤구병
똥 생각 | 김곰치
환경 | 생태문제와 晦齋의 '仁' 思想 | 이동환
환경위기에 맞서는 교육철학 | 정영홍
'작은 풍요'를 위한 경제교육 | 강수돌
인간배아 연구와 수정 후 14일 | 임종식
노동중독증의 문제 | 홀거 하이데

누구를 위한 WTO인가

누구를 위한 WTO인가 | 로리 월러치 · 미셸 스포자
시애틀의 역사적 의의 | 반다나 시바

시

죽어야 낫는 병 외 2편 | 이선관
겨울산 외 1편 | 조향미
소가 밟았던 자리 외 1편 | 안수양
비무장 지대 | 정춘근

서평

《새천년 맞이 생명을 위한 제언》, 《살아남기, 근원으로 돌아가기》 | 이현주
《다시 희망을 묻는다》 | 주요섭
《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》, 《위험한 미래》 | 김환석
《동물해방》 | 박창길
《진보의 패러독스》 | 한재각

콤부차 이야기

제52호(2000년 5-6월호)

생명 · 우주율 · 시 | 이성선
집에 대한 생각 | 신경숙
민간의술의 유용성과 과학성 | 황종국
암과 제도권 의학의 속임수 | 새뮤얼 엡스타인
시민과학자로 살다 | 다카기 진자부로
스코트 니어링의 죽음 | 엘렌 라콩트

녹색사상가 6

웬델 베리 — 땅의 예언자 | 빌 매키벤

출산 — 생명의 기술과 폭력의 기술

부드러운 분만을 위하여 | 박문일
평화로운 출산, 탄생의 축제 | 임영신
출산과 테크놀로지 | 메리 앤 리이저

시

어떻게 하나? 외 2편 | 이현주
세계에서 제일 현명한 이에게 외 1편 | 유소림
산책 외 1편 | 이윤림

서평

《경제학은 왜 자연의 무한함을 전제로 했는가》 | 정성기
《한국에서 醫를 論한다》, 《한국의료대논쟁》 | 맹광호

독자의 편지 | 정송남 · 최종수 · 최은숙
콤부차 네트워크

제53호(2000년 7-8월호)

문명된 삶 | 김우창
과거를 딛고 통일의 길로 | 민 영
나는 이곳에서 적막과 만난다 | 한창훈
환경과 언론 | 이계삼
체제 밖의 과학 | 이필렬
수돗물불소화 — 과연 타당한가 | 장택희

녹색사상가 7
사티쉬 쿠마르 — 땅 위를 걷는 사람

자본의 논리와 생명기술산업
생명공학의 실상과 근본 대안 | 박병상
왜 우리는 유전자조작식품을 반대하는가 | 허남혁
새로운 삶을 위한 식사 | 존 로빈스

시
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 아니라 외 2편 | 이선관
생강굴 속의 음모 외 1편 | 장대송
봄비 외 1편 | 이문숙

서평
《정치와 삶의 세계》 | 권혁범
《환경갈등과 불평등》, 《생태학의 담론》 | 구도완
《노래하는 나무》, 《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》 | 정윤경
《스콧 니어링 자서전》 | 변홍철

독자의 소리 | 금이정 · 박종림 · 정요섭 · 정현숙
단재학술상 수상소감
콤부차 소식
수돗물불소화 최신자료

제54호(2000년 9-10월호)

가사미산 기슭에서 | 김명수
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| 이필렬
DNA 독트린/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이데올로기 | 김동광
'학교붕괴'에 직면하여 | 이순철
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| 이정호

기술주의 의료체제의 극복을 위하여

현대의학의 기술주의와 폭력성 | R. 데이비스-플로이드
잔혹한 관행 — 동물실험 | 알릭스 파노
뇌사·장기이식의 비윤리성 | 우메하라·야나기타
"자연의학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" | 제임스 고든

시

꽃제비 전설 외 1편 | 배창환
성 프란시스꼬 외 1편 | 황문찬
산맥 외 1편 | 최종진

서평

《에코페미니즘》 | 하정옥
《우리 안의 파시즘》 | 조효제
《21세기 희망은 農에 있다》, 《신비한 밭에 서서》 | 박남정
《땅의 눈물 땅의 희망》 | 성동환
《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》 | 정 석
《인디언의 복음》 | 정형철

콤부차 네트워크

제55호(2000년 11-12월호)

발행인의 편지 — 아름다운 영혼을 기리며 | 김종철

파크와 가든 | 이문구
간디의 아쉬람을 찾아서 | 김 진

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/ 일본 생활클럽 생협에 대하여 | 마루야마 시게키
'황금쌀'과 다국적기업의 음모 | 허남혁
저항의 조직화를 위하여 | 변홍철
미래에 왜 우리는 필요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| 빌 조이
논평 — 박이문 · 이필렬 · 유소림 · 조환규 · 박은정 · 최성각 · 조약골 · 조우석 · 조홍섭 · 한재각
새로운 과학윤리를 찾아서 | 매완 호

의사의 지위 | 김동춘
의사폐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| 김태종

녹색사상가 8

단순한 수단, 풍요로운 목적 — 아르네 네스와의 대담

다카기 진자부로 박사 추모자료 | 김원식(외)

시

애국자가 없는 세상 | 권정생
아버지의 농사 외 1편 | 김진하

서평

이선관, 김명수, 배창환 시집에 대하여 | 김용락
《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》 | 배병삼
《무소유의 경제학》 | 윤형근
《육식,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》 | 장택희

독자의 소리 | 정지연
콤부차 이야기(2)

제56호(2001년 1-2월호)

새만금에 망가지는 삶과 꿈 | 김곰치
소농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| 장길섭
한국의 반핵운동과 에너지 대안운동 | 이필렬
위협받는 아이들의 건강 | 여시영
근대와 탈근대 — 충돌과 접점 | 권혁범
매월당과 퇴계의 매화시 | 박혜숙
진리에 다가가는 영혼 / 권정생의 문학 | 이계삼

세계화의 재앙, 희망의 신호들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홍수 앞에서 | 아룬다티 로이
21세기 식품 / 농업정책의 전망 | 후루사와 코유

시

생명의 무게는 외 2편 | 이선관
살아남고 싶어서 외 2편 | 이현주

서평

《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》, 《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에게》 | 한만수
《50년이면 충분하다》, 《허울뿐인 세계화》 | 강수돌
《파우스트의 선택》 | 최성일
《비노바 바베》, 《마음을 다스리는 간디의 건강철학》 | 박종림

독자의 소리 | 윤영중 · 이옥선 · 소정열
포항시 불소화 반대운동 소식 | 강정호
수돗물불소화 중단 WHO 청원 서명운동

제57호(2001년 3-4월호)

언론개혁과 대안언론 | 장호순
글로벌 미디어와 민주주의 | 로버트 맥체스니
핀드혼 공동체 체험기 | 황대권
힐러리에게 암소를 | 마리아 미즈
환경운동과 노동운동 | 김석윤
인간해방을 향한 꿈 — 간디학교의 실험 | 정미숙
발도르프 유아교육 | 이경랑
왜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는 안되는가 | 황성수

생명공학과 나쁜 과학

온생명 관점에서 본 생명조작과 생명윤리 | 장회익
'황금쌀'과 세계의 기아문제 | 크레이그 홀드리지
인간게놈 지도, 유전자 결정론의 죽음과 그 이후 | 매완 호

연재

건강을 위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(1) | 장현갑

시

새천년 새해 백두산에서 외 1편 | 김영무
눈 내린 며칠 1 외 2편 | 송기원
옻나무 외 1편 | 고진하
봄날은 갑자기, 외 1편 | 정복여

서평

《꿈의 도시 꾸리찌바》 | 김찬호
《살림의 논리》, 《먹어서는 안되는 유전자조작식품》, 《환경호르몬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50가지 방법》 | 심현정
《오만한 제국》, 《세계와 미국》 | 박인규

수돗물불소화 반대운동 소식

제58호(2001년 5-6월호)

분단 50년의 양심 | 권정생
토착언어의 소멸 | 김종락
건강권의 회복을 위하여 | 이종찬
환경과 건강을 위한 채식 | 박병상
광우병과 현대농업의 위기 | 김미자
트윈오크스 공동체 방문기 | 유정길
'우와'족의 투쟁, 지구의 절규 | 이태화
함석헌 선생 탄신 100주년에 | 김성수
우주공간으로 뿌려지는 탐욕의 씨앗 | 카알 크로스먼

삶의 존엄성, 저항의 아름다움

땅의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한 행진 | 이그나치오 라모네
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| 양희규
'아니오'의 아름다움 | 리 호이나키

시

떠나는 소에게 외 1편 | 정인화
채송화 외 3편 | 최종진

아버지 곁에서 하룻밤 외 1편 | 노영민

서평

고재종 · 김수영 · 나희덕 · 이하석 · 장석남 · 허수경 시집에 대하여 | 구모룡
《세상에서 네가 제일 멋있다고 말해 주자》, 《오래된 집》, 《연민》 | 오윤주
《의사대란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》, 《아픈 것도 서러운데》, 《새로운 의학, 새로운 삶》, 《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》 | 조윤미
《새로운 소박함에 대하여》, 《소박한 삶의 철학》 | 한상봉

수돗물불소화를 다시 묻는다

불소화의 법적, 윤리적, 정치적 함의 / 과학적 반론의 억압 / 각국 정부의 공식 입장 / 불소수도의 안전성 / 불소와 갑상선

수돗물불소화 반대운동 소식

제59호(2001년 7-8월호)

기억을 향한 투쟁 | 김곰치
동물의 생명권과 '생명윤리기본법' | 박창길
자연농업의 현장을 찾아서 | 황대권
을숙도 명지대교 건설을 반대한다 | 김은정
파마겟돈 | 존 로빈스
설탕 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 | 윌리엄 더프티
은밀한 핵전쟁 | E. 곤칼브스
무욕과 평화의 깊이 / 최종진 시인을 찾아서 | 이응인

진리와 비폭력의 삶을 위한 상상력

비전의 경제 | 리 호이나키
생태주의 사업에 대하여 | 백기범
비폭력 평화사상의 흐름 | 고병헌

시

하물며 외 1편 | 유소림
압록역 외 1편 | 최정규

서평

김영무 · 이중기 시집에 대하여 | 유성호
《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》 | 조홍섭
《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》 | 임영신

수돗물불소화 반대운동 소식

2001 전국대회 및 각 지역 활동상황 / 해외로부터의 메시지들

제60호(2001년 9-10월호)

수구네미 마을의 기억 | 김명수
제국이 돌아오고 있다? | 서 숙
"역사의 느낌" | 박은숙
한밭레츠 —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| 박용남
슬로우푸드 운동 | 김종덕
나의 자동차 공회전 반대운동 | 김춘화
북한 식량위기의 원인과 교훈 | 토니 보이즈
케랄라 — 가난하지만 활기찬 사회 | 아카시 카푸르

아이들을 어떻게 낳고 기를 것인가

출산, 병원, 인간정신 | 존 로빈스
아이들의 심장과 두뇌발달 | 조셉 칠턴 피어스
조기교육의 열풍 속에서 | 김영미
아버지의 해방을 위하여 | 이강옥

연재

건강을 위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(2) | 장현갑

시

체르노빌 8 외 1편 | 이선관
소 외 1편 | 김정원

서평

《지리산》, 《詩를 찾아서》 | 이은봉
《핀드혼 농장 이야기》, 《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》, 《평화의 씨앗》 | 박경미
《일본 시민사회 기행》, 《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》 | 최성일
《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》, 《미래의 에너지》 | 이상문

카를로 줄리아니의 죽음 앞에서

제61호(2001년 11-12월호)

창간 10주년을 맞이하며

제발 그만 죽이십시오 | 권정생
왜 미국은 당장 전쟁을 중지해야 하는가 | 아룬다티 로이
테러, 사랑, 세계의 상황 | 존 로빈스
변두리에서 | 웨스 잭슨
미망의 거품방울 | 봅 배너
낡은 구두와 '낡은 구두' | 나희덕
간디에 관하여 | 올더스 헉슬리
운명의 여러 얼굴 | 스티브 탤보트

자립과 자치의 삶

생협운동과 주민자치운동(좌담) | 윤형근 외
풀뿌리 신문의 도전 | 김태숙
의료생협 — 건강을 위한 협동과 자치 | 변홍철
지역경제의 이념 | 웬델 베리

연재

건강을 위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(3) | 장현갑

시

평화 외 1편 | 최종진
국화차 외 1편 | 조향미
애기똥풀꽃길 외 1편 | 손택수

서평

《성난 카우보이》, 《더이상 먹을 게 없다》, 《패스트푸드의 제국》 | 장택희
《위기의 현대과학》, 《대중과 과학기술》 | 박병상
《물의 위기》, 《소리잃은 강》 | 이상헌
《대안교육과 대안학교》, 《새로운 학교 풍경》, 《아름다운 학교》 | 정형철

교보환경문화상 수상소감

제62호(2002년 1-2월호)

"농촌은 인류의 생명창고다" | 윤구병
뿌리내리기 | 황대권
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| 더글러스 루미스
무위당 선생의 삶과 사상 | 리영희 · 전표열
미리 가본 녹색미래 | 이상헌
마을로 들어가기, 마을에서 대안 만들기 | 황주석
러시아를 받치고 있는 '다차' | 김선만

평화의 근원적 의미를 생각한다 | 이반 일리치
세계화와 테러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
폭주하는 경제의 세계화를 제어하라 | 오까다 모또하루
전쟁의 실패 | 웬델 베리

시

자꾸만 평야가 없어져가는 것은 외 2편 | 이선관
폐교 외 1편 | 박호민

서평

《공동체경제를 위하여》 | 김성오
《작은 언론이 희망이다》 | 김영욱
《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》 | 황성원
《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》, 《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》 | 홍성태
《생명의 위기》, 《영혼의 부정》 | 박경미

창간 10주년 기념모임을 마치고 | 변홍철

제63호(2002년 3-4월호)

흙의 문화를 위하여 | 김종철
탈중심의 변방 정신 | 현기영
생명의 대안은 없다 | 김곰치

‘도로의 끝’은 어디인가 | 민만기
동물실험의 비윤리성 | 박창길
네팔 여성 찬드라에게 사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| 최성각
테러와 전쟁을 보는 세계의 눈 | 권혁범

어떻게 저항할 것인가

작가와 세계화 | 아룬다티 로이
또하나의 전쟁 | 리 호이나키
세계화, 여성, 자급경제 | 마리아 미즈

연재

건강을 위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(4) | 장현갑

시

길 끝에서 외 2편 | 이현주
치자꽃 학교 외 1편 | 배창환
흙 외 1편 | 이윤주

서평

《위대한 전환 — 다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》 | 박용남
《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》 | 장길섭
《플러그를 뽑은 사람들》 | 박남정

제64호(2002년 5-6월호)

“세상 일체가 하나의 관계” | 장일순
희망의 마을, 가비오따쓰 | 황대권
아름다운 공간 | 박은숙
전력산업 구조개편 — 어떻게 할 것인가 | 이필렬
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 | 안선희
생명공학산업과 시민의 저항 | 박병상
의료생협 — 위기에 맞서는 공동체운동 | 임종한

변두리에서의 삶 | 리 호이나키
간디의 비전과 농업 | 비벡 핀토
21세기의 인구, 식량, 농업 | 후루사와 코유

아메리카의 ‘자유’와 확장주의 | 더글러스 러미스

연재

건강을 위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(5) | 장현갑

시

박경리 선생 외 1편 | 이선관
聖 느티나무 외 1편 | 나희덕
저녁때 차를 끓이다 외 1편 | 장철문

서평

《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》, 《멈추시오 수돗물불소화》 | 최성일
《순환의 경제학》 | 김기섭
《흙과 재》 | 이계삼
《힌두 스와라지》 | 김호성

‘우리쌀 지키기 100일 100인 걷기운동’ 제안문
(가칭) 농업회생연대 제안문 | 정농회
독자의 소리 | 김성희, 조금숙, 홍성직, 이복희

제65호(2002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

강아지풀 | 나평강
“히말라야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십시오” | 최성각
새만금에수님을 죽이지 마라 | 김곰치
경쟁력이 없으면 농업도 버려야 하나 | 최수호
급식조례 제정운동을 펼치며 | 이은순
소리에 관한 명상 | 송순재
병원 출산의 문제 | 조셉 칠턴 피어스

지역통화 — 세계변혁의 도구

NAM과 지역통화 | 가라타니 고진 · 박유하
지역통화 LETS에 대하여 | 니시베 마코토
공예 및 생활기술에 대하여 | 후쿠이 테쓰야

공동체 화폐 | 베르나르 리에테르

시

성골마을 대보름날 외 1편 | 윤중호
빈집을 헐면서 외 1편 | 윤관영
텃밭을 가꾸면서 | 노영민

서평

《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》 | 조경만
《미사일 디펜스》 | 정욱식
《영혼의 성장과 자유를 위한 교사론》, 《프리스쿨》 | 김정숙
《아담을 기다리며》 | 박은숙
《의료의 문화사회학》, 《현대의학의 위기》, 《철학자 가다머 현대의학을 말하다》 | 김진국

독자의 소리 | 최종진 · 이복희

제66호(2002년 9-10월호)

땅의 옹호 | 김종철
마을, 그 아름다운 공화국 | 송기숙
민중의 자연 | 다카기 진자부로
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| 더글러스 러미스
도덕과 정치 | 김지하 · 최종덕
아프리카 외 1편 | 서 숙
에너지 전환의 현장 | 이필렬
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철도 | 성동환
녹색대학의 이념과 전망 | 장회익

생명묵상

풀비린내에 대하여 | 나희덕
기도할 줄 아는 활동가 | 김곰치

우리쌀 지키기 운동

왜 우리쌀을 지켜야 하는가 | 장상환
농사와 저항 | 김구일
“결코 멈출 수 없다” | 김재형

시

산촌 외 3편 | 최종진
채송화 외 1편 | 김정원

서평

《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출산》, 《출산 속에 숨겨진 사랑의 과학》 | 장부용
《녹색운동의 길찾기》, 《환경철학》 | 최성일
《21세기 녹색교통수단 — 자전거》 | 김경애
《슈거 블루스》 | 손영기

제67호(2002년 11-12월호)

쌀, 어찌할 것인가 | 천규석
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참관기 | 박용남
댐이 홍수피해 키웠다 | 문창식
홍수 이후 | 김대진
생태유아공동체에 대하여 | 임재택
'우리쌀지키기 100일 걷기운동'을 돌아보며 | 정경식
농업회생연대 운동의 평가와 반성 | 신보연
9월이여, 오라 | 아룬다티 로이

생명묵상

무위당 선생님께 | 이현주
세계화와 기술에 대한 저항 | 사티쉬 쿠마르

쿠바의 녹색화 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희망의 신호

유기농업으로 나라가 변한다 | 요시다 타로
쿠바는 녹색국가가 되는가 | 스티븐 쥬니스
쿠바의 녹색의료 | 메르세데스 가르시아

시

이천이년 삼월 삼짇날 2 외 1편 | 이선관
겨울 외 2편 | 유소림

서평

《야생초 편지》 | 권복기
《새만금 리포트》, 《세계의 습지를 가다》 | 유영초
《치명적인 일본》 | 이숙종
《텔레비전을 버려라》, 《텔레비전에 대하여》 | 김연수

독자의 소리 | 김춘화 · 권혜령

제68호(2003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시선 | 염무웅
눈 그리고 눈 | 서 숙
“그림자가 없다” | 이계삼
쌀, 지켜야 한다 | 천규석
임오년(壬午年)과 갑오년(甲午年) | 박맹수
유전자조작 기술의 위험성 | 권영근
정읍 방사선센터 건설을 중지하라 | 주요섭
NAM에 대하여 | 가라타니 고진
인류 존속의 열쇠를 쥔 아이들 | 미셸 오당
마지막 농장 | 리 호이나키

생명묵상

“자연이 나의 신(神)이다” | 미하일 고르바초프

시

미국 턱밑에 쿠바가 있다! 외 2편 | 이현주
상강 무렵 외 1편 | 박영희
뻐꾸기 운다 집에 가자 외 1편 | 이규홍

서평

《눈뜬 장님 밥상》, 《분노의 대지》 | 이환의
《파국적인 석유위기가 닥쳐오고 있다》, 《석유시대, 언제까지 갈 것인가》 | 윤순진
《블루골드》 | 김의욱
《녹색희망》, 《나는 평화를 희망한다》 | 이민철
《간디 평전》, 《영혼의 리더십》 | 김조년

독자의 소리 | 이충훈

제69호(2003년 3-4월호)

착란과 기다림 | 김곰치
두 개의 슈퍼파워 | 정욱식
윤리, 법, 생명공학 | 박병상
위험한 밥상 | 이진아
“숲은 우리의 생명입니다” | 유현미
새로운 ‘갑오년’을 꿈꾸며 | 김재형
“새만금의 망상을 허물어뜨려야 한다” | 신형록 · 김정욱 · 박병상 · 최성각 · 변홍철
또하나의 위험한 개발논리 | 허정균
좌담 / 참다운 ‘풍요로움’을 위하여 — 《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》를 읽고 | 강수돌 · 김타균 · 최성각

부드러운 과학을 위하여

과학의 여성적 얼굴 | 린다 진 세퍼드
사랑으로 과학하기 | 매완 호

생명묵상

소나무에게 들어라 | 후지따 쇼조
우리 시대의 어미노릇에 대하여 | 김경수

시

삼월 삼짇날 4 외 2편 | 이선관
참새에게 외 2편 | 유소림
가족 외 1편 | 최종진
이런 날에는 외 1편 | 최정규
겨울 들판 외 1편 | 조향미

서평

《세계는 상품이 아니다》 | 신보연
《미국의 이라크 전쟁》, 《아메리카》, 《민주주의 제국》 | 이승렬
《가난과 사랑의 상실을 찾아서》 | 박남정

제70호(2003년 5-6월호)

특집1 — 미국과 세계평화

아메리카와 지금 어떻게 사귈 것인가 | 오다 마코토
'팍스 아메리카나'의 도전 | 더글러스 러미스
지구적 제국체제의 해체를 꿈꾸며 | 염무웅
여성과 '평화 만들기' | 정현백
질문과 답변

부시의 '판 흔들기' | 황대권
석유를 둘러싼 전쟁이냐, 태양을 통한 평화냐 | 프란츠 알트
핵폐기물과 '수소혁명'에 관하여 | 이필렬
이 시대를 산다는 것의 고통 | 존 버저
삼보일배의 길을 떠나며 | 문규현 · 수경 · 김경일 · 이희운
삼보일배 — 망상을 깨는 기도의 힘 | 변홍철
새만금 생태보존과 바다도시 논의 | 백낙청

생명묵상

백성들의 평화 | 권정생
단식을 풀며 | 지 율

특집2 — 생명공학의 질주, 위협받는 생명윤리

'멋진 신세계'를 저지하려면 | 레온 카스
여성, 생명윤리, 인간배아복제 | 김명희
줄기세포 연구의 현황과 그 한계 | 권혁찬
과학발전 이데올로기와 생명윤리법 | 배태섭

시

입적 외 1편 | 윤중호
신도시 2편 | 최윤식

서평

《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》, 《환경수도,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》 | 박용남
《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》, 《전쟁에 반대한다》, 《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》 | 은종복
《생존의 비용》, 《물 전쟁》 | 권혁범
《오카방고, 흔들리는 생명》, 《사라져가는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》 | 유영초

제71호(2003년 7-8월호)

왜 자치, 자율의 삶이 필요한가 | 김종철
협동과 자치, 생명의 도시를 향하여 | 최혁진
아토피와 학력저하 | 이진아
새로운 문명사회는 가능할까 | 김경일
“사람을 살려서는 뭘 하자는 건가?” | 배수찬
발코니에 사는 십자매 | 서형숙
자동차에서 해방되는 첫걸음 | 김영희
무농약쌀 한말 사먹기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며 | 배영태

생명묵상

갯벌 이야기 | 리타 테일러
‘낮은 삶’이 대안이다 | 신형록

민주주의와 자치를 위한 투쟁

인스턴트 제국 민주주의 | 아룬다티 로이
사파티스타 농민운동 | 폴 킹스노스
“WTO는 농업에서 손을 떼라” | 조제 보베

시

사랑 외 2편 | 유소림
더 무서운 戒嚴 외 1편 | 安貞煥

서평

《따뜻한 뿌리》 | 나희덕
《제국의 몰락》, 《블로우백》, 《코리안 엔드게임》 | 박인규
《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》, 《모든 것은 땅으로부터》 | 허남혁
《내가 믿는 세상》, 《비노바 바베, 간디를 만나다》 | 이근행
《아이 밥상 지키기》, 《아이들은 왜 자연에서 자라야 하는가》 | 신숙희

제72호(2003년 9-10월호)

민중의 자치와 평화 | 김종철
이 패도의 세계에서 | 오다 마코토

평화와 환경의 세기를 위하여 | 토다 키요시
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에너지 문제 | 이필렬
국책사업을 구조조정하라 | 김해창
쿠바 그리고 희망을 찾아서 | 서정홍
'늙은 엄마'의 아이 키우는 이야기 | 최민희
수돗물불소화와 인권, 민주주의 | 하승수

생명묵상

3천배 기도에 들며 | 지 율
한용운, 인류를 사랑한 애국자 | 박노자

시

무늬 외 1편 | 고진하
끔찍스러운 생각 외 2편 | 정인화

서평

《에코 이코노미》 | 최미희
《꿈꾸는 지렁이들》 | 김정희
《말해요, 찬드라》, 《일회용 사람들》 | 박경태
《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》, 《아래로부터의 세계화》 | 김어진

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 안내
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청원운동

제73호(2003년 11-12월호)

환경과 평화의 세기를 위하여 | 토다 키요시 · 김종철
—《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》 제1회
우리 농업, 희망은 있는가 | 김성훈 · 김종철
야만의 상식, 일상의 저항 | 이계삼
파병반대에서 비전(非戰)으로 | 조약골
산골도로가 재앙을 부른다 | 이승기
보고타 — 차 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 | 박용남
지구환경은 좋아지고 있다? | 최성일
나라란 무엇인가 | 천규석
법정에 선 도롱뇽 | 허 범
비단으로 짠 천성산 | 리타 테일러

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 | 최용수

생명묵상

물질적으론 부자, 시간적으론 가난뱅이 | 볼프강 작스
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 | 최정석

시

완두콩 외 1편 | 윤중호
옛 주막에서 외 1편 | 양문규

서평

《새만금 새만금》, 《아름다운 살인》, 《새만금,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》 | 박병상
《이 땅에서 농업을 하는 의미》, 《小農 — 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》 | 김구일
《환경학과 평화학》 | 이윤숙
《거꾸로 사는 엄마》, 《'나부터' 교육혁명》 | 박종림

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 안내

제74호(2004년 1-2월호)

세계화 시대의 에콜로지와 정의 | 볼프강 작스 외
— 《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》 제2회
전쟁, 기억, 평화 | 임영신
언어의 침략, 언어의 상실 | 리타 테일러
학교급식 —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 | 천규석
마을공동체와 교육, 학교급식 | 장길섭
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| 장호순
노무현 정부의 '농업·농촌 종합대책안'의 문제점 | 박창규
풀뿌리 환경운동과 '전문가'의 권력 | 김백주

생명묵상

새야 새야 | 권정생
내 주변의 천사들 | 김윤영

특집 | 핵폐기장과 에너지 정책 — 각국의 경험과 교훈

독일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방식 | 이필렬

스웨덴 — 민주적 합의에 기반한 핵폐기물 정책 | 박진희
미국 핵폐기장 건설과정의 시사점 | 윤순진
영국 핵폐기물 정책의 경험과 교훈 | 석광훈

시

지하철의 사상 외 2편 | 김규동
국어사전에도 없는 낱말 하나 외 2편 | 이선관

서평

《해월 최시형의 정치사상》, 《동학의 정치철학》 | 박맹수
《농사꾼 아이들의 노래》, 《문학의 길 교육의 길》, 《나무처럼 산처럼》 | 이성인
《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이야기 1, 2》 | 서정오
《굶주리는 세계》 | 좌수일

독자의 소리 | 김춘화 · 신기섭

제75호(2004년 3-4월호)

세계화에서 지역화로 |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 외
—《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》 제3회
진정한 현실주의, 절충적 실용주의 | 이계삼
지속가능한 사회와 일자리 만들기 | 신보연
FTA,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 | 김재형
아픈 집 | 이진아
돌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 | 이승기
지역통화 — 희망을 만드는 돈 | 소병철 · 유창수
지역통화 실험은 계속된다 | 이창우

생명묵상

정복되지 않는 죽음 | 이반 일리치
산업화와 잃어버린 자긍심 | 박명숙

개발과 세계화에 맞서는 풀뿌리 민주주의

부안에서 희망을 본다 | 허정균
'광주'에서 '부안'으로 | 이민철
무장한 세계화에 저항하라 | 임영신

새로운 미국의 세기 | 아룬다티 로이

배아복제와 이종간 이식의 위험성 | 박병상
이공계 위기와 배아복제 | 이필렬

시

개구리 외 3편 | 최종진
다대포에서 외 1편 | 장병윤

서평

《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》, 《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》 | 조명래
《21세기 전쟁》, 《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할 10가지 이유》, 《파레콘》 | 강양구

독자의 소리 | 玄順惠
이반 일리치 읽기 모임 안내 / 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 안내

제76호(2004년 5-6월호)

기업 이데올로기의 전성시대 | 우석훈
종말과 희망 — '펜타곤 보고서'에 대하여 | 이필렬
세계화에 맞서는 '6월 행동'을 조직하자 | 김어진
세계화, 전쟁, 민중의 건강 | 우석균
생명의 집 | 이진아
무엇을 위한 고속철인가 | 김해창
핵폐기장 건설은 주민투표로 결정될 수 없다 | 신보연
"총을 내려라" | 양희창
르완다, 식민분리주의의 악몽 | 최종덕
자연으로부터 배운다 | 사티쉬 쿠마르
어떤 상실의 경험 — 숨바꼭질의 정신사 | 후지타 쇼조

생명묵상

선이골에 온 까닭은 | 김용희

시

황혼을 맞이한 노부부의 사랑 외 2편 | 이선관
별 외 2편 | 유소림

상림의 봄 외 1편 | 조향미
매화리(梅花里) 일기 1 외 1편 | 노영민

서평

《전쟁인가 평화인가》 | 정태욱
《똥살리기 땅살리기》 | 임덕배
《생태적 경제기적》, 《생태주의자 예수》 | 조영탁
《수상한 과학》, 《유전자 전쟁》 | 박병상
《그래, 땅이 받아줍디까》, 《아궁이 불에 감자를 구워먹다》, 《콩깍지 사랑》 | 김종락

독자의 소리 | 김동주

제77호(2004년 7-8월호)

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| 사티쉬 쿠마르 외
—《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》 제4회
골프장 건설 반대 깃발이 내려지던 날 | 권정생
남자 의사, 여자 마녀 | 이진아
과학과 윤리 | 김동광
세계화와 이주노동자 | 강수돌
기업의 논리와 자주적 삶 | 앤 플라이실리
왜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가 | 자크 포웰스
'서브시스턴스' 회복의 가능성 | 마리아 미즈
혜능선과 소농경제사상 | 이은윤

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상과 실천

국가폭력과 양심적 병역거부 | 한홍구 · 최정민
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을 걷기까지 | 최 진

시

서울에 가고 싶다 외 1편 | 박두규
농사 외 1편 | 김정원

서평

《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》, 《좁쌀 한알》 | 김민해
《9월이여, 오라》, 《아부알리, 죽지마》 | 방현석

《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》, 《사랑의 패러다임》 | 최성일
《물은 상품이 아니다》, 《세상을 움직이는 물》 | 김의욱

독자의 소리 | 최지훈

제78호(2004년 9-10월호)

좌담 /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| 천규석 · 권혁범 · 신보연 · 강수돌 · 김종철
다시 생각하는 전태일 | 이계삼
골프 공화국의 재앙 | 우석훈
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| 박기범
공동체를 위한 지혜 | 황대권 외
농업 — 산업인가, 살림인가 | 강국주
투표와 제비뽑기 | 가라타니 고진
서커스를 보다 | 서 숙
'북핵문제'를 둘러싼 12개의 문답 | 개번 매코맥
에너지 안보, 에너지 전환, 남북한 협력 | 이필렬
에너지 전환과 시민 참여 | 오용석

생명묵상

흙의 리듬과 생명-역동농업 | 리타 테일러

시

거짓말 외 1편 | 김형영
자존심 외 1편 | 윤재철

서평

《쌀과 민주주의》, 《그대로 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》 | 김재형
《탈세계화》, 《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》 | 강양구
《모성 혁명》, 《에코데믹, 새로운 전염병이 몰려온다》 | 이은정
《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》, 《생명의 아픔》 | 이응인

독자의 소리 | 김헌주

제79호(2004년 11-12월호)

책을 내면서

세계화, 쌀 협상, 유기농업 | 송기호
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평화전략 | 정욱식
팔레스타인 캠프 방문기 | 임영신
시민의 눈으로 본 원자력발전 | 김선혜
고령사회의 문 앞에서 | 박병상
인류 역사와 의료의 전통 | 이진아
자연의 옷을 벗기는 이들 | 이승기
야마기시즘 생활실현지 이야기 | 김현주
서구적 근대의 신화를 넘어서 | 박맹수
본동에 내리는 비 — 尹子小傳 | 윤재철
기후변화 아래서 어떻게 세계를 먹여살릴 것인가 | 에드워드 골드스미스
자연과 노동 | 다카기 진자부로
도롱뇽 소송 재판부에 올리는 탄원문 | 김곰치

생명묵상

걸어서 행복으로 되돌아가다 | 프랑 미셸
아제가 저 세상으로 가던 날 | 송만철

시

이 세상에서 만약 신이 죽는다면 외 2편 | 이선관
누군가를 밟고 있었다면 외 1편 | 백무산
애기복수초 외 3편 | 조성순
불경(不敬) 외 1편 | 조향미

서평

《세계화와 싸운다》 | 변홍철
《소년의 눈물》 | 윤경원
《캐테 콜비츠》, 《땅의 정신 땅의 얼굴》 | 김영동
《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》, 《버거의 상징 — 맥도날드와 문화권력》 | 김홍주
《불소 — 거대한 속임수》 | 쉘던 크림스키

제80호(2005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경자유전의 원칙, 생명의 원칙 — 농지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| 우석훈
과학기술의 덫에 갇힌 언론 | 강양구
버스 준공영제, 이대로 좋은가 | 박용남
전쟁, 일상, 세상의 슬픔 | 이계삼
"그놈 한 분" — 백무산 시인께 | 김곰치
공동체와 창조성 — 작은누리 공동체 이야기 | 박형규
내가 경험한 인지학 의료 | 리타 테일러
"화학요법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— 그리고 지구는 편평하다" | 틴 투버

생태문학의 딜레마와 가능성

편집자의 말 | 생태문학은 무엇이었던가? | 이문재
생태문학의 딜레마 | 도정일
밥상 위의 제국 | 김수이
소설과 생태학적 상상력 | 곽경숙
생태주의와 평화주의 | 박희병

시

詩 외 4편 | 윤중호
야성을 잃고 나는 우네 외 2편 | 이중기
천길 벼랑 외 2편 | 신경현

생명묵상

족발과 신발 | 최영희

서평

《초국적기업, 세계를 삼키다》, 《아탁》 | 서준섭
《호열자, 조선을 습격하다》 | 장석만
《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》 | 윤병선
《진정한 부》 | 김동윤

제81호(2005년 3-4월호)

가야를 다시 생각한다 | 천규석
평택 — 전쟁기지냐 '제2의 부안'이냐 | 김용한
지역주민 죽이는 국책사업 | 송정복
고령사회에서의 노동과 복지 | 고병헌

식품안전기본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| 송기호
희생 — 지율과 예수 | 박경미
가난에 대하여 | 김재형
나의 '녹색' 편력기 | 공선옥
고백과 다짐 — 지리산 두레마을 이야기 | 김호열

성장사회의 종언을 위하여 | 세르게 라투세
탈석유 시대로 되돌아가기 | 리처드 헤인버그
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하기 | 리타 테일러
나는 잊지 못한다 | 장 지오노

시

이사 외 1편 | 이상국
물회는 슬프다 외 1편 | 강은미
자작나무의 사랑 외 1편 | 권영부

생명묵상

쌀은 무엇인가 | 한승오

서평

《농부와 산과의사》 | 이진아
《다시 태양의 시대로》, 《태양도시 — 에너지를 바꿔 삶을 바꾸다》 | 김영우
《스코트 니어링 평전》, 《희망은 있다》, 《강이, 나무가, 꽃이 돼 보라》 | 정형철
《미국의 엔진 — 전쟁과 시장》, 《패권인가 생존인가》 | 전성원
《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》, 《국민으로부터의 탈퇴》 | 윤대석

제82호(2005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 / 동아시아의 평화와 '일본문제'

위기에 빠진 노동, 위기불감증에 빠진 공동체 | 박승옥
무엇을 위한 '경제 살리기'인가 | 강수돌
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노동의 복원 | 강두용
언론이 바뀌어야 땅이 산다 | 김해창
지방선거와 풀뿌리 지역운동 | 하승수
과학기술시대와 여성의 꿈 | 박혜영
로마, 마야, 그리고 한국의 농촌 | 이진아

캄보디아 | 서 숙

일본문제와 '역사에의 진실성'

일본의 '우경화'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| 권혁태
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공동체와 정체성 — 1930년대와 오늘 | 개번 매코맥
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를 둘러싼 싸움 — '역사에의 진실성'에 대하여 | 테사 모리스-스즈키
내셔널리즘의 얼굴 | 현순혜

시

배추 외 1편 | 나희덕
졸음 외 2편 | 홍종태

서평

《대화 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》 | 박경미
《아픈 아이들의 세대》, 《음식국부론》 | 한재각
《미래로부터의 반란》, 《살아있는 학교 어떻게 만들까》 | 강철오
《새벽의 건설자들》, 《풀뿌리가 희망이다》 | 김성균

제83호(2005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

'해방' 60주년을 맞으며

아홉살 해방의 기억들 | 권정생
빼앗겼던 들에 봄은 왔는가 | 천규석
'국민교육'을 넘어서 | 이치석
해방 60년과 한반도 평화 | 정택상
한국언론의 위기와 과거청산 | 장호순
'발전·개발' 논리에 대한 의문 | 강국주
'경쟁'과 '품위' | 박경미
지역자급의 관점과 일본 농촌 | 구자인
세계화, 아펙, 기후변화 | 김어진
건강과 에너지 | 이진아

생명묵상

초록의 공명과 에코페미니즘 | 지율

과학연구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

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허상 | 박병상
생명공학 시대와 인간의 미래 | 박충구
과학기술 이데올로기의 종말 | 강양구
자연의 탐구와 인간의 변질 | 에르빈 샤르가프

시

숯 외 1편 | 함민복
어제의 달 외 1편 | 현택훈

서평

《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》 | 양동춘
《닭이 봉황 되다》, 《풍수잡설》 | 성동환
《과학사회논쟁과 한국사회》 | 송성수

제84호(2005년 9-10월호)

수돗물불소화를 우려하는 발행인의 편지

한국의 불소화를 우려하는 해외로부터의 긴급 성명서
불소 — 거대한 속임수 | 크리스토퍼 브라이슨
평택 — 땅의 소리, 농민의 소리 | 문만식
빈집 점거 공동체 '더불어 사는 집' | 조약골
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역할 | 이필렬
족쇄로서의 시간, 심장으로서의 시간 | 백무산
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? | 김명수
사과나무 낙원의 꿈 | 신문수
언어의 귀중함 | 리타 테일러

무엇을 위한 교육인가

사람됨과 교육 | 박경미
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 | 이계삼
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| 최윤정
민중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교육 | 김한수

시

北에 와서 외 1편 | 배창환
고향 외 4편 | 최종진

서평

《발바닥, 내 발바닥》 | 구모룡
시집《다시 격문을 쓴다》, 《환상통》 | 이문재
《짚 한오라기의 혁명》, 《생명의 농업과 대자연의 도》 | 김대진
《나쁜 과학》 | 김명진
《오스기 사카에 자서전》, 《크로포트킨 자서전》 | 변홍철

독자의 소리 | 김형중 · 김소연

제85호(2005년 11-12월호)

책을 내면서

김지하의 '유목-농경문화 통합론'에 대하여 | 천규석
전태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| 박승옥
세계화와 영어 제국의 논리 | 이승렬
전쟁과 아이들 | 임영신
생활역사와 구술사의 만남 | 윤택림
다시 찾는 태양 | 이진아
공동체 라디오 이야기 | 하주영
"4공구를 터라" 새만금 연안 어민들의 절규 | 고은식
방폐장 주민투표와 민주주의의 위기 | 하승수
공생공빈(共生共貧)의 길 | 스치다 다카시
우정과 환대를 위한 화폐 | 루이스 로페젤라-멘데스
불소 — 거대한 속임수 (연재 2회) | 크리스토퍼 브라이슨
— 맨해튼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어떻게 불소를 팔아먹었는가
쌀과 세계화 | 구현석
흙의 신앙, 인간의 교육 | 이계삼
동북아시아 4천년의 농업 | 프랭클린 H. 킹

시

배꽃 외 1편 | 송기원
야구 중계방송 외 1편 | 윤재철

호박잎쌈 외 2편 | 조향미

서평

《버마전선 일본군 '위안부' 문옥주》, 《아메리카타운 왕언니,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》, 《여성이 만드는 아시아》, 《역사적 파시즘》 | 오한숙희
《자연의 종말》, 《기후의 역습》 | 김해동
《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》, 《수탈된 대지》 | 박혜영

제86호(2006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집단광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| 천규석
땅의 울음 | 서정홍
홍콩 WTO 반대 투쟁 참가기 | 허남혁
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,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| 우석훈
똥은 에너지다 | 박승옥
시골 수도자들이 치켜든 골프장 반대의 깃발 | 이연학
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| 박창길
지역사회 풀뿌리운동과 2006년 지방선거 | 이 호
먹고 사는 일의 엄중함 | 공선옥
높이 나는 새처럼, 빛나는 | 김곰치
창동 허새비의 뜨거운 노래 — 이선관 시인의 삶과 문학 | 정규화

황우석과 과학, 그리고 '발전의 신(神)'

지금, 여기의 '과학기술 파시즘' | 강양구
황우석 사태와 복제배아의 생명 | 이필렬
어떻게 살 것인가 | 박경미
"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사태에 익숙해져버렸다" / 생물학자 에르빈 샤르가프와의 대담

시

번역은 반역이다 외 9편(유고) | 이선관
파리의 우울 외 1편 | 정희성

서평

《지금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》 | 최성각

《야스쿠니 문제》, 《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》 | 권혁태
《신개발주의를 멈춰라》, 《참여정권, 건설족 덫에 걸리다》 | 강수돌
《동학》, 《동학사상과 신문명》 | 박맹수

제87호(2006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

농업 위기,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

좌담 / 농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| 천규석 · 천호준 · 서수녀 · 송정복 · 김병혁
세계화와 중국농촌 | 원 티에쥔
식량재앙, 에너지 위기, 한국의 농민운동 | 박승옥

무하마드가 쏘아올린 작은 공 | 이승렬
'아픔' 없는 사회의 언론 | 이계삼
누가 최종숙 할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었나 | 노순택
4 · 3 항쟁, 변방, 끝나지 않은 세월 | 장우석
마을 도서관 만들기, 꿈꾸기와 어려움 | 김재형
환경위기, 교사가 먼저 나서자 | 김백주
물 사유화에 반대한다 | 김동주
이 땅에서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 | 김완진
폭설이 우리 곁을 지날 때 | 나희덕

시

능금 혹은 돌배 외 1편 | 문태준
너무 먼 곳 외 2편 | 신경현
새싹 외 2편 | 한승오

서평

《동아시아의 지역질서》, 《반일과 동아시아》, 《고뇌하는 중국》 | 한승동
《농민이 난을 생각하다》, 《새야 새야 파랑새야》 | 전희식
《생명윤리, 무엇이 쟁점인가》, 《생명과학과 선》 | 유경동

독자의 소리 | 조성호 · 박선정 · 김한주

제88호(2006년 5-6월호)

해방의 문명사를 위하여 | 이승렬
한국 자본주의와 유목주의 | 우석훈
변화의 기로에 선 농민운동, 무엇을 고민하는가 | 박웅두
'5월 광주'가 나에게 남긴 것 | 박맹수
체르노빌 참사 20주년을 맞으며 | 김해창
가난한 이들에게 인문학을 | 고병헌
일본의 근대를 묻는다 | 高史明
현대화의 해체 | 원티에쥔
'도롱뇽 소송' 재판장님께 | 지 율
내가 인사성 밝은 동네 청년이 된 까닭 | 김곰치

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
한미 FTA와 '성장 중독증' | 노주희
한미 FTA의 '마지노선'은 어디인가 | 송기호
미국의 '재구조화 전략'과 한미 FTA | 홍기빈

시
혼자만의 아침 외 1편 | 이문재
꿩 외 1편 | 이원규
하느님 앞에 외 1편 | 노영민

서평
《내가 본 함석헌》, 《씨올 함석헌 평전》 | 박경미
《삶은 기적이다》 | 박혜영
《녹색의 상상력》 | 김종락
《도둑맞은 세계화》 | 변홍철

독자의 소리 | 이동근

제89호(2006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

농촌, 일그러진 근대화의 표상 '새마을운동'에 대하여 | 황대권

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 | 허남혁
'도롱뇽 소송' 대법원 결정문에 대한 비판 | 이계삼
'황우석 사태'는 끝났는가 | 강양구
조기영어교육, 효과가 있는가 | 이병민
노무현 정부, 왜 '인구담론'에 매달리나 | 우석훈
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꾸는 꿈 | 김헌주
누가 '원효'를 왜곡하는가 | 한승원

한국과 미국, 한미 FTA

한미 FTA와 문화예술 | 안태호
시와 세계화 | 송경동
주한미군 재배치와 평택 기지확장 문제 | 정욱식
대추리 도두리, 빼앗긴 들을 지키는 사람들 | 진재연

시

걸림돌 외 1편 | 이덕규
듣기 외 1편 | 연인선

서평

윤중호 유고시집 《고향길》, 김사인 시집 《가만히 좋아하는》 | 윤재철
《행복한 돈 만들기》 | 박용남
《디아스포라 기행》, 《난민과 국민 사이》 | 권혁태
《농부의 길》, 《공생공빈(共生共貧)》 | 김기섭
《에너지 주권》 | 김정현

제90호(2006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

좌담 / 한미FTA, 대체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| 강기갑 · 이해영 · 우석훈 · 김종철
연대와 상호부조의 무역 | 닉 벅스턴
미국-이스라엘 제국주의와 헤즈볼라의 저항 | 임재경
문화야말로 파괴에 저항하는 힘 | 줄리아노 메르 하미스
평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 | 염무웅
야스쿠니 문제와 미국 | 마크 셀던
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(1) | 박승옥

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한 직거래 농민장터 | 김병혁
농업·농촌의 현실과 농민운동의 방향 모색 | 송동흠
삼성, 이건희, 그리고 김성환 | 이계삼
내 등판은 거위의 놀이터다 | 최성각

시

원어(原語) 외 1편 | 하종오
밥 한 그릇 외 2편 | 서정홍

서평

《기후 창조자》, 《인간은 기후를 지배할 수 있을까?》, 《2030 기후습격》 | 김해동
《침묵과 열광》 | 조홍섭
《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》 | 이창우
《소농 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난다》 | 장길섭
《한미FTA 폭주를 멈춰라》 | 노주희

제91호(2006년 11-12월호)

책을 내면서

'지역'을 다시 생각한다

아름다운 노·농연대 — 자급·자치의 관점으로 | 천규석
지역공동체와 농업, 먹거리, 환경 | 김종덕
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| 정혜진

범죄국가들, 소프라노 대 바리톤 | 개번 매코맥
황우석 사태, 끝난 것이 아니다 | 이필렬
석유정점,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(2) | 박승옥
지식인과 염치 | 박경미
교육에서 자연으로 — 국가와 시장을 넘어 | 정영홍
내가 '쌀 판촉활동'에 나선 사연 | 강국주

한미 FTA,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공격

한미 FTA와 기업식민주의 | 랄프 네이더
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 — 투자자의 '방패'인가 '창'인가 | 홍기빈

시

나무야, 나무야 외 1편 | 이면우
겨울 산정에서 외 1편 | 강미정

녹색 에세이

퇴곡리 듬바위골 분교 | 유소림
대관령에서 보내는 편지 | 김도연

서평

《우방과 제국, 한미관계의 두 신화》, 《범죄국가, 북한 그리고 미국》 | 배성인
《이윤에 굶주린 자들》, 《쌀밥 전쟁》 | 김철규
《교실의 고백》, 《아이들은 자연이다》, 《홍순명 선생님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이야기》 | 조향미
《백성백작》, 《산에서 살다》 | 김종락

'한미 FTA를 우려하는《녹색평론》 전국 독자모임'을 마치고 | 정형철 · 남용식 · 이재희
독자의 소리 | 박동범 · 김성환 · 김지순

제92호(2007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

왜 자립경제인가 — 박현채를 다시 읽으며 | 박승옥
근대문학의 종언, 그 후 또는 그 이전에 대하여 | 이승렬
일본의 '바보' 증세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| 한승동
부동산 파동과 '노무현 레짐',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| 우석훈
내일을 '살처분'하는 획일주의 — 조류독감과 광우병 문제 | 박병상
한미 FTA 의약품 협상, 이윤이냐 생명이냐 | 변혜진
'로컬푸드' 운동에 대한 의문 | 박상표
자연의 법, 인간의 법 | 해창
"나는 아프다!" — 김형율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| 김곰치
왜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가 | 정선희
'좋은 언어'와 관용의 정신 — '논술 열풍'에 대한 생각 | 이계삼
아미쉬 공동체, 산업세계 속의 오래된 삶의 방식 | 존 A. 호스테틀러

만평

석유와 전쟁, 미국 | 손문상

녹색 에세이

벌들 죽어가는 날에 외 1편 | 유소림
버려진 것들로 짓는 집 | 전희식

시

이웃 외 1편 | 이정록
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외 1편 | 최은숙

서평

《마을이 세계를 구한다》, 《간디, 나의 교육철학》 | 한승오
《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》, 《한미 FTA의 마지노선》 | 정태인
《전태일 통신》 | 하승수
고형렬, 김신용, 장석남 시집에 대하여 | 박형준

독자의 소리 | 원충연 · 이용석

제93호(2007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 / 한미 FTA, 경제성장, 민주주의 | 김종철

진보는 없다 — 민주화운동에서 사회전환운동으로 | 박승옥
사법권력,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| 하승수
'개발동맹'에 맞서는 풀뿌리의 투쟁 | 강수돌
지구온난화 대책과 생태주의 | 김해동
'로컬푸드' 운동과 농업 — 농촌 살리기 박상표 씨의 '의문'에 대해 | 김용우
한살림 스무돌에 부쳐 | 김기섭
교사도 우울하다 | 유영미
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| 박희은
웬델 베리 — 근원을 향한 시선 | 박혜영
영혼을 흔드는 바람, 켄 로치 | 정형철

녹색사상가 9

반다나 시바 — 자본과 테크놀로지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목소리 | 리네트 덤블

만평

대추리 냉이꽃 | 손문상

한미 FTA의 대차대조표

한미 FTA, 타결 전야에 다시 생각한다 | 이해영
투자자 국가제소권을 다시 본다 | 송기호
퇴각중인 세계화? | 월든 벨로

시

눈알 외 1편 | 배창환
달이 뜨니 달이 뜬다고 할 뿐이다 외 1편 | 박두규

녹색 에세이

겨우살이 | 유소림

서평

《미래를 살리는 씨앗》, 《어제를 향해 걷다》, 《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》 | 이현부
《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》 | 홍기빈
《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》, 《이것이 인간인가》, 《주기율표》 | 강양구
《희망의 인문학》 | 최연희

제94호(2007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 / 한미 FTA, '국익'이라는 환상 | 김종철

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| 송기호
한미 FTA와 비자본주의의 여백 | 주요섭
한미 FTA와 환경운동의 과제 | 문재현
한미 FTA, 절망의 나락 앞에서 | 김구일
똑똑이들의 나라 | 이계삼
자유무역, 빈곤, 사파티스타 | 웨인 엘우드

붐-붐은 이제 그만! | 우고 차베스
식량, 빈곤, 생태주의 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길을 열다 | 존 램

과거, 진실, 기억의 윤리

기억의 도덕과 윤리 독일의 기억과 일본의 기억 | 도정일

할아버지, 할아버지,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? | 김성동
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학살 현장에서 | 최승호

과학사기는 왜 일어나는가? | 김환석
바다와 함께 죽어가는 새만금 어민들 | 허정균
환경운동,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| 강양구

만평

조승희에게 | 손문상

녹색 에세이

뱀 외 2편 | 유소림
실업의 추억 | 이문재

시

오랜만에 소 시를 쓰다 외 1편 | 이상국
할매 외 1편 | 정낙추
논 · 개구리 외 1편 | 조향미

서평

《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》 | 박승옥
《죽음의 향연》, 《얼굴 없는 공포,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》 | 김진국
《들꽃은 꺾이지 않는다》, 《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》 | 박진
《세계의 빈곤, 누구의 책임인가》, 《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》, 《가난한 휴머니즘》 | 이화숙

제95호(2007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권정생 선생을 추모하며

빌뱅이언덕 밑 오두막에 살면서 | 김용락
이 땅 '마지막 한 사람'이었던 분 | 이계삼

국가주의와 개발주의에 짓밟히는 마을공동체 | 하승수
제주는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어야 한다 | 김동주
우리 농촌 현실과 마을만들기 | 구자인

먹거리 문제와 녹색정치 | 한재각
두바이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| 박용남
베네수엘라, '볼리바리안 혁명'의 현장을 찾아서 | 임승수
일상 속의 진실 — 전직 장관 또는 영화감독 이창동 | 이승렬

기로에 선 중국

기로에 선 중국 | 데일 웬
대담 / "중국에는 생태적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" | 데일 웬 · 월든 벨로
아시아 소농세계와 중국의 '신농촌 건설' | 오노 카즈오키
중국의 신좌파와 새로운 사회적 대안 | 판카지 미슈라
중국 '민공' 문제와 동아시아 노동 · 환경운동의 연대 | 김영곤

녹색사상가 10

피터 모린 — 농업 코뮌과 '환대'의 사상가 | 짐 포레스트
읽기 쉬운 에세이들 | 피터 모린

만평

한나절 | 손문상

녹색 에세이

구름이 | 유소림
내 놀던 옛 강변에 나가보니 | 강기희

시

꽃들의 119 외 4편 | 백무산
철의 실크로드 | 구중서

서평

《개발주의를 비판한다》, 《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》 | 강수돌
《일 중독 벗어나기》, 《보이지 않는 가슴 : 돌봄 경제학》 | 황기돈
《몸 사냥꾼》, 《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》 | 한동로
《자본의 세계화, 어떻게 헤쳐 나갈까》, 《공정한 무역, 가능한 일인가》 | 차미경

제96호(2007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진정한 복지는 자급·자치의 삶이다 | 천규석
예수의 교회, 마몬의 교회 | 박경미
지역-현장에 뿌리박은 사회운동, '민중의 집' | 최준영
장암리 사람들 | 허정균
왜 제국이면 안되는가? | 더글러스 러미스

민영화, 자유무역, 소농

'자발적 민영화'와 FTA의 이중주 | 정태인
'금융 허브론'과 한국경제의 미래 | 홍기빈
자유무역과 小農 | 윌든 벨로

통일농업, 지금 시작하자 | 황보윤식
재생가능에너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자 | 이강준

인문학과 교육을 위한 성찰

대학, 뿌리뽑힌 지식, 좋은 삶 | 리 호이나키
조승희 사건, 교육과 죽음의 문화 | 스비 샤피로
교도소로 부치지 못한 편지 | 이명원

녹색사상가 11

시인 로빈슨 제퍼스와 '인간을 초월한 장엄한 아름다움' | 마이클 맥도웰

녹색 에세이

머위를 따며 외 1편 | 유소림

시

대졸트럭 외 1편 | 심호택
자연의 뒷간 외 1편 | 정일근

서평

《문제는 부동산이야, 이 바보들아》 | 김윤상
《입시 공화국의 종말》, 《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》 | 장혜옥
《소금꽃나무》, 《길에서 만난 사람들》 | 박수정
《우리 농업, 희망의 대안》 | 송정복

제97호(2007년 11-12월호)

책을 내면서 / ‘공생공락의 가난’을 위하여 | 김종철

인간적 사회를 위하여 — 산업화와 민주화의 반세기를 돌아보며 | 김우창
코리아 환상곡 | 송기호
후쿠다 정권의 일본과 한반도 평화 | 한승동
이라크 파병연장과 ‘국익’이라는 논리 | 김어진
내가 쿠르드어를 배우는 까닭 | 아쉬티
마흐무드 다르위시 — 시(詩)로 되찾는 고향, 팔레스타인 | 박혜영
재난(災難) 자본주의의 시대 | 나오미 클라인

대선, 민주주의, 에콜로지

새만금과 대통령선거 | 리건
그들의 선거? 우리들의 민주주의! | 하승우
에콜로지 시대의 민주주의 | 마크 개러번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 | 김성동
퇴곡리 반딧불이 | 유소림
우리 동네 이마트와 ‘조삼모사’ | 박병상

만평

레퀴엠 2007 | 손문상

시

아직도 라디오 시대 외 1편 | 윤재철
커피 외 2편 | 박용하

서평

《몸살》, 《달려라 냇물아》 | 오수연
《자본주의의 종말》, 《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》 | 강양구
《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》, 《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》 | 이광일
《갈릴레이 딜레마》, 《과학, 멋진 신세계로 가는 지름길인가?》 | 김명진
《직접행동》, 《폭력의 철학》 | 변홍철

독자의 소리 / 삼성, 그리고 재벌이라는 사회악 | 김성환

제98호(2008년 1-2월호)

신년대담 / '좋은 삶'이란 무엇인가 | 김우창 · 김종철

시장, 국가, 자율복지 | 강수돌
한미FTA, 어디로 가나? | 이해영
서해를 死海로 만드는 개발지상주의 | 허정균
'바다 재앙' 앞에서 | 임채수
지구온난화 대책과 과학의 불확실성 | 김해동
대학의 아웃사이더, 시간강사 | 하재철
잃어버린 민족의 망명정부, 〈우리학교〉 | 이승렬
갈릴리의 농민과 예수 | 박경미
태국의 自足經濟 | 도널드 K. 스웨러
농민과 민주주의 — 산마리노 공화국의 교훈 | 울프 선드호슨

《正義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》를 읽고

호이나키의 아버지, 나의 아버지 | 최성각
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용기 | 김종락
매력적인 바보 | 공선옥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(2) | 김성동
메밀 수업記 | 유소림

만평

석유문명 / 바다새가 사람에게 | 손문상

시

무지개 외 1편 | 이홍섭
코스모스 외 1편 | 이영광

서평

질박한 지혜의 詩들을 읽는 기쁨 | 배창환
《좋은 날에 우는 사람》, 《능소화》, 《들꽃을 엿듣다》
신자유주의와 글로벌 동맹 | 조명래
《신자유주의》, 《불경한 삼위일체》

착한 도시, 행복을 위한 불편 | 김추령
《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》, 《즐거운 불편》
'지역'에 대한 성찰과 길찾기 | 정경섭
《지역,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》, 《마을이 보인다, 사람이 보인다》

제99호(2008년 3-4월호)

한반도 대운하 — 해서는 안될 사업 | 김정욱
물길을 걷다 — 운하 이야기 | 지 율
누가 서해 어민들을 죽이는가 | 허정균
누가 바다의 주인이냐 — 태안 원유 유출사고 현장에서 | 김곰치
광우병 위험은 어떻게 은폐되었나? | 송기호
'88만원 세대'와 자급·자치의 관점 | 천규석
이명박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 | 이계삼
희망에 대하여 | 강국주
'근대문학의 종언'이 말한 것 | 이명원

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직면하여

MB노믹스와 식량체계의 재편성 | 박용남
우리의 배고픈 행성 — 식량이냐 연료냐 | 슈피겔誌
아, 쿠바 — 유기농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| 황대권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(3) | 김성동
떠나는 나의 동무들에게 | 유소림
아직 돈에 포섭되지 않은 마음의 목록 | 이문재

시

흙 외 1편 | 김규동
기타큐슈의 검은 강 외 1편 | 하재연

서평

대운하 이데올로기와 위험사회 | 성현석
《경부운하, 축복일까 재앙일까》, 《대한민국 위험사회》
농업생명공학과 자본의 질주 | 윤병선
《농업생명공학의 정치경제》

위기의 교육을 넘어서 | 이철국
《위기의 학교》, 《학교를 넘어서》
포도밭 주인의 '이상한 경제학' | 장정일
《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》
마을과 코뮌을 논하다 | 하승우
《다시, 마을이다》, 《가족에서 학교로, 학교에서 마을로》, 《코뮌주의 선언》

제100호(2008년 5-6월호)

100호를 내면서 | 김종철

100호 기념 좌담 /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| 박용남 · 장길섭 · 공선옥 · 고영남 · 송기호 · 김종철
이명박 정부의 農政을 진단한다 | 박진도
세계적 식량위기의 원인과 식량주권 | 윤병선
중국은 티베트를 놓아줄 만큼 강하지 않은가 | 최성각
대지의 거주자들과 '길'의 윤리학 — 영화 〈어느 날 그 길에서〉 | 나희덕
《침묵의 봄》과 카슨의 시적 감수성 | 박혜영
자연의 삶, 고통의 의미 — 권정생 선생의 《한티재 하늘》에 대하여 | 이계삼
노벨상을 못 받는 사람들에 관하여 | 도리스 레싱

풀뿌리의 협동과 사회적 경제

불안의 시대를 넘어 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| 최혁진
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| 장원봉
인도 여성농민들로부터 배운다 | 구점숙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 (4) | 김성동
집 | 유소림

100호 기념 新作詩 특집

신경림 · 이가림 · 정희성 · 윤재철 · 배창환 · 백무산 · 김용락 · 서정홍 · 이문재 · 조향미 · 최종진

서평

가시권으로 들어온 두 권력, 삼성과 김&장 | 최한수
《법률사무소 김앤장》, 《삼성왕국의 게릴라들》
자본주의 체제에서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| 이화숙

《부자들이 지구를 어떻게 망쳤나》, 《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》, 《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》
에너지위기 시대,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| 정혜진
《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》, 《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》, 《새로운 지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》
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다는 것 | 전진삼
《사람 · 건축 · 도시》, 《서울 이야기》
교육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| 권복기
《변산공동체학교 : 어제, 오늘 그리고 내일》

제101호(2008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 / 저항으로서의 축제, 촛불집회의 아름다움 | 김종철

좌담 /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시작되고 — 2008년, 촛불 광장에서 | 김형수 · 김희정 · 손지연 · 박지원
한국에 가서 '촛불'을 보다 | 金哲洙
촛불, 민주주의, 석유문명 | 박승옥
삶으로서의 민주주의 — 자급과 공생의 정치 | 하승우
농민공동체와 직접행동 민주주의 — 송기숙의《녹두장군》복간의 현재적 의미 | 이명원
조류독감의 길목 | 박병상

식량위기와 식량주권

식량주권 회복의 길 | 윤병선
만들어진 식량위기 | 윌든 벨로
북한의 기아사태, 전세계적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 | 존 페퍼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(5) | 김성동
정말 고마운 스승 | 서정홍

시

여보게, 친구들 나를 미쳤다고 했나? 외 1편 | 정인화
숲에 들다 외 1편 | 박두규
소는 눈망울이다 외 1편 | 황규관
날아가는 버스 외 1편 | 이규리
어떤 청혼 외 1편 | 안현미

서평

스승을 찾는 자, 이미 스승이다 | 한상봉
《녹색평론선집 2》
세계화 — 역사의 필연인가, 제국의 전략인가 | 강수돌
《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》, 《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》, 《고삐 풀린 자본주의, 1980년 이후》
시장권력과 지식인의 행로 | 김 원
《시장권력과 인문정신》, 《민주화 20년, 지식인의 죽음》
밥상의 윤리와 혁명 | 이빈파
《독소 : 죽음을 부르는 만찬》, 《죽음의 밥상》, 《슬로푸드, 맛있는 혁명》

100호 기념 전국순회 강연회를 마치고 | 장우석 · 김익록 · 서현수 · 정형철 · 정중효 · 김동주 · 이경자 · 이민철 · 금이정 · 이성홍

독자의 소리

녹색평론 독자의 이름으로 〈경향신문〉 의견광고를 내다 | 정형철

제102호(2008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 / 협동적 자치의 공동체를 향하여 | 김종철

'사랑의 경제'와 지역화폐 운동 | 박용남
기후와 혼돈, 그리고 詩 | 이성희
유토피아와 아나키즘 | 마키노 도키오
분열된 세계 | 알렉산드르 솔제니친
역사적 사회주의, 그 암울한 디스토피아 — 영화 〈카고 200〉을 보고 | 황대권
중국의 여름, 위기에 직면한 '성공' | 울리히 피히트너
중국 공산당과 '보수적 민주화' | 장-루이 로카
당신들의 법, 우리들의 정의 — 합법적 불법과 불법적 정의 | 박경미
"이건 내 나라가 아니야" — 비정규직 장기투쟁 농성장 방문기 | 이계삼
생사 기로에 선 금강 하구갯벌 | 허정균

지역과 촛불

2008년 '촛불'과 광주 | 이민철
대구의 '촛불'을 돌아본다 | 허미옥

식량위기와 밥상의 윤리

식량위기,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| 천규석
식품안전성을 둘러싼 속임수 | 그레인
미국소의 추억, 혹은 어느 양심적 잡식가의 고백 | 박진빈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(6) | 김성동
저 풀숲에서 우는 벌레만큼 | 서정홍

시

비에 젖는 바다는 외 1편 | 이병철
롯데마트 가는 길 외 1편 | 황인숙
산해경을 읽다가 외 1편 | 김수우
연꽃 외 2편 | 최종진

서평

먹는 것은 정치적 행위다 | 서해성
《사육과 육식》, 《도살장》, 《잡식동물의 딜레마》
꺾이지 않는 꿈 | 안미선
《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》, 《푸른 생명》
몸과 삶의 위기 — 인문학이 대안인가 | 김진국
《인문의학 : 인문의 창으로 본 건강》
국가 없는 비폭력의 삶이 가능할까 | 조약골
《국가는 폭력이다》, 《폭력 없는 미래》
고흐, 위대한 신비에 대한 헌신 | 박은숙
《하느님의 구두》, 《빈센트 반 고흐》

제103호(2008년 11-12월호)

미국 금융위기,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? | 정태인
왜 지금 다시 '박현채'인가 — 금융위기, 식량위기 그리고 자립경제론 | 박승옥
생태적 위기와 새로운 글쓰기 | 최성각
농민적 세계관과 연대의 감수성 — 이문구의 《우리동네》에 대한 재해석 | 오창은
중국의 식품오염 | 저우칭
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, 반성 없는 일본사회 | 김해창
그리스 민주정과 추첨제 | 김봉률

자치와 협동의 삶을 위한 교육

홈스쿨링과 샬롯 메이슨의 교육사상 | 정선희
간디의 자치·자립의 교육사상 | 배리 버크
인간본성을 존중하는 양육방식 | 진 리들로프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(7) | 김성동
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| 서정홍
소 이야기 | 박성대

시

안도현·최종천·최영철·박우현·김장일

서평

'선진국' 대신 '고향'을 달라 | 금이정
《퇴곡리 반딧불이》
돈벌이 아닌 살림살이 경제학이 절실하다 | 강수돌
《무용지물 경제학》, 《1%만을 위한 경제성장, 부자들의 경제학은 버려라》
일본 '전후 민주주의'의 환상 | 윤경원
《종속국가 일본》, 《대한민국 걷어차기》
문화교양주의를 넘어서 | 이명원
《시장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》
한국사회의 새 청사진을 위하여 | 김현우
《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》, 《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》
"누군가는 먼저 총을 내려놓아야 한다" | 변홍철
《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》, 《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》

제104호(2009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 / 희망을 위한 보이콧 | 김종철

벼랑 끝에 선 한국농업, 어떻게 해야 하나 | 김성훈
왜 지역먹거리운동인가 | 윤병선
피크쏘일 | 데이비드 몽고메리
식량문제 해외 현장 취재기 | 강이현
자급의 지혜 | 데이비드 보일
'호모오일리쿠스'의 선택 | 윤진규
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실험실, 꾸리찌바 | 박용남

북유럽에서 찾아보려고 한 '희망' | 성현석
구스타프 란다우어와 공동체 아나키즘 | 래리 갬본
엘리트들과 녹색 풀뿌리 운동 | 월든 벨로
시련과 혼돈, 그럼에도 계속되는 희망 | 장성익
미하일 엔데와 우애의 경제학 | 박혜영
북한산의 향기, '아름다운 마을' | 최종수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(8) | 김성동
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| 서정홍

시

밥상의 가족사 외 1편 | 하종오
가자미 식해 외 1편 | 김창균

서평

"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에 취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" | 황대권
《행복한 집구경》, 《핸드메이드 라이프》
생태적 자율사회에 대한 탈근대적 비젼 | 이승렬
《에콜로지카》
균형과 생태, 그리고 마을 이야기 | 이권우
《세 개의 동그라미 : 마음 · 이데아 · 지각》
풍자와 야유, 농촌의 내면을 헤집다 | 오창은
《누가 말을 죽였을까》
식민지에서 마을공화국으로 | 이민철
《지방은 식민지다》
경제논리와 정치논리 | 박종현
《슈퍼자본주의》, 《미래를 말하다》

제105호(2009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좌담 / '용산' — 토건국가 한국의 비극 | 홍성태 · 손낙구 · 송기호
동학 다시 읽기 | 박맹수
녹색경제론 | 박승옥
농부의 파업 | 박병상

진리를 향한 순례자, 톨스토이 | 박경미
神, 자연, 인간 | 마키노 도키오
'위대한 평민 · 늠름한 농민'을 위한 도서관 | 안찬수
자활 인문학의 행복 | 남춘자
도법 스님과의 대화 | 최종수

협동운동의 논리와 실천

좌담 / 경제위기의 시대, 협동운동의 해법은 무엇일까 | 윤형근 · 최혁진 · 하승우
협동조합운동과 대안경제 | 하승우
베네수엘라, 내부의 힘으로 협동문화 만들기 | 에이프릴 하워드

녹색 에세이

염불처럼 서러워서(9) | 김성동
508호실 | 서정홍

시

코끼리는 언제 우는가 외 1편 | 이면우
추억은 진보한다 외 1편 | 윤재철
사람이 죄다 외 1편 | 이중기
가족 외 4편 | 최종진

소설

갈보 콩 | 이시백

서평

인간적인, 너무나 인간적인 | 이계삼
《예수전》
탐욕에 맞서서 연대를 | 장정일
《탐욕의 시대》
재난을 먹고 살찌는 자본주의 | 임승수
《쇼크 독트린》

제106호(2009년 5-6월호)

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| 김종철 · 이문재
언론의 위기, 벼랑 끝에 선 한국 민주주의 | 안영춘

‘녹색성장’에 침을 뱉으마 | 장성익
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안 | 이유진
민중 본위의 통일이 가능한가 | 박노자
생태의 눈으로《논어》읽기 | 배병삼
자본주의와 생태적 붕괴 | 리처드 스미스
포스트 석유시대의 식량자급을 생각한다 | 요시다 타로
무역의 논리, 자급의 논리 | 세키 히로노

녹색 에세이

문허진 성터에서 | 김성동
생태귀농을 꿈꾸는 벗에게 | 서정홍

시

옛날 외 1편 | 송기원
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자의 무덤 | 김선우
체념(體念) 외 1편 | 심보선

소설

뚱뚱한 난장이와 수수께끼 | 정도상

서평

소농 중심 생태공동체에의 비전 | 박세길
《자본을 넘어, 노동을 넘어》, 《살림의 경제학》
GMO, 경계를 늦춰서 안될 위험 | 박병상
《GMO, 유전자조작 밥상을 치워라!》
지식의 나눔에서 영혼의 나눔으로 | 염신규
《행복한 인문학》

독자의 소리 | 허 승 · 양재석

제107호(2009년 7-8월호)

민주주의를 위하여(1) | 김종철
태국의 ‘자족경제철학’과 인펭네트워크 | 윤병선
농협개혁과 조합원 민주주의 | 허헌중
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 | 콜린 터지

저탄소 사회로 가는 지름길, 자전거 | 박용남
자활 신용조합을 찾아서 | 박승옥
시와 공동체 | 나희덕
다시, 천성산 화엄벌에서 | 금이정

노무현 시대를 돌아보며

농촌의 몰락이 짙어졌던 시절 | 김구일
'용산'은 계속되고 있다 | 박래군
한미FTA는 노 대통령의 유산인가 | 송기호
'국가의 마법'과 지식인의 상상력 | 박경미
평형감각을 되찾기 위하여 | 이계삼

녹색 에세이

망나니, 철갈구리, 금송아지 그리고 농투산이 | 김성동
생태귀농을 꿈꾸는 모든 벗들에게 | 서정홍

시

이 냉동고를 열어라 | 송경동

소설

은행나무는 좋은 땔감이 아니다 | 최성각

서평

소중화 사대주의자들의 계보 | 한승동
《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, 2》
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 | 김해창
《아름다운 거짓말》, 《달라지는 세계》, 《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?》
아파트 평수를 넓히려는 사람들 마음속에 폭력이 있다 | 박 진
《여기 사람이 있다》
촛불과 욕망 | 이명원
《미네르바의 촛불》, 《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》
바위의 얼굴을 닮은 진보는 가능할까요 | 하승우
《진보를 연찬하다》

제108호(2009년 9-10월호)

민주주의를 위하여(2) | 김종철
일제고사와 한국 교육의 임박한 파국 | 이계삼
제주 주민소환투표, 왜 시도되었고 무엇을 남겼나 | 하승수
산도, 강도, 사람도 절로 살게 두라 | 천규석
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의 민주주의로 | 하승우
두바이 — 노예제 위에 세워진 신기루 | 요한 하리
해방촌 '빈집'공동체 | 박승옥
못난이 노자(老子)(1) | 송기원

삶을 위한 경제

왜 기본소득 보장과 신용의 사회화가 필요한가 | 세키 히로노
사람들이 '행복한' 나라 | 나카타니 이와오
칼 폴라니와 사람의 살림살이 | 박현수

녹색 에세이

미륵당취 일해보살 마하살 | 김성동

시

제비 외 4편 | 최종진
공 차는 아이들 외 1편 | 박일환

서평

지구촌의 대안 금융, 그라민은행 | 박용남
《그라민은행 이야기》
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| 강양구
《사라진 내일》
2년간의 우정의 연대 | 김 원
《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》

독자의 소리 | 김태환

제109호(2009년 11-12월호)

"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" | 김종철
낙동 순례길 위에서 | 지 율
신종플루와 현대문명, 그리고 인류의 미래 | 강윤재

세계 위기 속의 어소시에이션 · 협동조합 | 가라타니 고진
기본소득과 농업을 기축으로 한 지역자급경제로 | 세키 히로노
원주 노숙인 공동체, 갈거리협동조합 | 박승옥
《열하일기》를 완역하고 | 김혈조
《맹자》 읽기 — 위민(爲民)은 없다 | 배병삼
운명에 맞서서, 운명과 더불어 — 고바디의 영화 | 박경미
권정생 선생님께 | 원충연
'한국 병합'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| 나카츠카 아키라
못난이 노자(老子)(2) | 송기원

녹색 에세이

마하 신돈보살 마하살 | 김성동

시

함성 외 1편 | 정준일
옷걸이 외 1편 | 조성순

소설

밥그릇 | 전성태

서평

과학하는 의미 | 전방욱
《과학과 사회운동 사이에서》
사회변혁을 위한 협동조합운동 | 최혁진
《우애의 경제학》
인권은 '좌우'가 아닌 인간의 문제 | 이성훈
《인권을 외치다》
농민을 살려야 도시도 산다 | 우미숙
《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두거라》

독자의 소리 | 이성제

제110호 (2010년 1-2월호)

포기를 통한 행복의 추구 | 김종철
녹색성장을 하려면 '녹색성장'을 버려라 | 강수돌

“아리랑 강물소리에 손대지 마라” | 안미선
장항제련소가 남긴 것 | 허정균
노동자생협을 통한 노동운동 | 현정길
‘슬픈 동아시아’ — 민본주의의 행방 | 배병삼
먹고사는 문제와 인문학 | 고영직
못난이 노자(老子)(3) | 송기원
‘화교’가 되어버린 ‘대륙백제’ 사람들 | 김성동

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

비문명 선언 | 폴 킹스노스
파우스트 경제학 | 웬델 베리

시

어느 시상하부의 변연계의 화석화 외 1편 | 고형렬
칡, 뿌리 외 1편 | 배창환
하지 무렵 외 1편 | 김정원

서평

죽음 생산, 몬산토에서 그칠까 | 박병상
《몬산토 —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》
삶을 바꾸는 밥상, 세상을 바꾸는 먹을거리 | 장성익
《밥상혁명》
아마존과 툰드라에서 찾은 ‘온전한 거울’ | 이문재
《잠들면 안돼, 거기 뱀이 있어》, 《잊혀진 미래》
연민과 교육 | 조영선
《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》

독자의 소리 | 은종복

제111호(2010년 3-4월호)

통화제도의 개혁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

사회신용론과 기본소득 | 세키 히로노
통화개혁과 ‘국민배당’ | 리처드 쿡

일리치의 혹 | 김종철

국가인가 공동체인가 | 박승옥
역사 속의 농민공동체 | 하승우
차 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 — 프라이부르크 | 박용남
아이티 대지진 — 탐욕이 빚은 재앙 | 황준호
우리들의 현실주의 | 이계삼
웃으면서 글을 쓸 수 없는 시대 | 김은희
오늘날 대학의 풍경 | 박지원

시

혁명 외 4편 | 최종진
인간의 길 외 1 | 황규관

연재

충효(忠孝)는 없다 — 유교 다시읽기 | 배병삼
못난이 노자(老子)(4) | 송기원
용문산 총댕이 김백선 장군(1) | 김성동

서평

1972 & GNH | 황대권
《행복의 경제학》
작가와 현실 | 박경미
《위건 부두로 가는 길》
자본주의와 민간의료의 지혜 | 장병윤
《구당 김남수, 침뜸과의 대화》
세계 장악의 도구, GMO | 김은진
《파괴의 씨앗, GMO》

제112호(2010년 5-6월호)

4대강의 죽음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

낙동강 순례에 나서며 | 이연학
4대강 사업 — 독일교포를 위한 강의 | 임혜지
“강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것” | 김정욱
“물류 효과 없는 운하, 재론의 여지도 없다” | 임석민
“생태하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” | 박진섭
“물 확보와 홍수예방, 수질개선 목적 다 근거 없어” | 박창근

4대강 사업, 삼수재앙 | 김진애
“4대강 사업, 막을 수 있습니다” | 최병성
농업·농민 위태롭게 하는 4대강 사업 | 장상환
4대강,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한 도박 | 조홍섭·박수택·박은호
한국의 4대강 프로젝트 | 제임스 카드
자연에 순응할 때만 성공한다 | 프레드 피어스

돈의 신화를 벗긴다 | 루이 에반
원자력을 둘러싼 일곱가지 신화 | 강양구
영웅서사시로의 한국사를 넘어 | 강명관

보이콧의 아름다움

‘학교 밖 교사’가 ‘학교 안 교사’에게 | 이형빈
내가 대학을 그만둔 이유 | 김예슬
바틀비 프로젝트 | 존 테일러 개토

시

마음이 천재지변이다 외 1편 | 백무산
발이 먼저 알다 외 1편 | 표성배

연재

삼강과 오륜은 다르다 | 배병삼
못난이 노자(老子)(5) | 송기원
용문산 총댕이 김백선 장군(2) | 김성동

서평

발로 쓰고 가슴으로 담은 4대강 현장 | 최승국
《강은 살아있다》, 《낙동강 before and after》
‘인간의 길’을 찾아서 | 장성익
《마몬의 시대, 생명의 논리》
소농이 지구를 먹여 살린다 | 윤병선
《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》
진보의 논리는 충분히 진보적인가 | 이계삼
《리얼 진보》
가치 중립을 말하기 민망한 과학 | 박병상
《청부과학》

제113호(2010년 7-8월호)

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| 폴 그리횽
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 | 마이클 로우보섬
기본소득과 새로운 삶의 방식 | 세키 히로노
지방선거, 그 씁쓸함 속에 보는 희망 | 하승수
연두농장 이야기 | 변현단
수원 칠보산 아파트공동체 | 박승옥
생태위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| 조 에노스
“사랑을 위해 행동하라” | 로원 윌리엄스
시골 그리스도 | 해롤드 매싱검
왜 벌들이 죽어가는가 | 웨인 엘우드

시

내가 대통령이면 외 1편 | 김해자
물고기 입술을 기다림 외 1편 | 손택수

연재

충성이란 무엇인가 | 배병삼
못난이 노자(老子)(6) | 송기원
대금제국 황제 이징옥 장군 | 김성동

서평

4대강 사업의 미래를 보라 | 최병성
《강의 죽음》
아파트단지에는 마을이 없다 | 신동혁
《강수돌 교수의 나부터 마을혁명》
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| 이 호
《도시생활자의 정치백서》
석유문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| 이유진
《미래에서 온 편지》
아고라의 언어 | 오창은
《사소한 물음들에 답함》

독자의 소리 | 윤성환

제114호(2010년 9-10월호)

대지로 회귀하는 문학 | 김종철
돈을 근원적으로 묻는다 | 미하엘 엔데
천안함, 무엇이 문제인가 | 한승동
국가와 과학 | 우희종
'헛것'들의 황혼 | 이계삼
4대강사업으로 진화한 새만금사업 | 허정균
'기지의 섬'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| 김동주
'울고 넘는 박달재'의 진짜 비극 | 천규석
대학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| 나이젤 비거
두바이여 안녕 | 조슈아 해머

시

참새 외 3편 | 최종진
맨발에 대한 예의 외 1편 | 이장근

연재

요순이란 무엇인가 | 배병삼
마하 묘청보살 마하살(1) | 김성동
못난이 노자(老子)(7) | 송기원

서평

거룩한 바보들의 기도, 로사리오 | 황대권
《산티아고, 거룩한 바보들의 길》
1인 교사, 1인 언론, 1인 혁명 | 이문재
《삶을 위한 국어교육》
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과학 | 박진희
《부정한 동맹》
흙에서 찾은 행복 | 김훤주
《농부시인의 행복론》

제115호(2010년 11-12월호)

돈과 자유 — '배당경제학'에 대하여 | 김종철
어떤 슬픔, 전태일 40년 | 박승옥

천안함과 함께 언론도 침몰했다 | 노종면
죽임의 공사 4대강사업과 농업 | 김철규
사회의 밑천 없이 세상이 변할까 | 하승우
이야기와 하느님 나라 | 박경미
“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혁명” | 가라타니 고진 · 오카모토 아츠시
산업농과 인류의 생존 | 로니 커민스

시

살둔 외 2편 | 윤재철
식사의 일 외 1편 | 김경미
그 집 앞 외 1편 | 윤제림

연재

덕이란 무엇인가 | 배병삼
마하 묘청보살 마하살(2) | 김성동
못난이 노자(老子)(8) | 송기원

서평

토건독재의 종식을 위하여 | 이원영
《나는 반대한다》
상식의 복원이 필요하다 | 정규호
《상식: 대한민국 망한다》
식민주의에 기초한 평화 | 한승동
《일본의 불안을 읽는다》
“윤리의 뿌리는 동물적 미덕” | 장정일
《하찮은 인간, 호모라피엔스》
배추파동에서 얻는 ‘자급’의 의미 | 윤병선
《자급을 다시 생각한다》

제116호(2011년 1-2월호)

지식인과 자유의 실천 | 김종철
벽초 다시 읽기 | 염무웅
철거된 ‘남일당’에서 시대를 본다 | 김덕진
학교급식 논의의 재구성 | 송동흠
근대적 몰상식을 물구나무 세우다 | 이계삼
애니미즘의 부활 | 황대권

근대 조세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| 세키 히로노
전쟁의 원인 | 클리포드 더글러스
꾸리찌바, 그 후 10년 | 박용남
나는 왜 9살짜리에게 대마초를 주는가 | 마리 명옥 리
산골 소년은 지금 어디에 | 티에닝

지속가능한 삶을 향하여

북한의 농업상황에 관한 노트 | 원 티에쥔
지속가능한 농업과 녹색순환경제 | 매완 호
세상은 다시 넓어진다 | 이한중

시

달려라, 거북이 외 1편 | 최금진
모래무덤 외 1편 | 김사이

연재

유교의 '정의'란 무엇인가 | 배병삼
마하 궁예보살 마하살(1) | 김성동
라헬의 통곡 | 박경미

서평

세계 논농사의 내력 | 조경만
《쌀과 문명》
먹을거리체계의 정의로운 전환 | 이근행
《맛있는 식품법 혁명》
우리들의 읍내, 즐거운 너무나 즐거운 | 황규관
《즐거운 읍내》
과학기술과 민주적 통제 | 이명원
《과학의 양심, 천안함을 추적하다》, 《천안함을 묻는다 — 의문과 쟁점》

제117호(2011년 3-4월호)

연평도 순례를 다녀와서 | 황대권
나는 인간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 | 전희식
협동조합과 민주주의 | 박승옥
4대강 너머에서(1) | 이원영

공부라는 말 | 나희덕
미국 인상기 | 이계삼
대마초의 해방을 위하여 | 레스터 그린스푼
자비로운 성자 필라레토스 | 니케타스
2011년 식량 대위기 | 레스터 브라운
농약을 농약이라 부르지 않는 FTA | 송기호
자유무역은 농민들을 죽인다 | 크리스틴 안 · 알비 마일스

중국을 바라보는 시선

개발도상국의 현실을 통해 중국 농촌문제를 본다 | 원 티에쥔
중국을 움직이는 '아래로부터의 힘' | 소준섭
중국농촌의 발전과 상실의 이중주 | 김광억
멜라민식품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| 박경철

시

축생 외 1편 | 김명수
경로 외 1편 | 현택훈

연재

유교의 가족을 다시 보자 | 배병삼
마하 궁예보살 마하살(2) | 김성동
행복하여라, 가난한 사람들! | 박경미

서평

땅에 대한 근원적 사랑 | 김종락
《위대한 희망》
비평의 치열함 | 서영인
《문학과 시대현실》
도시문제와 그 해법 | 장정일
《도시에 대한 권리 —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》
잊혀진 역사의 복원 | 안재성
《현대사 아리랑 —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》

제118호(2011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 / 핵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할까 | 김종철

좌담 / 핵발전, 무엇이 문제인가 | 김익중 · 강윤재 · 장시원 · 이헌석 · 김종철
원자력 사막 | 미하일 헹스텐베르그 외
생명의 자리에서 원자력발전을 생각한다 | 다카기 진자부로
원자력의 '평화적 이용'은 가능한가 | 고이데 히로아키
독일에서 본 후쿠시마 | 가지카와 유우
피폭자란 누구인가 | 가마나카 히토미
지금 여기, 이미 와있는 | 이계삼
전진한과 자유협동주의 | 이홍재
친환경 무상급식론 | 장경호
빅터 파파넥의 녹색디자인 | 조영식

시

벚꽃터널 외 1편 | 이문재
까치 외 3편 | 최종진

연재

불인하도다, 카이스트여! | 배병삼
마하 궁예보살 마하살(3) | 김성동
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 | 박경미

서평

"원자력은 안된다" | 장정일
《글로벌 아마겟돈 — 핵무기와 NPT》, 《원자력은 아니다》
본성대로 살 동물의 권리 | 박병상
《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혐오하는 동물들》, 《동물권리선언》, 《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》
성장중독증을 넘어 행복사회로 가는 길 | 강수돌
《꾸리찌바 에필로그》
신앙과 환대 | 강창헌
《환대하는 삶 — 도로시 데이, 평화와 애덕의 83년》
언어의 감옥에서, 해방의 언어를 꿈꾸다 | 고영직
《언어의 감옥에서 —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》

제119호(2011년 7-8월호)

우애의 경제를 위하여 | 김종철

래디컬 데모크라시와 시민사회 | 더글러스 러미스
협동조합, 노동운동의 활로 | 박승옥
일상의 민주주의, 삶을 변화시키는 힘 | 하승우
민주주의라는 괴물의 출현 | 엄기호
인권활동가가 본 한국 민주주의 | 류은숙
이 세상의 녹색을 위하여 | 소준섭
메멘토 모리 | 현기영

탈원전(脫原電)을 어떻게 성취할까

탈원전과 언론의 역할 | 임재경
체르노빌, 계속되는 전투 | 이헌석
미래의 후쿠시마 아이들 | 조 갬브론
후쿠시마와 프랑스 | 다카하타 유우키
정말로 발전소는 끝도 없이 지어야 하나 | 하석용
'어둠'의 사상 | 마쓰시다 류이치

시

핵벌레들 외 1편 | 채상근
봉합의 기술 외 1편 | 이병률

연재

인(仁)이란 소통이다 | 배병삼
마하 궁예보살 마하살(4) | 김성동
원자력과 민주주의 | 박경미

서평

그것이 정말 인간일까 | 유소림
《흐르는 강물처럼》
왜 민주주의를 묻는 일이 중요한가 | 고명섭
《민주주의란 무엇인가》
의료제국주의와 문화상대주의 | 김진국
《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》
두 얼굴을 가진 돈 | 박용남
《돈의 인문학 — 머니게임의 시대, 富의 근원을 되묻는다》

제120호(2011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 / 방사능과 상상력 | 김종철

“나 다시 흘러가리라” | 최병성
강정마을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춰라 | 김동주
리비아 사태 — 석유 때문인가, 중앙은행 때문인가 | 엘렌 브라운
서구는 왜 카다피의 몰락을 원하는가 | 장-폴 푸갈라
한국스포츠,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| 정희준
국가와 자본의 패스플레이 | 정윤수

방사능으로 오염되어가는 세계

방사능 내부피폭의 위협 | 가마나카 히토미
저선량 방사선의 위험 | 어네스트 스턴글래스
반원전 활동이 일본을 변하게 한다 | 가라타니 고진
도쿄를 떠나며 | 야부 시로
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| 핫토리 나츠오
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까지 | 강윤재
방사능과 언론 | 칼 그로스먼

시

변두리 어법 외 1편 | 문동만
11월 외 1편 | 박경희

연재

간디의 ‘위험한 평화헌법’ 구상 | 더글러스 러미스
유교와 시장 | 배병삼
죄는 어디에서 오는가 | 박경미

서평

미친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은 | 하승수
《미친 세상에 저항하기》
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| 이명원
《추첨민주주의》
시적인 삶 | 손제민
《시인 신동문 평전》
못나서 미안한 그대에게 | 이시백
《못난이 老子》

제121호(2011년 11-12월호)

녹색평론 20년 — 독자 메시지 | 서숙 · 유소림 · 현순혜 · 최재천 · 김영동 · 한승동
창간 스무돌을 맞으며 / 좋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| 김종철

20주년 기념 독자 좌담 / 공생공락을 꿈꾸는 사람들 | 김동주 · 박선정 · 박성대 · 이민철 · 정준일 · 이문재

원전과 생태민주주의, 하느님 나라 | 문규현
원자력, 필요악인가 | 김익중
국제원자력마피아 IAEA의 정체 | 나루사와 무네오
체르노빌, 거대한 은폐공작 | 앨리슨 카츠
내가 농지를 지키는 이유 | 천규석
다람쥐회를 찾아서 | 박승옥
종말론의 두 얼굴 | 이계삼

연재

간디의 '위험한 평화헌법' 구상(2) | 더글러스 러미스
유교의 정치 | 배병삼
생명의 근원 | 박경미

20주년 기념 新作詩 특집

김명수 · 이시영 · 백무산 · 윤재철 · 배창환 · 조향미 · 송진권

서평

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다 | 조약골
《군대를 버린 나라 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평화 이야기》
1퍼센트에 맞서는 세계 농민운동 | 윤병선
《비아캄페시나 —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》
쿠바에서 배운다 | 박용남
《몰락선진국》, 《의료천국, 쿠바를 가다》, 《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: 역사를 바꾼 고대 농법의 수수께끼》
몸과 지속가능성 | 장정일
《몸에 갇힌 사람들》
자연과 농사 | 이덕규
《짚 한오라기의 혁명》

녹색평론 20년 기념 모임 안내

제122호(2012년 1-2월호)

‘자유무역’을 넘어 ‘기본소득’으로 | 김종철
지금 왜 녹색당인가 | 하승수
독일 녹색당의 발전과정 | 송태수
소농과 연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불복종을 | 송기호
녹색 역사교과서를 이야기하자 | 백승종
겨울과 봄 그리고 대학텃밭 | 황윤지
세계 에너지위기 — 피크오일에 각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| 요르그 프리드리히스
탈원전사회와 그리스도인 | 강우일
후쿠시마에서 본 ‘일본’ | 서경식
받을까, 말까? 엑스선 CT검사 | 다카기학교 의료피폭문제연구그룹

시

거문도 동백나무 외 1편 | 안상학
시이소를 생각함 외 1편 | 김창균
웃는 돌 외 1편 | 손택수
라가 카페 외 1편 | 조 정
어머니의 나랏말 외 1편 | 송경동

연재

간디의 ‘위험한 평화헌법’ 구상(3) | 더글러스 러미스
스승과 제자 | 배병삼
농부와 제국 | 박경미
내가 선 자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| 최병권

서평

좋은 노동이 좋은 세계를 만든다 | 이승렬
《굿 워크》
농사와 먹는 일 | 김종락
《온 삶을 먹다》
제임스 스콧, 약자의 무기를 벼리다 | 하승우
《농민의 도덕경제》, 《국가처럼 보기》
미래를 도둑질하는 핵마피아 | 이유진
《후쿠시마, 일본 핵발전의 진실》, 《은폐된 원자력 — 핵의 진실》, 《원자력의 거짓말》

제123호(2012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 / 합리적 정치를 고대하며 | 김종철

FTA를 묻는다 | 강우일
'자유무역'과 미국식 시스템의 종언 | 세키 히로노
더 대담하게, 더 멀리까지 —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| 고병권
돈과 문명의 위기 | 찰스 아이젠스타인
작지만 큰 실험, 사랑화폐 | 김태호
썩어가는 한반도 서해안 | 허정균

후쿠시마 1년, 핵 없는 세상을 향하여

누구를 위한 송전탑인가 | 이승희
경주방폐장 이야기 | 김익중
비뚤어진 과학 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이후의 원자력산업 | 게일 그린
독일문학과 핵 | 김용민
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| 정영희

시

하늘 길 외 1편 | 함민복
외로운 춤 외 1편 | 박형준
환경지표생물 외 1편 | 김원경

연재

문명의 종말과 시인의 상상력 | 박경미
비서구 민주주의 / 인도편 | 김상준

서평

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| 박현도
《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— 9·11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 세계》
꿀벌을 돌아오게 하려면 | 박병상
《꿀벌을 지키는 사람》
언어,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힘 | 금이정
《생각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요?》
우리 교육에 희망은 있는가 | 정형철
《교육 불가능의 시대》

제124호(2012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후쿠시마, 확산되는 재앙

후쿠시마 4호기의 위험성 | 아놀드 군더슨
후쿠시마, 어째서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사태인가 | 로버트 앨버리즈
후쿠시마 1년 후, 오염된 행성 지구 | 일리야 샌드라 페르링기에리
후쿠시마의 건강영향 예측 | 미셸 페르넥스

현대의 노마드 — 원자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 | 이나바 나나코
여기는 어디인가 — 핵발전소 피폭노동과의 만남 | 이계삼
나프타 이후의 캐나다 | 강수돌
산리즈카에서 바라본 강정마을 | 이영채
제주해군기지와 4·3 과거청산 | 고성만
미국과 핵 | 정욱식
도시에서 간선도로가 사라지고 있다 | 박용남
덴마크의 비정규학교 | 시미즈 미츠루

시

물에 찔리다 외 1편 | 이원규
치매였을까 외 1편 | 이영광

연재

교회, 권력, 종말론적 상상력 | 박경미
비서구 민주주의 / 중국편 | 김상준

추천 산문

막걸리 한 되(외) | 최용탁

서평

후쿠시마, 탈핵, 자연에너지 | 박진희
《잘가라, 원자력》, 《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》, 《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》, 《안젠데스까 안전합니까》
"구럼비를 살려줍서" | 김선우

《울지마 구럼비, 힘내요 강정》, 《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》
국가보다 사회가 커야 한다 | 이문재
《인디언 마을공화국 —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왜 국가를 만들지 않았을까》
일하는 철학자 | 장정일
《시작과 변화를 바라보며》, 《우리 시대를 살아가며》, 《부두에서 일하며 사색하며》
"직접행동으로 새판을 짜자" | 박래군
《민주주의에 反하다》

제125호(2012년 7-8월호)

성장시대의 종언 | 김종철
왜 협동조합 '운동'인가 | 박승옥
소농, 이것이 진짜 혁명이다 | 전희식
거대기술에 맞서는 중간기술 | 김성원
3·11 체험으로 돌아보는 한국의 민주화 투쟁 | 최승구

금융위기, 민주주의, 기본소득

부채와 민주주의 | 마이클 허드슨
은행의 연금술 | 빌 토튼
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하자 | 리처드 스위프트

시

갈대와 억새 외 1편 | 고광헌
와중 외 1편 | 박후기

고전 읽기

정지상태 | 존 스튜어트 밀

연재

국가의 역사, '하느님의 백성'의 역사 | 박경미
비서구 민주주의 / 브라질편(1) | 김상준
삶을 위한 학교(2) | 시미즈 미츠루

서평

핵/원자력과 한반도 | 박인규
《핵의 세계사》

협동조합,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| 조완형
《깨어나라! 협동조합》
주식회사의 민주화 — 주주는 배당금, 노동자는 경영권 | 강수돌
《기업은 누구의 것인가》

제126호(2012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대안적 삶, 세계 협동조합 | 김현대
퀘벡 협동조합 방문기 | 김창진
협동조합법에 대하여 | 여치헌
몬드라곤 협동조합과 21세기 사회주의 | 칼 데이빗슨
협동과 반자본주의 | 나가타 노리히토
시민들의 식량권을 지킨 도시 | 박용남
오키나와와 동아시아 민주주의 | 이명원
고리원전 1호기에서 무슨 일이? | 양이원영
후쿠시마의 봄을 기억한다 | 박혜령
퇴곡리 여름날의 기원 | 유소림

시

오렌지 외 1편 | 허수경
마흔 살 외 1편 | 권혁웅

연재

권력과 인간 | 박경미
비서구 민주주의 / 브라질편(2) | 김상준
100% 돈 — 카지노경제를 봉쇄하는 방법 | 빌 토튼

서평

정치가의 신념과 복지국가 | 한승동
《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》
유토피아에의 열정 | 류점석
《윌리엄 모리스》
여민(與民) 공동체의 이상 | 이권우
《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》

제127호(2012년 11-12월호)

언제쯤 멈춰야 했을까 | 리처드 다스웨이트
신자유주의, 탈성장, 건강관리 | 댄 베드나즈 · 앨러나 비비스
토건세력의 청산과 새로운 농정 | 안명균
한미FTA와 동아시아적 가치 | 송기호
연방주의 개헌이 필요하다 | 하승우
한국의 대통령중심제와 민주주의 | 이승무
전태일의 친구들 | 민종덕
산리즈카, 자유인의 투쟁과 희망 | 박승옥

반핵/탈원전의 논리와 윤리

핵(核)의 사회학 | 다카기 진자부로
후쿠시마와 과학자의 윤리 | 도이 요시히라
히로시마와 후쿠시마 | 오은정

시

2월 30일 외 1편 | 전동균
물은 나를 끌어올린다 외 1편 | 배한봉
수평선을 위하여 외 1편 | 황규관

연재

헤롯의 나라, 민중의 꿈 | 박경미
비서구 민주주의 / 남미 총결 | 김상준
'100% 돈'에 대한 반론에 답한다 | 빌 토튼
마지막 만남 | 유소림

서평

재난과 구원 | 장정일
《이 폐허를 응시하라》
함석헌 사상, 그 역사성과 보편성 | 김조년
《함석헌의 철학과 사상》
삼라만상이 신(神)이다 | 박은숙
《애니미즘이라는 희망》

제128호(2013년 1-2월호)

선거와 상상력, 녹색국가의 가능성 | 김종철
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| 강수돌
경제위기의 시대에 슈마허를 생각한다 | 이계삼
한국 생협, 성장신화 버려라 | 박승옥
마을에서 미래를 본다 | 유창복
전력부족, 진실과 거짓 | 박성환
중국의 미래, 중국공산당과 대중 | 소준섭
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| 존 코지
좌담 / 힘있는 탈핵운동을 위하여 | 이헌석 · 전선경 · 주경채 · 하승수

시

이슬 외 6편 | 이시영
산수유 씨앗 외 1편 | 이산하
햇빛 싸움 외 1편 | 박경희

연재

네로의 세상, 지식인의 초상 | 박경미
돈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| 빌 토튼
비로소 나이 예순에야 | 유소림
삶을 위한 학교(3) / 그룬트비의 생애와 사상 | 시미즈 미츠루

서평

돈이 있기 전에 부채가 있었다 | 장석준
《부채, 그 첫 5000년》
역사와 이성의 힘 | 오창은
《자유의 역설》
공동체운동의 정신 | 김기돈
《고맙다 잡초야》
벗을 찾아 단결하라 | 김이경
《가난뱅이의 역습》, 《가난뱅이 난장쇼》

제129호(2013년 3-4월호)

'행복한 농어촌', 어떻게 만들 것인가 | 윤병선

독일의 탈핵운동, 그 경과와 과제 | 강정숙
마을은 어떻게 파괴되었나 | 김은남
동학과 한국인의 공복사상 | 김경재
생협운동에 보다 진지한 성찰을 부탁한다 | 신성식
좌담 / 힐링과 멘토의 시대, 어떻게 볼 것인가 | 김이경 · 김진호 · 정윤수 · 김찬호

도시농업을 생각한다

우리 도시농업의 역사와 현황 | 안철환
자급경제를 꿈꾸는 도시농부협동조합 | 신보연
도시농업과 '호모에코노미쿠스' | 크리스타 뮐러
일본의 도시농업 | 라켈 모레노-페나란다
'다차'와 러시아인의 삶 | 애널리아 한스버거

시

장백폭포 외 1편 | 김영재
정전 외 1편 | 윤재철
러브레터 외 1편 | 나나오 사카키

연재

로마제국과 바울의 평등사상 | 박경미
비서구 민주주의 / 이슬람편(1) | 김상준
벗어나기, 사라지기 | 유소림
삶을 위한 학교(4) / 폴케호이스콜레와 덴마크 농민운동 | 시미즈 미츠루

서평

역사의 복기, 계속되는 시련 | 장정일
《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》
증여경제의 혁명성 | 이명원
《세계사의 구조》
탈성장 시대에의 대비 | 이정필
《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》

제130호(2013년 5-6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혁명 | 임승수
“인류는 거인을 잃었다” — 차베스의 유산에 대하여 | 윌리엄 로빈슨
차베스와 세계의 재생 | 마크 와이즈브로트
고리원전 1호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| 김해창
갑오년 분노처럼 터질 4대강 대재앙 | 정수근
제국의 논리, 미국의 전쟁경제 | 더글러스 러미스
습지에서 꽃핀 공동체, 파우마스은행 | 박용남
호주 생명평화기행(1) | 황대권
한국 생협운동에 대한 몇 가지 단상 | 박승옥

대학의 타락, 지성의 죽음

사라지는 지식인 | 헨리 지루
지혜의 환상 | 크리스 헤지스
어용학자 비판이 불가능한 대학사회 | 토요시마 코이치

시

국수 외 1편 | 이정록
인천 반달 외 1편 | 박준

연재

비서구 민주주의 / 이슬람편(2) | 김상준
수선화, 있되 없고 없되 있으니 | 유소림

서평

후쿠시마의 삶, 후쿠시마 이후의 삶 | 신동호
《원전의 재앙 속에서 살다》, 《후쿠시마 이후의 삶》
진보세력의 추락과 세계의 위기 | 한승동
《진보의 몰락》
교육은 마음을 주는 것 | 정선희
《아이들에게 온 마음을》

제131호(2013년 7-8월호)

좌담 /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— 기본소득, 왜 필요한가 | 강남훈 · 곽노완 · 김종철
지상의 평화를 위하여 | 강우일
식량주권운동의 새 지평 | 윤병선

칼날 아닌 쟁기가 평화의 적이라니? | 천규석
호주 생명평화기행(2) | 황대권
죽음마저 짐이 되는 사회 | 정윤수

일리치, '경제인간'에 맞선 근원적 사상가

위기에 처한 산업문명, 쓸모없는 경제학 | 이반 일리치
근대의 '확실성'을 넘어서 | 박경미
이반 일리치를 회상하며 | 더글러스 러미스

시

목련꽃도 잘못이다 | 윤제림
타이어의 못을 뽑고 | 복효근
자벌레 | 반칠환
허공클럽을 아시나요 | 송경동

연재

비서구 민주주의 / 이슬람편(3) | 김상준
그냥 존재하기 | 유소림
사과꽃이 필 때부터 장마가 오기까지 | 최용탁

서평

경제와 민주주의 | 김현대
《협동의 경제학》, 《그들은 왜 회사의 주인이 되었나》
협력과 연대 — 대안사회의 원리 | 김윤태
《팔꿈치 사회》
협동의 기술이 빚어내는 힘 | 고영직
《투게더》

제132호(2013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정전체제 60년, 덫에 갇힌 한반도 | 한승동
한중FTA와 동아시아인의 대화 | 송기호
뉴욕, 자동차 없는 도시를 꿈꾸다 | 박용남
류큐왕국 시대 오키나와의 지배-종속 관계 | 이명원

하루키 현상과 문학의 왜소화 | 김주현
협동조합의 이념과 사업성 | 신성식
후쿠시마, 대안은 태양에너지가 아니다 | 돈 피츠
사람을 위한 경제, 자립적 생활을 위하여 | 빌 토튼
좌담 / 송전탑, 원자력국가, 민중의 삶 | 석광훈 · 이계삼 · 하승수

자유도시 마리날레다

살아있는 '로빈 후드'의 도시 | 소피 매카덤
기적의 자유도시 | 리사 로스
안달루시아의 유토피아? | 새뮤엘 그로브

시

비빔밥 | 함민복
거짓말 | 김소연

연재

비서구 민주주의 / 이집트편 | 김상준
이고득락(離苦得樂)을 학습하다 | 유소림
사과에 붉은 깔이 들어오시네 | 최용탁

서평

홀로코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| 장정일
《현대성과 홀로코스트》
'충분함'의 미학, 더불어 좋은 삶 | 강수돌
《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》
동네 속으로 들어간 혁명 | 안태환
《세상을 뒤집는 의사들》

독자의 소리 | 금이정 · 김진회 · 박종택 · 이진희 · 한재천

제133호(2013년 11-12월호)

후쿠시마, 계속되는 홀로코스트 | 김종철
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감고 있는가? | 에두아르도 갈레아노
시민권으로서의 소득 | 괴츠 베르너
생태주의자가 본 역사교과서 문제 | 백승종

생태교통을 이용한 마을만들기 | 박용남
농사꾼이 본 쿠바(1) | 백승우
“하느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” | 박경미
우리에게 연방주의란 무엇인가 | 하승우
좌담 / 재앙이 돼버린 4대강, 어떻게 해야 하나 | 곽상수 · 신우석 · 최병성 · 김종철

시

그 사람 있습니다 | 김영춘
소금이 오다 | 김영래
명옥헌 가는 길 | 신덕룡

연재

비서구 민주주의 / 중국과 동아시아 | 김상준
고향으로 돌아가는 세 개의 사다리 | 유소림
가을이 깊으면 추위를 생각하고 | 최용탁

서평

‘기억과의 전쟁’의 이중과제 | 황규관
《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》
풀꽃나라 시민이 쓰는 ‘공적인 시’ | 고영직
《쫓기는 새》
‘먹고사는’ 이야기 | 금이정
《자급의 삶은 가능한가》
저탄소경제 사회로의 길 | 이승무
《저탄소 대안경제론》

제134호(2014년 1-2월호)

지속가능성 위기와 민주주의 | 김종철
밀양 송전탑의 어떤 하루 | 이계삼
복지국가와 기본소득 | 곽노완
일상 속에 감춰진 방사능 | 최병성
농사꾼이 본 쿠바(2) | 백승우
한국 녹색당 유럽지역 모임 | 유재현
들길의 소리 | 박찬국
프란치스코 교황, 글로벌 자본주의에 도전하다 | 존 캐시디
적극적 평화? | 더글러스 러미스

라틴아메리카, 혁명, 좋은 삶

시와 라틴아메리카 혁명 | 안드레 블첵
'부엔 비비르' — '좋은 삶'과 자연의 권리 | 토마스 파토이어

시

밀양 아리랑 | 김해자
스물세 번째 인간 | 심보선
지구서랍 | 이병률

연재

걸림 없이 마음을 내다 | 유소림
거름을 내고, 들녘은 눈에 덮였네 | 최용탁

서평

동아시아의 미래와 농민 | 박민희
《백년의 급진-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》
탈핵의 논리와 현실 | 이정필
《한국 탈핵》, 《멜트다운》
지속가능성과 자립인간 | 안철환
《자립인간》
선물경제와 지족(知足)의 삶 | 강수돌
《화폐 없는 세계는 가능하다》

제135호(2014년 3-4월호)

갑오년에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

동학농민혁명 120주년에 소농을 생각한다 | 백승종
'민중·민족전선'을 넘어 '생명전선'으로 | 박맹수
갑오년에 돌아보는 집강소 민주주의 | 박승옥
오키나와의 조선인 | 이명원
하필왈리! | 배병삼
가창오리가 주범이라구요? | 박병상
영화 '변호인'과 재현의 한계 | 정윤수
피크오일은 죽었다? 피크오일 만세! | 마이클 클레어
어째서 독일인들은 핵에너지에 회의적인가 | 폴 호크노스

‘탈성장’이란 무엇인가 | 자넷 이튼

고전 인문 사상 강좌

인류 사상사 속의 ‘유토피아’ | 세키 히로노

기본소득, 쟁점과 제언

베짱이에게도 월급을 주어야 하나? | 강남훈
농민에게 월급을! | 변현단
“실업은 축복이다” | 울리히 벡

시

나, 50대 | 최성수
서종유사(鼠宗遺事) | 권혁웅

연재 에세이

오해 풀기 | 유소림
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가 | 최용탁

서평

계속되는 ‘유신’의 악몽 | 한승동
《유신》
행복을 위한 녹색 질문들 | 정규호
《행복하려면, 녹색》
중국의 꿈(中國夢)과 이상한 무대 | 이연도
《현대 중국 지신인 지도》, 《중국을 인터뷰하다》
아마존, 생명의 강과 수난의 이야기 | 오준호
《아마존 — 정복과 착취, 경외와 공존의 5백 년》

제136호(2014년 5-6월호)

무위당의 삶과 사상

좌담 / 무위당, 제일 잘 놀다가 가신 ‘자유인’ | 김종철 · 이철수 · 황도근 · 김용우
깊이 사랑하는 것은 닮아가는 과정이다 | 김선미
원주지역의 협동운동과 장일순 | 김소남

정치를 왜 하는가 | 하승수

내가 겪은 후쿠시마 3년 | 서의동
원전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다 | 최승구
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이야기 | 여태전
'가난한 교회'를 향한 대장정 | 한상봉
용기가 사라진 세계 | 안드레 블첵

위기에 처한 동아시아

중국, 치욕을 딛고 대국으로 비상하다 | 소준섭
아베 정권의 폭주와 '지구본 전략' | 무토 이치요
FTA와 TPP, 위기에 처한 '먹을 권리' | 김성훈

시

오월유사(五月遺事) | 김사인
스피커 | 김경미
천국의 아이들 2 | 이현승

연재

회고록(1) / 일제하 어린 시절 | 임재경
다시 이 봄날에 | 유소림
이른 꽃, 늦은 날들 | 최용탁

서평

농촌공동체의 해체와 민중축제의 변질 | 정지창
《잃어버린 민중의 축제를 찾아서》
핵발전의 허구성과 탈핵 전략 | 장병윤
《탈핵학교》, 《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》
전기는 문명의 빛이 아니다 | 고영직
《밀양을 살다》
자본주의의 극복과 토지공유제 | 남기업
《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》

제137호(2014년 7-8월호)

세월호 참사 — 국가를 묻는다

좌담 / 한국이라는 나라, 희망은 있는가 | 김종철 · 김영옥 · 김철 · 주진우 · 하승우
지옥에 인간이 있다 | 오준호

“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” | 용혜인

소국사상의 흐름과 무위당의 생명사상 | 김종철
간디와 평화국가의 이념 | 한승동
부족민 사회와 국가 | 제임스 스콧
공화주의자 대통령 호세 무히카 | 루시아 뉴먼
복지공동체와 합의제 민주주의 | 최태욱
생명위기 시대와 협동운동 | 정규호
쌀 수입허가제 폐지, 왜 안되는가 | 송기호

시

고독사 | 이문재
특별한 일 | 이규리
歸休 | 문태준
우리 집에 와서 다 죽었다 | 유홍준

연재

회고록(2) / 해방에서 월남까지 | 임재경
사람임으로부터의 자유 | 유소림
스무 개의 나이테 | 최용탁

서평

도시개혁과 괴짜 혁명가들 | 정석
《도시의 로빈후드》
참여하라, 사회가 바뀐다 | 김종락
《사회를 바꾸려면》
순진한 지식인의 애틋한 탄식 | 박병상
《대붕괴》
우리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풀뿌리다 | 조약골
《풀뿌리민주주의와 아나키즘》

제138호(2014년 9-10월호)

오직 진실만이 위로입니다 | 김해자
좌담 / 교육지옥인가, 민주적 자치공동체인가 | 김종철 · 김혜정 · 송원석 · 양지혜 · 오승훈 · 윤지형
세월호 사태의 핵심은 ‘중독사회’ | 강수돌
교육의 주도권, 국가에서 가정으로 | 정선희

브라질의 창의성이 만든 지역화폐 | 박용남
가시덤불에 뒤엉켜버린 삶 — 켄 로치의 영화 | 정윤수
지속적 발전과 사회적 공통자본 | 우자와 히로후미
함석헌의 시 — 동정과 치유(분재 1회) | 윤영천
대담 / '코퍼라토크라시'의 시대, 무너지는 삶과 농사 | 김성훈 · 김종철

시

무논에 백일홍을 심다 | 장옥관
기슭에 다다른 당신은 | 나희덕

연재

회고록(3) / 월남 후 소년시절 | 임재경
이 또한 지나갈 것인가 | 최용탁

서평

'보육기 국가', 고독 · 상실의 경험 | 장정일
《정신사적 고찰》
불안정 노동의 시대, 어떻게 대응할까 | 김찬호
《프레카리아트 — 새로운 위험한 계급》
한계에 이른 복지국가, 기본소득이 답이다 | 금민
《조건 없이 기본소득》, 《복지국가와 기본소득》
에너지전환과 사회정의 | 유정민
《위험한 동거》, 《착한 에너지, 나쁜 에너지, 다른 에너지》

제139호(2014년 11-12월호)

좌담 / 대안학교 — 희망의 교육을 위하여 | 김종철 · 김영인 · 박복선 · 양희창 · 홍주현
파랑새의 꿈, 전봉준의 국가체제 구상 | 김정기
한 칸의 사이 | 배병삼
농민에게 기본소득을 | 정기석
'희망의 나라', 일본 이토시마 기행일기 | 조문영
탈핵 희망 순례기 | 조현철
함석헌의 시 — 동정과 치유(2) | 윤영천
유럽의 끔찍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| 안드레 블첵
야만인들을 기다리며 | 다니엘 멘델손

시와 삶 — 김해자

가이아 노래방 외 9편 | 김해자
몸, 시, 해방 — 김해자의 시와 삶 | 황규관

연재

회고록(4) / 6·25 전란기, 생존투쟁 | 임재경
들녘에 찬 서리 내리고 | 최용탁

서평

덴마크라는 나라, 무엇이 다른가 | 이계삼
《삶을 위한 학교》
개발민주주의, 새로운 파시즘 | 박혜영
《아룬다티 로이, 우리가 모르는 인도 그리고 세계》
탈정치시대, 대안은 무엇인가 | 이연도
《탈정치 시대의 정치》

제140호(2015년 1-2월호)

국가의 쇄신과 개헌,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| 김종철
삼척, 반핵과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을 가다 | 김경환
제비뽑기 정치 | 알렉산더 게레로
아테네식 민주주의의 부활 | 아메드 텔레브
밀양 송전탑 10년 싸움의 의미 | 이계삼
탈핵운동의 현장에서(上) | 황대권
대화적 스승과 무지한 스승 | 나희덕
치매 극복은 자연치유로 | 전희식
함석헌의 시 — 동정과 치유(3) | 윤영천
피케티가 잊어버린 것 | 노엘 오르테가
피케티 디키티 리키티 | 제임스 하워드 쿤스틀러
좌담 / 스마트폰과 아이들, 이대로 괜찮은가 | 김종철·김민선·김찬호·박점희

시

밥 먹을 때마다 논을 바라본다 | 하종오
한 걸음 더 | 정끝별

연재

회고록(5) / 피난지 군산에서의 고교생활 | 임재경

갑오년을 보내며 | 최용탁

서평

정치혁명은 어떻게 가능할까 | 하승수
《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》
자본이라는 탐욕,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자 | 김은진
《탐욕의 울타리》
아나키스트적 규칙위반의 의미 | 장정일
《우리는 모두 아나키스트다》

반론보도 / 본지 제138호에 게재된 〈'코퍼라토크라시'의 시대, 무너지는 삶과 농사〉의 내용에 대한 '몬산토 코리아'의 입장

제141호(2015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 / 원점에서 생각하는 민주정치 | 김종철

'우리'의 밥상에 차려진 아시아의 비참 | 이문영
탐욕의 협상 — 기후변화회의 | 이유진
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의 삶 | 김병하
뒤틀린 교육, 100년의 계획 | 강수돌
탈핵운동의 현장에서(下) | 황대권
함석헌의 시 — 동정과 치유(4) | 윤영천
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파멸은 불가피할 것이다 | 호세 무히카

민주주의와 시민의회

국민주권과 시민의회 | 오현철
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| C. L. R. 제임스
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촉진하는가 | 윌든 벨로

시

소리가 소리를 쪼는 | 이규리
우리들의 중세 | 박후기

다시 읽는 산문

古書 이삭줍기 | 민병산

연재

회고록(6) / 대학과 군대 시절 | 임재경
겨울밤, 아버지하고 | 최용탁

서평

경제학의 양심 | 한승동
《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?》, 《사회적 자본으로 읽는 21세기 도시》
협동조합운동과 생명운동 | 안철환
《협동과 연대의 인문학》, 《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, 선구자들》
프라우트,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와 사회 | 주용성
《자본주의를 넘어》

제142호(2015년 5-6월호)

세월호 1년, 자본주의국가와 민주주의 | 김종철
헌법 개정은 시민 주도로 | 박태순
그리스 재정위기 — 뿔난 시민들, 정치판을 새로 짜다 | 백승종
자본주의는 스스로 무너지는가 | 나카타니 이와오
대한민국 쓰레기시멘트의 비밀 | 최병성
유전자조작기술의 문제 | 김은진
소크라테스의 재판 | 더글러스 린더
오늘날 민주주의의 근본문제 |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
자동차 — 보이지 않는 독재 | 에두아르도 갈레아노

세월호 참사 1년, 고통과 희망

세월호 1주년에 두 아버지를 만나다 | 오준호
4·16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| 김익한

시

하늘 | 박준

연재

회고록(7) / 4·19 전후와 초년 기자생활 | 임재경
소리 없이 꽃잎은 지고 | 최용탁

서평

반골 한평생 '꽃대' 채현국 선생 | 고영직
《풍운아 채현국》,《쓴맛이 사는 맛》
지옥행을 막으려면 | 전성원
《반걸음을 위한 현존의 요구》
파국에 맞서 경제를 어떻게 변혁해야 하나 | 하승수
《신성한 경제학의 시대》
또다른 '이야기'가 필요한 민주주의 | 이지문
《민주주의의 수수께끼》

독자의 소리 | 이영균

제143호(2015년 7-8월호)

특집 — 해방 70년을 되돌아본다

해방 70년, 비틀거리며 온 길 | 김종철
한국의 농업, 농민, 농촌 70년 | 윤병선
눈먼 자들의 나라, 배제당한 노동 | 김경환
지식인의 행로 — 유진오의 삶과 뜻 | 정태욱
혁명을 꿈꾼 시인들 — 김수영과 김남주 | 오창은
분단 70년에 다시 생각하는 북핵문제 | 정욱식
해방 70년에 돌아보는 제주와 오키나와 | 이명원
혁명적 러브스토리 — '임을 위한 행진곡' | K. J. 노
평화의 심연 — 히로시마가 환기시켜주는 것 | 신문수
메르스 불안과 주권 없는 몸들 | 김태우
일본 녹색당의 탄생과 과제 | 시라카와 마스미

'미나마타'의 작가, 이시무레 미치코

고해정토 — 신들의 마을(발췌) | 이시무레 미치코
'희망'을 말한다 — 작은 세계로부터의 메시지 | 이반 일리치 · 이시무레 미치코

시

83퍼센트를 위하여 | 맹문재
칠백만원 | 박형준

연재

회고록(8) / 기자생활에서 프랑스로, 다시 돌아와서 | 임재경

서평

"그들이 말한다" — 5·18 담론에서 우리가 잊은 것 | 김진호
《철학의 헌정 — 5·18을 생각함》
왜곡된 민주주의와 그 대안, 추첨민주주의 | 손우정
《추첨민주주의 강의》
돈 중심의 '경제'에서 '사회' 찾기 | 이근행
《사회적경제의 발견》

제144호(2015년 9-10월호)

기본소득 재론

기본소득과 민주주의 | 김종철
성남 청년배당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| 강남훈
농민에게 월급을 준다고? | 강위원
알래스카 주민배당 — 경제를 살리고, 불평등을 억제하다 | 피터 반스

민중운동, 되살려야 할 희망의 불씨 | 한승동
한반도 통일과 중국 학계의 최근 동향 | 소준섭
부탄,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? | 박진도
오키나와 미군기지와 민주주의 | 더글러스 러미스
베트남, 40년 후 — 자본주의적 부패의 승리 | 닉 데이비스
영화 '소수의견'에 대한 소수 의견 | 정윤수
좌담 / 메르스 사태를 돌아보며 | 강양구·김창엽·이성빈·임승관

시

우리 모두의 마술 | 신용목
깊은 일 | 안현미

연재

회고록(9) / 박정희의 죽음, 신군부의 등장, 감옥행, 해직생활 | 임재경
'나를 위한 글쓰기' 강좌(1) / 우리는 왜 글을 써야 하는가 | 이문재

서평

생태주의 경영론, 이념과 현실 | 이상헌

《경영은 사람이다》
'수월성'에 이념을 빼앗긴 대학 | 김누리
《폐허의 대학》
국가 바깥의,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| 여치헌
《조미아,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》

제145호(2015년 11-12월호)

해방 70년, 전후 70년에 생각하는 '일본문제' | 김종철
피폭, 패전 70년 — 미일의 전쟁책임과 일본의 '민주주의' | 다나카 도시유키
되돌아보는 베트남전쟁 | 박인규
그리스 위기와 '좌파' 포퓰리즘 | 홀거 하이데
"스스로의 삶에 정직하라" | 피에르 라비
여름날의 야유(野遊) | 최용탁

부채와 인권

빚은 어떻게 우리 삶을 짓누르는가 | 강수돌
왜 '주빌리은행'이 태어났는가 | 제윤경
새로운 상상, '장발장은행' | 오창익
희년(禧年)과 민주주의의 회복 | 김회권
기본소득이 빈곤문제 해법이다 | 하승수

신작 시

축(軸) | 김명수
공기 | 이시영
죽음 이후를 뜯어먹다 | 백무산
문밖에 지지배 | 김해자
국수 한 그릇 | 황규관
바람이 불면 | 김사이

소설

기자의 하루 | 한창훈

연재

회고록(10) / 미국생활, '말'지 사건, 한겨레신문 | 임재경
'나를 위한 글쓰기' 강좌(2) / 문제는 '자존감'이다 | 이문재

서평

‘근대’에 대항하는 주술사 | 장정일
《신神들의 마을》
먹거리운동, 희망의 대안운동 | 김정열
《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》
분단시대의 카인과 아벨들 | 김경환
《조국이 버린 사람들》
리얼리즘의 귀환 | 이시영
《폐허를 인양하다》

제146호(2016년 1-2월호)

좌담 / 핵발전소, 주민투표, 민주주의 | 박혜령 · 성원기 · 정수희 · 하승수
근대 조선의 소국사상 | 조경달
천안함과 한국 언론 | 조현호
신빈곤과 TPP | 송기호
시리아, 어떻게 비극의 땅이 되었나 | 구정은
수확이 끝난 뒤 — 기품 있게 지구를 떠나기 | 로버트 젠슨

기후변화, 옳게 대응하고 있는가

끝없는 성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| 나페즈 아메드
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된다 | 피트 돌랙
‘햇빛세상’, 바보들이 만든다 | 박승옥
파리 기후변화 회의를 보고 | 정운례
해방신학으로 읽는 교황 회칙 | 김근수

시

이상하지 않은가 | 김사인
틈 외 1편 | 최종진

연재

회고록(최종회) / 독일 체류, 북한 방문, 선관위원 시절 | 임재경
‘나를 위한 글쓰기’ 강좌(3) / 관계의 발견, 의미의 탄생 | 이문재

서평

허슬러들의 제국, 미국의 몰락 | 한승동
《미국은 왜 실패했는가》
기록의 의미와 문학의 본향 | 황규관
《민중을 기록하라》
공유(재)의 재발견 | 안효상
《공유인으로 사고하라》

제147호(2016년 3-4월호)

좌담 / 백남기 사태, 우리 농업을 생각한다 | 김관식 · 김정열 · 윤병선 · 이상정 · 임종재
백남기 농성장 90일의 기록 | 유문철
농(農)을 살리는 세계로 — '자유협동주의'의 이념 | 김종철
세월호 2년, '책임'도 '위로'로 없었다 | 박 진
후쿠시마 5년, 반핵에서 탈핵으로 | 이헌석
R. H. 토니의 사회경제사상 | 고세훈
그가 거기 있었네 — 장일순의 삶 | 김정남
오직 시인들만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 | 리처드 A. 리스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1)
토마스 페인, 한 혁명가의 삶과 사상 | 숀 모너핸

시
이제 다시는 묻지 않으리 | 홍일선

연재
'나를 위한 글쓰기' 강좌(4) / 5단락 글쓰기 | 이문재
스승과 제자(1) / 얼룩소가 어때서? | 전호근

서평
진실을 향한 투쟁, 기자 리영희의 삶 | 이정환
《비판과 정명 — 리영희의 언론 사상》
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| 조홍섭
《동물 인문학》
들판과 부엌이 멀지 않은 그곳으로 | 김선미
《귀농, 참 좋다》
제비뽑기, 민주주의의 열쇠 | 김은희

《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》

제148호(2016년 5-6월호)

성장시대의 종언과 민주주의 | 김종철
정치혁명, 어떻게 할 것인가 | 하승수
안보 없는 '안보공화국' | 박인규
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식인의 지적 쇠퇴 | 이명원
낙동강 흰수마자의 외침 | 정수근

대학의 붕괴

고난의 시대, 몰락한 대학 | 고부응
한국의 대학과 영어강의 | 잉그리드 필러 · 조진현
중국 대학의 현실,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| 황종원
대학개혁 망국론 | 우치다 타츠루
우리가 아는 대학은 사라지고 있다 | 네이선 하든
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| 마사 누스바움
일본의 '영어화' 정책, 망국으로 가는 길 | 세 테루히사 · 시라이 시토시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2)

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| 남기업

시

끝을 놓치다 외 1편 | 윤선중

연재

'나를 위한 글쓰기' 강좌(完) / 격대교육과 더 나은 사회 | 이문재
스승과 제자(2) / 세대를 초월한 대화 | 전호근
북미 인디언과 그들의 나라(1) / 18세기 이전의 선주민 사회 | 여치헌

서평

논픽션과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| 장정일
《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》, 《체르노빌의 목소리》, 《세컨드핸드 타임-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최후》
웬델 베리, 광야의 시인 | 고영직
《소농, 문명의 뿌리》

종말로 치달을 것인가, 혁명을 할 것인가 | 양이원영
《끝이 없는 위기》

제149호(2016년 7-8월호)

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| 김종철
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 | 미즈노 가즈오
기본소득은 필수이다 | 야니스 바루파키스
석유시대의 종언 | 노먼 퍼제트
노동자 경영참여, 어떻게 볼 것인가 | 강수돌
가습기 살균제,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| 강양구
유전자조작 쌀, 상용화되는가 | 허정균
'유전자가위' 기술의 위험 | 전방욱
후천개벽과 생명의 법도 | 츠치다 다카시
좌담 현장에서 '정치'를 생각한다 | 권영국 · 이계삼 · 하승수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3)

클리포드 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 | 이승현

시

호미 | 황규관

연재

스승과 제자(3) /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다 | 전호근
북미 인디언과 그들의 나라(2) / 19세기 인디언사회 | 여치헌
잃어버린 땅이름을 찾아서(1) / 노돌나루 | 윤재철

서평

농사꾼 작가가 묻는 '좋은 삶'의 가능성 | 김계수
《아들아, 넌 어떻게 살래?》
양심의 정치와 자기초월 | 한승동
《불가능의 예술 —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》
진리가 아니라 상상력이 자유케 하리라 | 김현우
《아나키스트 인류학의 조각들》

독자의 소리 | 조규준

제150호(2016년 9-10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좌담 / 개헌, 어떻게 할 것인가 | 강대인 · 김선택 · 박명림 · 이기우
사드와 동아시아 신냉전 | 정욱식
미국의 중국 봉쇄와 사드 | 이재봉
사드 철회투쟁 성주 현장에서 | 박수규
강정에서 본 성주 | 고권일
브렉시트의 사회 · 역사적 배경 | 백승종
'이공계 뇌'가 사람을 살린다? | 천규석
디지털 시대의 지혜 | 콜린 맥그래인
쿠바 — 삶과 죽음에 대해서 | 폴 스트리트
쿠바의 의료 마술사들 | 로버트 케네디
쿠바의 민주주의 | 스탠스필드 스미스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4)

에리히 프롬과 기본소득 | 클라우스 비더스트롬

시

7번 국도 외 2편 | 김명수

연재

스승과 제자(4) / 금지된 학문으로 시대와 불화하다 | 전호근
북미 인디언과 그들의 나라(3) / 20세기 초반의 인디언사회 | 여치헌
잃어버린 땅이름을 찾아서(2) / 날뫼, 외뫼, 똥뫼 | 윤재철

서평

다른 삶, 다른 길을 묻는다 | 윤정숙
《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》
삶을 위한 경제학 | 고영직
《자동차의 사회적 비용》
'좋은 삶'을 위한 안내 | 이상헌
《굿라이프 —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》

제151호(2016년 11-12월호)

무위당의 생명사상과 21세기 민주주의 | 김종철
강은 흘러야 한다 | 최병성
경주지진과 핵발전소 | 김익중
살농(殺農)의 시대, 희망은 있는가 | 윤병선
미국에서 보는 북핵문제 | 손제민
'자이니치'를 통해 미국을 다시 생각한다 | 한승동
"우리는 기득권에 맞서는 인민이다" | 하승우
시, 고통에게 말 걸기 | 나희덕
기본소득 또는 행복한 환상 | 강홍구
한국의 박물관들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(1) | 케네스 루오프
좌담 / 에코페미니즘 — 새판짜기의 비전과 실천 | 윤정숙 · 김신효정 · 김현미 · 이윤숙 · 장이정수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5)
제임스 미드의 경제사상 | 강남훈

시
양기봉 씨가 게발선인장에게 외 1편 | 김해자
겨울 소묘 외 1편 | 양인리

연재
스승과 제자(3) /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다 | 전호근
북미 인디언과 그들의 나라(2) / 19세기 인디언사회 | 여치헌

서평
위대한 어머니의 삶 | 박민나
《노동자의 어머니—이소선 평전》
거듭되는 참사와 국가의 책임 | 장하나
《빼앗긴 숨 — 최악의 환경비극,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》
나오미 클라인, 기후변화, 과학기술 | 강양구
《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》

제152호(2017년 1-2월호)

촛불시위와 '시민권력' | 김종철
미완의 시민혁명은 이제 그만 | 하승수
시민의회, 왜 필요한가 | 김상준
우리에게 헌법은 무엇인가 | 김제동 · 이진순
다시 생각해보는 한미관계 | 박인규
巫와 민중미술 | 홍성담
오키나와의 신화와 민간신앙 | 이명원
온생명, 광합성, 식탁윤리 | 우석영
제임스 퍼거슨의 분배정치와 기본소득 | 조문영
한국의 박물관들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(2) | 케네스 루오프
카스트로의 녹색 유산 | 스티븐 준스
협동조합과 쿠바의 개혁 | 피트 돌랙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6)

앙드레 고르츠의 현재성 | 안효상

시

여기가 광화문이다 | 김해자
별들의 이빨 외 1편 | 문동만
극 외 1편 | 박소란

연재

스승과 제자(6) / 붉은 마음과 푸른 꿈의 만남 | 전호근
북미 인디언과 그들의 나라(完) / 오늘날의 인디언사회 | 여치헌
잃어버린 땅이름을 찾아서(3) / 구루지마을 | 윤재철

서평

신자유주의와 GMO기술 | 김동광
《GMO사피엔스의 시대》
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| 김은희
《지금 다시, 헌법》
탈핵을 조직하는 법 | 이유진
《탈원자력 사회로 — 후쿠시마 이후, 대안은 있다》

제153호(2017년 3-4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시민혁명, 정치혁명, 그리고 전환의 시대 | 김민웅
정보혁명과 자본주의의 종말 | 한승동
세계경제와 노동조합 | 김용진
'근대화'라는 고질병에 대해서 | 야마구치 유키오
한국의 박물관들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(3) | 케네스 루오프
소태산 박중빈의 삶과 사상 | 김병하
브렉시트 — 현대판 농민반란? | 폴 킹스노스
무너진 미국 민주주의, 고칠 수 있을까? | 로슬린 풀러
도널드 트럼프는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다 | 나피즈 아메드

세월호 3년

세월호 3년, 문학에 스민 고통의 무늬 | 오창은
나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 | 한창훈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7)

판 파레이스와 실질적 자유주의 | 조현진

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| 박경철
기본소득과 잃어버린 시간 | 김덕수

시

지구 외 1편 | 최종진
토끼풀 소녀 | 강건늘

연재

스승과 제자(7) / 과거를 기록함으로써 미래를 기약하다 | 전호근
잃어버린 땅이름을 찾아서(4) / 살구나무골, 행주, 행촌 | 윤재철

서평

천황소년에서 디아스포라까지 | 김응교
《조선과 일본에 살다》
반딧불이를 따라가는 네오샤먼 | 정홍수
《네오샤먼으로서의 작가》
왜 민주주의라야 하는가 | 김 현
《민주주의》
켄 로치의 정치학과 미학 | 정형철

《켄 로치 — 영화와 텔레비전의 정치학》

제154호(2017년 5-6월호)

권두 좌담 / 시민의회를 생각한다 | 곽노현 · 김종철 · 오현철 · 이지문 · 이진순
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| 잉그리드 스트라우메
무작위 선출과 숙의민주주의가 정치를 되살릴 수 있을까? | 이브 생토메
트럼프와 샌더스, 낡은 선거정치의 망령 | 마누엘 양
나는 왜《대통령의 철학》을 쓰게 되었나 | 강수돌
'시민의 제왕학'을 건의함 | 김재희
민주시민교육의 실천모델 | 장은주
'사드'와 미 · 중 · 일 · 러 군비경쟁 | 서재정
미세먼지와 일자리, 그리고 트럼프 FTA | 송기호
재생에너지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? | 한재각

시

우리 누구나의 외할머니 | 정우영
응시 | 김은경

내 인생의 책(1)

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사람들 | 김정남

연재

스승과 제자(8) / 유배지에서 나눈 우정 | 전호근
잃어버린 땅이름을 찾아서(5) / 느리울, 느러니, 어은리 | 윤재철

서평

한국의 진보언론, 그 이상과 현실 | 김종목
《중립에 기어를 넣고는 달릴 수 없다》
민주주의를 전진시키자면 | 하승우
《내가 알아야 민주주의다》, 《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,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》
뚜렷해지는 인간 멸종의 징후 | 박병상
《인간 이후》

제155호(2017년 7-8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‘4대강사업’ — 그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 | 김정욱
국가폭력과 트라우마 | 한홍구
중국의 생태문명 실험 | 한윤정
세계녹색당 총회 참가기 | 김주온
나는 왜 생태주의 역사가가 되었나 | 백승종
가정과 교육 | 정선희
영어조기교육이 잊고 있는 것 | 리타 테일러
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 | 강두용

러시아혁명의 교훈

100년 후에 되돌아보는 러시아혁명 | 박노자
러시아혁명, 무엇을 성취했고 왜 좌절했나 | 앨런 우즈
솔제니친의 고독 | 와타나베 교지

시

몰랐다 | 김해자
벌컥벌컥 외 1편 | 양선희

내 인생의 책(2)

내 삶과 생각을 열어준 책들 | 장회익

연재

스승과 제자(9) / 이단을 공부한 유학자 | 전호근
잃어버린 땅이름을 찾아서(6) / 동적이, 동작동, 우만이, 우면동 | 윤재철

서평

37년 동안의 싸움 — 5·18 기억투쟁을 위하여 | 최재봉
《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》
국가의 설계자들과 참여하는 지성 | 천정환
《대한민국의 설계자들 —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》
낯선 시선, 다르게 생각하는 힘 | 윤정숙
《낯선 시선 — 메타젠더로 본 세상》
시장지배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| 황규관
《지금 다시, 칼 폴라니》

제156호(2017년 9-10월호)

한국의 '촛불혁명'에 대하여 | 김종철
경제민주화를 말한다 | 강수돌
비아캄페시나 7차 총회 참가기 | 김정열
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| 전치형
비서구의 근대화, 그 허망한 승리 | 판카지 미슈라
'위안부제도'로 본 국가, 전쟁, 남성주의 | 다나카 토시유키
개인, 시대, 그리고 문학의 증언 | 정홍수
근대 일본의 대국주의 노선과 과학 | 한승동
'고용크레딧 거래제도'의 문제점 | 이건민
공론조사에 대한 이해와 오해 | 오현철
몽골의 헌법개정과 공론조사 | 밀렌코 마르티노비치

생태마을과 적정기술

생태마을 네트워크의 출범에 부쳐 | 황대권
생태마을과 적정기술 | 강신호
마을만들기는 농촌재생으로 | 정기석

기본소득과 그 사상가들(8)

마틴 루터 킹의 경제학 | 마크 엥글러

시

심봉사 팥도너츠 외 1편 | 이현승
우주의 표정 외 1편 | 김원경

내 인생의 책(3)

雜學의 인생살이 | 김성훈

연재

스승과 제자(10) /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1) / 연재를 시작하며 | 김남일

서평

관료집단지도체제, 시대정신에 맞는가 | 오현철
《차이나모델 —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》
변호사, 신부님, 무엇보다도 선생님 | 문정우

《라틴어 수업》
공동자산, 공화주의의 토대 | 박태현
《인디언 자치공화국 —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어제와 오늘》

제157호(2017년 11-12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| 이재봉
트럼프 현상과 한미동맹 | 이혜정
북핵 위기라는 허상 | 다니구치 나가요
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| 최원형
'사드' 들어오던 그날 소성리 | 김영화
땅의 사람들과 국가 | 이승렬
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| 김윤상
미래에 관한 회상 |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

고통의 역사, 문학적 증언

뿌리 뽑힌 자의 노래 | 염무웅
사할린의 조선인 | 이명원
북에서 온 '고발' 편지 | 오창은
30년 순환설 | 현기영

시

무국적 취향 외 1편 | 안현미
뜨거운 손 외 1편 | 신철규

내 인생의 책(4)

나의 책 수집벽과 난독의 경력 | 남재희

연재

스승과 제자(11) / 독이 나온 청출어람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2) / 일본, 보이지 않는 혼령들의 미소 | 김남일

서평

반갑고도 귀해라, 이처럼 지순한 서정이라니 | 정우영

시집《네 이름을 지운다》, 《하동》
석유가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다 | 하승우
《탄소 민주주의 — 화석연료시대의 정치권력》
한국에서 오키나와를 본다 | 곽형덕
《두 섬 — 저항의 양극, 한국과 오키나와》
'헬조선'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| 문진영
《불평등이 문제다 — 대한민국 99퍼센트의 내일을 위한 전략》

제158호(2018년 1-2월호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

시진핑의 '대약진' | 박민희
20세기 중국의 민주주의 구상 | 유용태
토지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중국 | 원톄쥔
19차 공산당대회와 '중국의 꿈' |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
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| 리처드 스미스
역사의 진실로 본 중국과 북한 관계 | 선즈화

신고리 5 · 6호기 공론조사, 그 의의와 한계

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참가기 | 윤지영
공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을까 | 하승우

미국의 쇠퇴와 그 이후 | 박인규
'클레어몬트' 생태문명 포럼 취재기 | 김종목
21세기 지구인의 바이블, 〈찬미받으소서〉 | 한윤정
밀양 송전탑 12년, '작은 승리'가 절실하다 | 이계삼

시

통일이 철조망이다 외 4편 | 백무산
강화제적봉 평화전망대에서 외 1편 | 함민복

연재

스승과 제자(12) / 말로 전하지 않는 가르침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3) / 기어이, 역사가 된 신화 | 김남일

서평

카추샤, 나타샤들과 함께 보낸 세월 | 최재봉
《시베리아의 향수 — 근대 한국과 러시아문학》
유전자가위 시대의 생명윤리 | 박병상
《DNA혁명 크리스퍼 유전자가위》, 《생명과학, 신에게 도전하다》
성찰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론 | 송성수
《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》

제159호(2018년 3-4월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농본주의가 세상을 살린다

생태순환농사의 길 | 김준권 · 장길섭
나는 왜 농촌에 살고 있는가 | 정영희
작은 행성을 위한 농사 | 프란시스 무어 라페
농본주의가 가져올 아름다운 농촌 | 우네 유타카

메이지유신 150년, 침략의 근대화

'메이지 영광론'의 허구 | 한승동
'정한론'의 역사적 배경 | 이원우
'대동아전쟁 긍정론'의 기만성 | 기츠카와 도시타다
근대 일본의 형성과 과학기술 | 야마모토 요시타카

포퓰리즘의 시대, 어떻게 볼 것인가 | 홀거 하이데
독일의 에너지전환, 어디까지 와 있는가 | '분트' · 뮌헨독자모임
전환의 시대, 무엇이 문제인가 | 김종철 · 이명원

시

백지(白紙)농법 외 1편 | 박지웅
참고 있느라 물도 들지 못하고 웃고만 있다 외 1편 | 이원하

연재

스승과 제자(13) / 콧구멍 없는 소와 세 개의 달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4) / 신화, 시소를 함께 타는 법 | 김남일

서평

아나키의 세상, 과연 가능한가 | 김혈조
《허생의 섬, 연암의 아나키즘》
섬광과 울림의 이육사 시 평전 | 정우영
《강철로 된 무지개 — 다시 읽는 이육사》
시의 '웜홀' | 노지영
《시의 눈, 벌레의 눈》
정치의 힘으로 기본소득을 | 박선미
《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》

제160호(2018년 5-6월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북핵의 역사와 본질, 제대로 알고 있나 | 정욱식
한국 개신교는 왜 성조기를 휘날리는가 | 한홍구
루소는 어떻게 트럼프를 예견했는가 | 판카지 미슈라

인구감소, 축소경제 시대의 지혜

인구감소, 누구에게 위기인가 | 이완배
탈시장경제시대를 위한 노동혁명 | 이성록
우리는 언제 풍요를 즐길 수 있을까 | 강수돌
경제성장 없는 진보는 가능한가 | 다니엘 코엔

후쿠시마 7년, 한국 원전정책의 변화 | 이헌석
후쿠시마의 어둠 | 로버트 헌지커

새로운 삶과 헌법개정

개헌 — 왜, 어떻게 해야 하나 | 하승수
'토지공개념'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하는 이유 | 남기업
녹색헌법을 통해 녹색국가로 | 이성민

시

네 번째 4월 16일 아침 외 1편 | 안상학
살인의 추억 외 1편 | 이덕규

내 인생의 책(5)

책, 그 질긴 인연 | 김병익

연재

스승과 제자(14) / 씨올의 스승과 제자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5) / 신화, 대칭성의 아주 먼 기억 | 김남일

서평

안보 패러다임과 평화 패러다임 | 한승동
《선을 넘어 생각한다 —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》
권력에 가려진 '난장이들'의 말 | 손제민
《웅크린 말들 — 말해지지 않는 말들의 한恨국어사전》
지구의 법, 꿈이 되다 | 최선호
《야생의 법 — 지구법 선언》

제161호(2018년 7-8월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멈춰서는 아니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| 김성훈
제대로 된 북한 발전 계획 |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
만압귀방 방귀하처 | 김성동
그날이 오면 | 김해자

맑스 탄생 200주년 기념

21세기에 돌아보는 칼 맑스 | 홍기빈
맑스, 엥겔스, 에콜로지 | 마이클 뢰비

핀란드, 캐나다,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| 강남훈
고스트 스토리 | 이문영
선거민주주의를 넘어서 | 토머스 맬리슨

이시무레 미치코를 추모하며

파도와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 | 이시무레 미치코
'근대'라는 병을 지켜보며 | 이시무레 미치코/〈주간 독서인〉

시

악의 평범성 외 1편 | 이산하
무화과가 속으로 꽃 피는 이유 외 1편 | 조연희

내 인생의 책(6)

내 삶과 학문을 이끌어준 책들 | 이만열

연재

스승과 제자(15) / 북학의 꿈을 꾸다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6) / 무언가 다른 길이 있다 | 김남일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1) | 베로니카 벤홀트-톰젠

서평

팍스아메리카나의 실체 | 한승동
《폭력적인 미국의 세기》
4·19의 참뜻을 되새겨온 문학인생 | 임규찬
《문학과의 동행》
종지기와 민들레꽃 | 조향미
《아름다운 사람 권정생》

제162호(2018년 9-10월)

'안보'를 넘어서 공생의 길로 | 김종철
한반도 해빙기류와 일본 | 이영채
오키나와와 한반도 | 이진희

디지털 시대의 언론

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| 최영묵
디지털 시대의 언론혁신 | 최원형
더 좋은 미디어는 가능하다 | 바네사 베어드
위기의 시대, 저널리즘의 사명 | 캐서린 바이너
"소셜미디어는 덫이다" | 지그문트 바우만
메시지가 미디어라고? | 이정환

함석헌과 야인정신 | 김삼웅

난민문제와 환대의 윤리 | 조일준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2) | 벤홀트-톰젠 · 홀처

시

전쟁이란 무엇인가 외 3편 | 구리하라 사다코
흑등고래의 캔맥주 따개 꼬리 외 1편 | 최갑수
짝꿍의 모래 외 1편 | 박은지

내 인생의 책(7)

로빈 후드에서 예수까지 | 이현주

연재

스승과 제자(16) / 흰 구름 아래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다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7) / 신화, 소수자에게 말을 걸다 | 김남일

서평

토의민주주의, 이제는 제도화를 | 이지문
《토의민주주의》
부서진 의자, 무너진 관계 | 이문재
《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》
이젠 걸을을 돌려야 할 때 | 이승렬
《느낌의 0도》
어떻게 과노동을 저지할까 | 김영선
《죽도록 일하는 사회》

제163호(2018년 11-12월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기후변화의 최전선 | 이치선
역사의 안개를 뚫고 가는 평화 프로세스 | 한승동
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을 찾아서 | 이래경
부동산 문제, 어찌할 것인가 | 이태경
독일 녹색당, 과연 희망의 등대인가 | 사랄 사르카르
우리가 만난 팔레스타인 저항문학 | 오수연
나의 삶, 나의 문학 | 사하르 칼리파

농민문화의 부활이 관건이다

농민의 권리와 식량주권 | 윤병선
차야노프와 '농민유토피아' | 앨런 칼슨
원초적 정의감과 국가 | 와타나베 교지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3) | 마리나 메네세스

시

그녀에 대한 기억 -38kg 외 1편 | 김경미
보이지 않는 소 외 1편 | 이희중

내 인생의 책(8)

《녹색평론》이라는 밥 | 서 숙

연재

스승과 제자(17) / 모든 사람이 ᄒᆞ늘님이다 | 전호근
신화 이야기(8) / 트릭스터, 영웅 혹은 외설 | 김남일

서평

자본주의를 욕망하는 혁명의 도시 | 김경환
《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》
그가 있어 금강이 춤을 춘다 | 정수근
《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》
먼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| 정홍수
《리얼리스트 김수영》

'녹색평론과 함께하는 시간' 안내

제164호(2019년 1-2월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흙, 이야기, 공동체 | 웬델 베리
건강한 흙과 소농 | 데이비드 몽고메리
뿌리를 잃은 삶, 농사를 망각한 정치 | 김종철

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| 김상준
영혼의 망명정부를 찾아서 | 한상봉

생명조작시대, 물어야 할 것들

현대의료와 윤리 | 야마구치 겐이치로
신경과학과 생명정치 | 전방욱
유전자편집기술,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| 김병수
생명을 유린하는 생명조작기술 | 정형철
생명과학의 딜레마 | 에르빈 샤르가프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4) | 코르넬리아 기벨러

시

창세기의 논리적 독해 5 — 노동해방 외 1편 | 최종천
인생총량 외 1편 | 조 은

내 인생의 책(9)

고전 번역을 하다가 한국사학자로 | 이이화

소설

파장(罷葬) | 김홍정

연재

신화 이야기(9) / 마녀를 위한 변명 | 김남일

서평

백남기와 근원적 평화사상 | 유문철
《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다》
인류세의 파국 앞에서 | 박병상
《인류세》
중독사회의 뒤틀린 욕망에서 해방되자면 | 황선길
《중독의 시대》

독자의 소리 | 은종복 · 정영희

제165호(2019년 3-4월)

침로를 잃은 민주정부, 어디로 갈 것인가 | 김종철

한국경제, 활로가 있는가

한국경제와 세계화의 덫 | 이해영
부동산공화국, 이러고서 미래가 있을까 | 전강수
한국은 어떻게 '투기자본의 천국'이 되었나 | 한승동
난파 중인 자본주의 | 이상호
'수축사회'로 진입하는 한국 | 이상헌
'공유경제', 정말 공유경제인가 | 성현석
농민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자 | 박경철

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가 | 비자이 프라샤드
석유, 농사, 제국주의 | 콜린 토드헌터
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하여 | 김명환
한반도의 빛과 어둠 |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
생태적 삶과 생태관광 | 천규석
마지막 휴일 — 해외여행으로 망가지는 지구 | 존 스완
'폴라니의 식탁'을 생각한다 | 최성각
나의 '아시아 평화선언' | 샤만 란보안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5) | 브리기테 홀처

시

나 때문에 외 1편 | 이원규
울음 외 1편 | 이규리

내 인생의 책(10)

이번 생은 '책' 때문에 망했다 | 이경자

연재

신화 이야기(10) / 맨천 구신들의 세상 | 김남일

서평

'무기의 평등'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| 하승우
《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》
지금, 이곳에 우리의 철학이 있는가 | 조운찬
《길 위의 우리 철학》
핵산업계가 감춰온 청구서 | 이헌석
《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》

독자의 소리 | 류정형 · 윤성환

제166호(2019년 5-6월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 | 김민웅
비핵화,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| 정욱식
한일관계,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| 하토야마 유키오
제주 제2공항 건설을 우려한다 | 고권일
'광화문광장 재구조화'에 대한 의문 | 배정한
토지 강제수용이라는 폭력 | 박성율
'광주형 일자리',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| 박명준

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와 농사

에너지전환, 일자리, 지역경제 살리기 | 박진희
에너지전환의 역사 — 최초의 40년 | 폴 호켄노스
중국은 지구를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 | 에바겔로스 발라아나토스
우리는 1%에 맞서 싸워야 한다 | 반다나 시바 · 에이미 굿맨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6) | 베로니카 벤홀트-톰젠

시

이유 외 3편 | 유용주
십 년 외 1편 | 이영광
붉은 바람 외 1편 | 고찬규

내 인생의 책(11)

문화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 | 구중서

연재

신화 이야기(11) / 미세먼지와 고래와 산불, 그리고 신화 | 김남일
농본주의를 말한다(1) / 농민이 보는 현대사회의 이상함 | 우네 유타카

서평

근대의 폭력 속에 자라온 ‘르상티망’ | 한승동
《분노의 시대》
희년사상과 공생의 원리 | 정선희
《희년》
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 | 이건민
《기본소득의 경제학》

제167호(2019년 7-8월)

한반도의 비핵화와 녹색화 | 김종철
“행동을 해야 희망이 찾아옵니다” | 그레타 툰베리
기후위기와 ‘그린뉴딜’ | 이유진
“기후위기 대응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” | 이문재
한국의 미세먼지와 화석자본 | 존 에퍼제시
도시혁신 실험, 콜롬비아 메데인의 경우 | 박용남
‘헬리콥터 머니’와 기본소득 | 안현효
‘현대화폐이론’에 대하여 | 황재홍
독일 68세대의 50년을 돌아보며 | 후쿠자와 히로오미

한국 정치, 어떻게 개혁할까

선거제도 개혁, 지금까지의 이야기 | 하승수
여의도 농부님, 쫓겨난 농민들 | 박유리
민주정치의 원리를 생각한다 | 최자영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7) | 브리기테 홀처

시

느린 동네 외 1편 | 류인서
당산마루에 소쩍새 온 날은 외 1편 | 신 휘

내 인생의 책(12)

예언자 함석헌 | 박종채

연재

신화 이야기(12) / 희망은 많지 않다, 그러나 | 김남일
농본주의를 말한다(2) / 농본주의의 탄생과 재생 | 우네 유타카

서평

착한 사람 장일순 | 한상봉
《장일순 평전》
읽지 않고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| 문정우
《다시, 책으로》

제168호(2019년 9-10월)

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| 김종철

한일 갈등, 출구는 무엇인가

역사를 무시하는 극우파, 그 광기 | 한승동
한일 1965년체제 종식의 길 | 남기정
역사의 기억을 뺏는 아베 정권 | 다나카 도시유키
자국제일주의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| 기츠카와 도시타다
추억, 회한, 책임 | 헬무트 슈미트

후쿠시마 사고와 도쿄올림픽 | 고이데 히로아키
플라스틱 홍수 속에서 | 최용탁
대마라는 풀, 지구를 구하는 가장 값싼 방법 | 엘렌 브라운

소농 공동체의 재생이 답이다

유엔 농민권리선언의 배경과 의미 | 윤병선
농민농업, 자율과 협동의 실천 | 김정섭
누더기가 된 농지법 | 고성진
‘소농두레 공동체’의 길 | 천규석 · 이상길

시

오래 만진 슬픔 외 1편 | 이문재
스마트 마을의 어느 날 외 1편 | 류지남

연재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8) | 베로니카 벤홀트-톰젠
농본주의를 말한다(3) | 우네 유타카

서평

자연 없이는 문화도 없다 | 고영직
《생태주의자 괴테》
한국은 왜 아동송출국이 되었나 | 전홍기혜
《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》
희망은 정치에 달려 있다 | 허승규
《정치의 약속》

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

제169호(2019년 11-12월)

특별 좌담 / 농민기본소득이 나라를 살린다 | 강정남 · 박경철 · 박웅두 · 김종철
사법권력의 횡포,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| 최자영
기후위기와 인권 | 조효제
후쿠시마 오염수, 끝나지 않을 재앙 | 이헌석

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

문제는 글로벌 경제에 있다 | 알프 호른보리
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답이다 | 돈 피츠
쓰레기로 귀결된 근대문명 | 디냐르 고드레지

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| 홀거 하이데
스웨덴에서 보고 느낀 것 | 강수돌
독일의 시민사회, '싸우는 민주주의' | 신숙옥
'툰베리 효과'와 녹색당의 대약진 | 후쿠자와 히로오미
간디의 유산 | 판카지 미슈라

시

먼 곳이 있는 사람 외 1편 | 손택수
버릇처럼 외 1편 | 방수진
계족산 황톳길 외 1편 | 전인순

연재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9) | 코르넬리아 기벨러

서평

진정한 앎을 찾아가는 여정 | 홍성욱
《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》
왕도정치의 사상적 뿌리 | 이권우
《맹자, 마음의 정치학》
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| 강양구
《테크놀로지의 덫》
IPCC 보고서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| 김현우
《플랜 드로다운》

제170호(2020년 1-2월)

기후위기, EROEI, 농민기본소득 | 김종철

인공지능에 대한 근본 질문들

빅데이터와 인공지능, 그 위험한 만남 | 강양구
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정말 올까 | 하대청
한국사회는 인공지능 사회를 꿈꾸는가 | 맹미선
유발 하라리, 과학의 외피를 두른 예언자 | 김동광
노동은 과연 필요악인가 | 와타나베 교지

WTO 개도국 지위의 포기와 소농 | 송기호
제주 제2공항 계획, 이 어리석음을 어찌할까 | 김광철
영화 〈삽질〉과 〈블랙머니〉를 보고 | 정우영
'날조기자' 우에무라의 진실 | 길윤형

중국, 그리고 세계

중국의 세기 | 요한 코시
중국은 얼마나 생태적인가 | 마 티안지
라틴아메리카, '핑크물결'은 퇴조하는가 | 원영수

방사능 오염지에서 올림픽을?

도쿄올림픽과 핵재앙, 일본정부가 숨기는 진실 | 아니 건더센
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된 도쿄 | 시모사와 요코
나는 도쿄올림픽을 반대한다 | 소노 료타

시

어느 청소 노동자에 대한 생각 외 1편 | 이상국
이웃들 외 1편 | 김해자

수필

뒤웅박 차고 바람 잡듯 외 3편 | 정원정

서평

코리아 양국체제와 녹색평화 구상 | 유정길
《코리아 양국체제》
기본소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| 안효상
《소득의 미래》
시인과 인문학자의 사회생태 보고서 | 소종민
《시에 기대다》, 《인문적 인간》
3기7탈로 3공의 사회로 | 김 현
《배를 돌려라, 대한민국 대전환》

제171호(2020년 3-4월)

대의제 민주주의, 이대로 될까

기후위기 시대의 민주주의 | 김종철
문재인 정권 3년을 돌아본다 | 채효정
민중 없는 민주주의론 비판 | 최자영
'협동민주주의'를 생각한다 | 홍기빈

'반일 종족주의', 무엇을 위한 궤변인가 | 한승동
이란 사태와 중동, 그리고 한국 | 구정은
올림픽경기와 자본주의 | 줄스 보이코프
논을 살려야 늪도 산다 | 천규석
논 120만 평과 아파트 2만 세대 | 김기현
켄 로치, 봉준호, 몬스 사케르 | 이문재
시인 신동엽의 농경적 상상력 | 김형수
불교는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을까 | 데이비드 로이
관광으로 위기에 몰린 '자유코뮌' | 저스틴 칼데론

시

먹태를 두드리며 외 1편 | 김창균
업혀가는 아이 외 1편 | 김개미

연재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10) / 무세, 제3의 성 | 베로니카 벤홀트-톰젠
시대와 소설(1) /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희망 | 김남일

내 인생의 책(13)

희망과 위안으로 나를 여물게 해준 | 정원정

서평

니들이 호미를 알아? | 최원형
《우리는 아직 철기시대에 산다》
과학의 의미를 묻는 정직한 싸움 | 이정모
《과학의 품격》
추악한 기업, 생태학살, 시민의 저항 | 박병상
《에코사이드》
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빛을 향하여 | 부희령
《우리 시대의 작가 — 존 버거의 생애와 작업》
천지와 함께, 백성과 더불어 | 조성환
《참된 문명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》

독자의 소리 | 김대원

제172호(2020년 5-6월)

책을 내면서 | 김종철

코로나 환란, 기로에 선 문명

코로나19, 환경위기, 자본주의 | 우석균
코로나, '정상사고', 세계화와 지역화 | 조현철
코로나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| 나희덕
생태적 눈으로 본 코로나바이러스 | 반다나 시바

6 · 25 이후 70년, 한국전쟁의 정신사

한국전쟁과 미국 | 박인규

한국전쟁과 한국농업 | 장상환
'한경직의 종교', 그 적폐의 기원 | 김진호
한국전쟁과 식민지 남성성 | 정희진
6·25를 생각하는 문학 | 이명원
북한문학은 왜 전쟁을 미화하는가 | 오창은

조선·동아 100년, 저물어가는 언론권력 | 한홍구
굿바이, 개발의 시대 | 볼프강 작스
민중을 위한 돈 | 메리 멜러

시

사리의 시간엔 외 1편 | 허영선
물을 길어 올리다 외 1편 | 박형권

연재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11) / 무셰, 제3의 성 | 베로니카 벤홀트-톰젠
시대와 소설(2) / '이후'를 살아가기 | 김남일

서평

실리콘밸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| 김찬호
《실리콘 제국》
부분과 전체 사이의 인민 | 한성훈
《고난과 웃음의 나라 —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》
생활권 재편, 풀뿌리에서부터 | 황민호
《지방에 산다는 것》

제173호(2020년 7-8월)

한국형 뉴딜과 재난자본주의 | 강수돌
균형재정론은 틀렸다 | 홍기빈
팬데믹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 | 프랭크 스노든
농업·농촌부터 살리는 그린뉴딜을 | 김해창
팬데믹과 쿠바의 의료국제주의 | 원영수
코로나, 흑인인권, 미국의 실상 | 전홍기혜

21대 국회를 바라보는 눈

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 | 하승수
21대 국회는 국민발안권부터 제정하라 | 최자영

에너지 전환보다 중요한 것

기후변화에 대한 거짓 해결책들 | 메리 와일드파이어
스크린의 배후 — 인터넷 접속의 진정한 비용 | 케이티 싱어
기후위기의 시대,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| 장병윤

썩음에 대하여 | 황규관
독일광부이자 진보운동가였던 나의 아버지 | 최혜린
코로나 시즌, 12개의 단상 | 김종철

시

열두 개의 그네의자 중 외 1편 | 강형철
뒤틀린 문 외 1편 | 기명숙

연재

후치탄, 여자들의 나라(12) / 여성들의 사랑 | 크리스타 뮐러
시대와 소설(3) / 여전히 보이지 않는 비거 토머스들 | 김남일

서평

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기본소득 | 김찬휘
《모두의 몫을 모두에게》
우리가 버린 것들, 버려야 할 것들 | 장이정수
《일급경고 — 쓰레기 대란이 온다》
세계화는 '사상의 식민지화' | 장정일
《세상의 주인》

제174호(2020년 9-10월)

책을 내면서 | 김정현

특별 좌담 / 김종철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 | 송기호 · 이승렬 · 장길섭 · 정선희 · 하승수
김종철 선생님을 기억하고 기리며 | 김호기
김종철을 추모한다는 것 | 박인규
슬기로운 바보들의 등대 | 조성옥

앞서간 농본사상가 | 천규석
고(故) 김종철과 나 | 백낙청
여름, 흘러가다 | 최용탁
생명사상과 환대의 윤리 | 김종철

기후위기, 출구는 어디에
그린뉴딜의 본류는 농(農)이다 | 이근행
시스템에 갇힌 녹색운동 | 패트릭 노블
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촉구한다 | 루이자 뉴바우어 · 그레타 툰베리 외

코로나 시대에 교육을 생각한다 | 정형철
코로나 시대의 농(農)제국주의 | 그레인
코로나 대응은 탈성장 사고를 요구한다 | 리처드 하인버그

시
찔레꽃 꽃잎이 이우는 날 | 김명수
KTX에서 외 1편 | 이시영
남녘 49재 | 이문재
이명을 넘어 여명으로 오시리 | 정우영
나무 아래로 | 김해자
냇물의 목소리 | 황규관

발행인을 추모하며 — 독자들의 메시지 | 현순혜 · 김만희 · 은종복 · 김정오 외

제175호(2020년 11-12월)

책을 내면서 | 김정현

재난소득 논쟁에 답한다 | 강남훈
탈성장, 역병에서 배우기 | 조현철
역병, 초자본주의, 미래의 투쟁 | 마이크 데이비스
백인우월주의 그리고 지구시스템 | 나피즈 아메드
온라인 문화, 공적인 경험의 상실 | 김덕수
‘아베 없는 아베 정권’과 한일관계 | 이영채
한반도 평화, 좌절의 이유와 새로운 길 | 정욱식
한국사회의 ‘포스트’ 담론에 대해서 | 정희진
어떤 방식의 재생에너지인가 | 정규석

희년(禧年) 이후에 | 데이비드 그레이버
순진성의 경이, 그리고 사랑 | 정홍수

의료개혁, 어떻게 해야 할까

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병적 징후들 | 정형준
지역사회, 의료 공공성 실현의 토대 | 이인동
마을에서 건강공동체 만들기 | 장이정수

시

정원의 화톳불 외 1편 | 김영승
소낙비와 사과꽃과 옥수수 대궁 외 1편 | 김남극
녹색평론 | 손택수

연재

시대와 소설(4) /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난 뒤 | 김남일
민중의 이름으로(1) / 오늘날의 '민주주의'는 정말로 민주주의인가 | 이보 모슬리

서평

삶의 위기와 제국문화 | 장정일
《제국적 생활양식을 넘어서》, 《제국문화의 종말과 흙의 생태학》
거대한 기만, 경쟁 이데올로기 | 김누리
《경쟁 공화국》
불평등의 역사와 참여사회주의 | 박종현
《자본과 이데올로기》
자급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| 황민호
《지방회생 — 인구감소와 수도권 초집중 극복의 길》
'기계'들의 꿈과 연민 | 이란주
《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》

제176호(2021년 1-2월)

책을 내면서 | 김정현

좌담 / 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| 손제민 · 오현철 · 하승수
기후위기와 민주주의 | 박승옥
기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| 이광석

자기절제와 민주주의 | 야보르 타린스키
추첨제 민주주의의 귀환 | 니콜라스 코코마
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가 | 야니스 바루파키스
독일의 민주시민교육 | 정현이
김종철의 민주주의론 | 이명원
진실과 자유,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| 한승동
파시즘은 아직 죽지 않았다 | 피트 돌랙
인류세에 인간을 다시 생각하며 | 노먼 워즈바
단 한 명의 스승만 있는 나라 | 한창훈

시

동백 핀 날 외 1편 | 손세실리아
고성 외 1편 | 박 준

연재

시대와 소설(5) /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, 아직은 | 김남일
민중의 이름으로(2) / '대의민주주의'라는 환상을 구축하기 | 이보 모슬리

서평

세상은 한 알의 토종씨앗에서 시작된다 | 변현단
《토종씨앗의 역습》
작은 과학을 바랐던 큰 과학자 | 박병상
《헤라클레이토스의 불》
인민의 나라에서 비체제적 민중은 어떻게 사는가 | 김주현
《친애하는, 인민들의 문학 생활》
생태위기 시대의 불교 | 부희령
《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》

제177호(2021년 3-4월)

기후위기 시대의 농(農)의 복원 | 윤병선
새로운 농업통상 질서를 위하여 | 송기호
농촌기본소득, 왜 필요한가 | 박경철
농촌 난개발 문제 — 세종시 사례 | 강수돌
농촌에서 본 민주주의와 농본주의 | 하승수
영농형태양광, 무엇이 문제인가 | 김형수
농생태학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약탈 | 콜린 토드헌터

농부가 없는 농토 | 웬델 베리
나의 귀농 이야기 | 유문철

공희(供犧), 생태문명의 원리 | 김종철

원전사고 은폐의 공식 | 김익중
한반도 안보 풍향과 우리의 모색 | 이부영
시클로비아 — 자동차만 다닐 수 없는 길 | 박용남
식생활과 문명의 전환 | 이기영

시

때와 일 외 1편 | 이덕규
적당한 속도, 서행 외 1편 | 이병률

연재

시대와 소설(6) / 길을 걸으며 책을 읽지 마라! | 김남일
민중의 이름으로(3) / 영국에서의 대의정부 | 이보 모슬리
소로에게 보내는 편지(1) | 나희덕

서평

인권, 기후위기 서사의 전환 | 윤정숙
《탄소사회의 종말》
푸드플랜에 담긴 '농민권리'와 '농업정의' | 구점숙
《푸드플랜》
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천지자연이다 | 최성현
《농본주의를 말한다》
이제는 '대중참여'의 제도화다 | 이지문
《숙의민주주의》
근대 법철학의 세계관을 넘어서 | 박태현
《자연의 권리》

제178호(2021년 5-6월)

책을 내면서 | 김정현

어떤 탄소중립사회를 만들 것인가 | 이유진
도넛 경제학 — 경제성장의 신화를 넘어서 | 홍기빈

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의 과제 | 리처드 다스웨이트 · 이머 오슈크루
기본소득의 오디세이아 | 안효상
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, 생태적 전환의 길 | 남기업
농(農)기본소득이 열어줄 미래 | 송원규
현대화폐이론을 생각한다 | 안현효
수많은 화폐가 꽃피게 하자 | 베르나르 리에테르
지속가능한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| 애런 페르난도
탈성장과 상상력, 성서에 길을 묻다 | 조현철
대배심으로 사법 · 검찰 개혁을 이루자 | 박승옥
안테나 켰습니다 | 박남준

시

그 죽임의 삽질을 내려놓아라 | 이병철
옛 백담사 외 1편 | 이홍섭
윤색(潤色) 외 1편 | 손병걸

연재

시대와 소설(7) / 이대로는 안된다, 통일 결사반대! | 김남일
민중의 이름으로(4) / 부채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나 | 이보 모슬리
소로에게 보내는 편지(2) | 나희덕

서평

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 | 김현우
《녹색노동조합은 가능하다》
수면 아래의 삶과 기본소득 | 양창모
《동네 의사와 기본소득》
교실학교에서 마을학교로 | 이민철
《마을 발견》

독자의 소리 | 김승언

제179호(2021년 7-8월)

책을 내면서 | 김정현

탄소중립,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| 최병성
탐욕과 무지, 거짓으로 만들어진 새만금 | 한승우

후쿠시마 — 계속되는 재앙, 무책임의 자세 | 장정욱
고준위핵폐기물 투쟁의 전말 | 황대권
소형원전이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까 | 아르준 마키자니 · M.V. 라마나

기술에 포획된 세계를 묻는다

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감시자본주의 | 정형철
기술포화 시대의 예언자 | 앤드루 니키포룩
흙 없는 농사라는 꿈 | 군나르 룬드그렌
하이테크 의료는 지속가능한가 | 크리스 드 데커

김종철 선생 1주기를 맞으며

김종철 사상의 핵심 — 현실과 비현실의 변증법 | 강수돌
김종철 문학의 '큰 마음' — 샤먼의 영혼, 땅(農)의 노래 | 이문재
영원한 지구인이신 선생님을 그리며 | 정우영

딸기와 작약,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하며 | 유소림

시

심고 외 1편 | 홍일선
김녕, 바다 외 1편 | 임경섭

연재

시대와 소설(8) / 김종철의 소설 | 김남일
민중의 이름으로(5) / 세계로 수출된 대의정부 | 이보 모슬리
소로에게 보내는 편지(3) | 나희덕

서평

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| 홍 훈
《꽃가루받이 경제학》
리얼유토피아적 상상력 | 주수원
《한국 사회적경제의 거듭남을 위하여》
다른 사회경제 모델을 꿈꾸며 | 성현석
《플랫폼경제, 협동조합을 만나다》
가르치지 않는 배움터 | 신순화
《아이 함께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기》
아픈 게 자랑입니다 | 장일호
《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》

제180호(2021년 9-10월)

책을 내면서 | 김정현

미중 분쟁과 한반도의 선택 | 한승동
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화 위기와 '중국방안' | 원톄쥔
기후정의법이 아니면 그만두라 | 한재각
왜 공공농업을 이야기하는가 | 이무진
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포스트모던 애니미즘 | 요네야마 쇼코

학교는 문명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

문명 대전환을 위한 교육혁명 | 심성보
학교 없는 대안교육, 어디 없을까 | 박민형
컴퓨터, 희극적이고 위험스러운 교육도구 | 로웰 몽크
대학,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항문화 | 닉 콜드리

'김종철 이후'를 위한 소고

다시 생각하는 김종철 선생님 | 명 진
김종철과 프란츠 파농의 탈식민주의 | 정희진
참다운 과학적 태도로부터 — 오직 만물의 형제일 권리 | 김주현
사라져가는 세계와 詩人 | 윤철호

시

지구온난화 외 1편 | 동 명
모서리의 빛 외 1편 | 박형준
수인 외 1편 | 황규관

연재

시대와 소설(9) / 해방은 어떻게 오는가 | 김남일
민중의 이름으로(6) / 현대의 과두제 — 기업과 정부 | 이보 모슬리
소로에게 보내는 편지(4) | 나희덕

서평

살림으로 가는 길 | 장병윤
《망쪼 든 세상 그래도 기리버서》
추출적 경제에서 민주적 경제로 | 이상헌

《모두를 위한 경제》
지금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렸다 | 정규석
《대한민국 녹색시계》
근대화와 몸의 착취에 대하여 | 유해정
《절멸과 갱생 사이》

제181호(2021년 11-12월)

책을 내면서 | 김정현

농(農)과 자치, 민주주의 | 하승수
원점에서 생각하는 도농상생 협동운동 | 정규호
마을재생은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| 강제윤
홍성 홍동면 지역화폐 이야기 | 이동근
농지문제,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| 강마야
유전자기술,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한 선택 | 박병상
식품 제국주의에 맞서서 | 반다나 시바

녹색평론 30년,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

녹색평론 30년의 의미 | 조운찬
다시, 래디컬한 상상력을 위하여 | 한승동
뿌리에서부터 질문하기 | 김종철

시

작은 불씨 하나도 껴안을 수는 없다 외 1편 | 백무산
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르 외 1편 | 이문재
기적 외 1편 | 김해자

연재

시대와 소설(10) / 희망의 문학, 문학의 희망 | 김남일
민중의 이름으로(7) / 민주주의와 좋은 정부 | 이보 모슬리
소로에게 보내는 편지(5) | 나희덕

서평

성장중독이라는 유행병을 치유하려면 | 최원형
《중독공화국》

인간을 위한 경제학 | 김종락
《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》
지방 중소도시 죽이지 않고 살리는 비법 | 정 석
《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》
더 늦기 전에 라이프스타일 혁명을 | 고영직
《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》
부동산공화국 혁파는 가능하다 | 이태경
《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》

독자의 소리 | 김대원 · 김보영 · 은종복

제182호(2023년 여름호)

책을 내면서 /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| 김정현

생명의 존중이 평화를 낳는다 | 강우일
환경부는 왜 있는가 | 정규석
1.5도 너머의 세계 | 이유진
재앙은 우리 곁에서 매일 일어난다 | 홀거 하이데
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다 | 정형철

특집 — 전쟁과 기후재앙, 맞물린 위기

'정당한 전쟁'은 없다 | 한승동
미국의 대중 전략과 '워싱턴 선언' | 남문희
전쟁의 생태적 비용 | 배보람
우크라이나의 핵 아마겟돈 게임 | 조슈아 프랭크
전쟁에 대한 풀뿌리의 대안 | 스티븐 준스

연속특집 1 — 코로나 이후,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

코로나 3년, 바꿔야 할 내일 | 박병상
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의료 | 정형준

자치의 회복에 모든 것이 달렸다 | 하승수
자유주의 비판 — 찰스 테일러의 경우 | 고세훈

시

문어 외 1편 | 이영광

크리올 돼지들 외 1편 | 이설야

연재

자급을 생각한다(1) / 조화로움 속에 몸을 맡기다 | 변현단
21세기 농본주의(1) /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일 | 데이비드 오르

서평

좋은 도시의 조건 | 이상헌
《기적의 도시 메데진》
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| 이희경
《각자도사 사회》
해월, 동학으로 미래를 열다 | 조성환
《해월 최시형 평전》
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| 조미성
《탄소로운 식탁》
인공지능 뒤에 사람이 있다 | 장석준
《노동자 없는 노동》

독자들의 메시지 — 복간에 부쳐

제183호(2023년 가을호)

책을 내면서 / 보이콧을 권하며 | 김정현

후쿠시마 오염수를 넘어서 | 이헌석
방사능 폐수와 한국 민주주의 | 송기호
우리의 바다가 | 한창훈
월정리 해녀들의 끈질긴 싸움에서 배우다 | 윤여일
망각에서 기억으로, 절망에서 희망으로 | 황 윤
금호강 팔현습지 이야기 | 정수근
강과 댐 사이에서 | 수프라브하 세션

기후민주주의와 기후정치 | 김현우
민주주의를 실천적으로 사유할 때 | 하승우
2023년, 녹색당의 고민 | 김혜미
에코사이드 처벌, 가능성과 의미 | 황준서

우리는 코로나를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까

인간성 중독과 머나먼 시선 | 백무산
공동의 미래는 가능한가 | 조문영

생태민주주의,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 | 강수돌
농장에 봄이 오면 | 정은정

시

예버덩 외 1편 | 전동균
부록 씨 삶으로 데려오기 외 1편 | 안희연

연재

자급을 생각한다(2)/ 자급의 관점이란 무엇인가 | 마리아 미즈
21세기 농본주의(2)/ 신농본주의자들의 과제 | 웨스 잭슨

서평

방사능 피폭,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| 손제민
《방사선 피폭의 역사》
애니미즘, 다른 관계의 생태학 | 고영직
《애니미즘과 현대 세계》
우리에게는 사람이, 사랑이 있습니다 | 박은정
《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》
종이를 통해 새로 쓴 과거와 미래 | 홍성욱
《장인과 닥나무가 함께 만든 역사, 조선의 과학기술사》
정보로 환원된 세계, 그 기원을 찾아서 | 맹미선
《생명은 어떻게 정보가 되었는가》
농촌의 미래는 농사에 있다 | 장정우
《이상하고 아름다운 판타지 촌 라이프》

제184호(2023년 겨울호)

책을 내면서 / 정말로 중요한 일 | 김정현

길을 잃은 한국사회, 어디로 가야 할까

윤석열 정부 농정 나침반은 어디로 향하나 | 이명헌
'교육의 실종' 논쟁에서 빠진 것 | 성열관

더 좋은 경쟁논리 대신 반전의 시대정신을 | 조형근
뉴미디어 시대의 언론과 정치권력 | 전홍기혜
민중에 의한 권력통제와 분권으로 | 최자영

제국의 몰락, 파열의 고통 속에서

'다극화'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| 이해영
이스라엘의 인종청소, 그 기원에 관하여 | 아론 마테
서구는 어떻게 테러리즘을 만들어냈는가 | 안드레 블첵
생명을 이야기하는 문학 |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/나희덕

에너지 전환에서 놓치면 안될 것들

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는 에너지 전환 | 강남훈
탈성장에 대한 오해 | 카를로스 토넬
그린뉴딜, 이대로 괜찮을까 | 돈 피츠

"중심이되 중심이 되지 말라" | 정성헌/이문재

이 들녘이 낯설다 | 최용탁
위기 이후의 경제철학을 위하여 | 홍기빈
딜레마가 아닌 파국 | 정희진

시

그 사람이 두고 간 개 외 1편 | 황인숙
이 세상에 외 1편 | 선종구
30년 후, 소년 소녀에게 | 김해자

연재

자급을 생각한다(3) / 마을과 소설가 | 김탁환
자본주의 다시 보기(1) / 쌀과 아파트와 상품가치 | 강수돌

서평

핵, 그 거대한 위선과 모순에 대하여 | 오은정
《저주받은 원자》
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인생은 아름답다 | 정우영
《제주도우다》
미래를 구하기 위해 과거로 가다 | 황의진
《미래가 있던 자리》
마음과 행위로 숲 만들기 | 온수진

《씨앗부터 키워서 천이숲 만들기》

제185호(2024년 봄호)

책을 내면서 / 효율성이라는 덫 | 김정현

인류는 인공지능 시대를 건너갈 수 있을까

생성 인공지능 시대와 시민사회의 과제 | 구본권
인공지능에 대한 물음에 대한 물음 | 손화철
인공지능과 민주주의 | 장정일
인공지능, 거대기술과 자립의 삶 | 정형철
포스트휴먼 세계의 영성 | 카비르 헬민스키

자치(自治), 생태문명을 향한 첫걸음

좌담/정치 개혁은 주민자치로부터 | 손주화·윤현식·황종규·하승수
전기 불빛으로 깊어진 어둠 | 이덕규
자치공동체,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 | 이승무
정치인들, 저리 비켜 | 에드 사익스
물리적 장소와 직접민주주의 | 야보르 타린스키

스마트농업,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일까 | 송원규
무엇을 위한 '친환경농업'인가 | 유병덕

나는 나로서 나를 새롭게 | 김인국
바닷가 모래밭은 누구의 것인가 | 진재용

시

격자 창문 안쪽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외 1편 | 권현형
우수(雨水) 외 1편 | 조성순
이다음에 우리는 외 1편 | 조온윤

연재

자급을 생각한다(4)/ 도시살이 생협 조합원의 자급 | 장병윤
자본주의 다시 보기(2)/ 명품과 스마트폰과 가치형태 | 강수돌

서평

자연을 쓰는 건 권리가 아니야 | 남종영
《지구법학》
제헌헌법의 정신, 지켜지고 있는가 | 이석태
《1948년 헌법을 만들다》
기후위기 시대의 에코페미니즘 | 노고운
《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》
먹거리 기술의 근본문제 | 조미성
《음식의 미래》
사랑과 혁명을 읽는 시간 | 김동현
《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거다》
흙과 생명과 민중에 대한 모심의 시들 | 고영직
《너들의 시간》

독자의 소리 | 신순화·오태석·정현태

제186호(2024년 여름호)

책을 내면서 / 가장 진보적인 운동 | 김정현

공공성의 강화,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는 방법

의료공공성 위기는 국민건강의 위기이다 | 백재중
지역공공은행, '대안'이 될 수 있을까 | 양준호
기후정의를 실현할 공공재생에너지 | 한재각
공공교통, 개혁과 전환의 이중 과제 | 김상철
시민들의 식량권을 지키는 도시 | 박용남

의료산업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서

의대 정원 확대에 가려진 이야기 | 김연희
바깥 없는 몸, 관계 없는 의료 | 김태우
농촌 돌봄의 기발한 대안 두 가지 | 양창모
보건의료정보 산업, 이대로 좋은가 | 최원형
살아있는 의료 | 스티븐 해로드 뷔흐너

기후정치의 도약을 위하여 | 이헌석
홍세화 선생이 지은 삶 | 오창익
지역의 자치, 왜 중요한가 | 로라 로스

정의로운 산림보호지역 확대를 논의할 때 | 오충현
자연과 노동에서 배운다 | 천종현•최하정•한종태

무위당 30주기에 부쳐

길을 가는 사람 | 이현주
나의 눈에서 전체의 눈으로 | 유소림

시

뱀 1 외 1편 | 장석주
원주천 외 1편 | 양선희

연재

자급을 생각한다(5) / 자기답게 생존하기 | 최문철
자본주의 다시 보기(3) / 시장과 국가와 가치지향 | 강수돌

서평

사람보다 로봇을 믿는 당신에게 | 장일호
《의료 비즈니스의 시대》
기후위기 시대의 '좌파적' 사유 | 한승동
《전쟁 이후의 세계 — 다원 패권 시대, 한국의 선택》
움벨트로 되돌아갈 용기를 | 박병상
《자연에 이름 붙이기》, 《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》
축소되는 세계를 위한 사회학적 상상력 | 이상헌
《축소되는 세계》
끝내 질 수 없는 싸움 | 강언주
《전기, 밀양 — 서울》
숲의 생기와 만물의 민주주의 | 나희덕
《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오라》

독자의 소리 | 김동민

제187호(2024년 가을호)

책을 내면서 / 민주주의는 여전히 유일한 대안이다 | 김정현

후쿠시마 핵오염수, 어찌할 것인가 | 김해창

기후헌법소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| 황인철
남북 쓰레기 전쟁이 불러낸 것 | 이대근
한국 중립화를 제안한다 | 이재봉
두 번째 냉전, 왜 더 위험한가 | 크리스 라이트
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파시즘으로 귀결되는가 | 크리스 헤지스

[협동의 힘으로 일구는 다른 미래]

곤경에 빠진 농촌, 정착지가 될 수 있을까 | 김정섭
다른 삶의 마당 '항꾸네' | 문영규
청년들이 말하는 농민기본소득 | 김찬휘
어울리는 즐거움, 짓는 기쁨, 연대하는 보람 | 안태호

귀농·귀촌을 위한 일본의 노력 | 김기홍
농민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유럽 | 김다은

[초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]

좌담 - 초고령사회,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| 김찬호·이문재·이희경
노인의 자리 만들기 | 소준철

[생태적 전환과 시민의회의 역할]

시민의회 돌아보기 | 김상준
추첨제와 정상(定常)상태 경제 | 게리 가드너
기후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 | 볼프강 크노어

[시]

개미 외 1편 | 김경미
천천히 외 1편 | 송경동

[연재]

자급을 생각한다(6) / 공유지에서 살아가기 | 김지음
자본주의 다시 보기(4) / 인간노동, 인공지능, 가치원천 | 강수돌
생명평화 오디세이(1) / 생명평화의 탄생 | 황대권

[서평]

교육혁명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| 정형철
《경쟁 교육은 야만이다》
우리의 질문을 바꾸는 존재들 | 부희령
《보이지 않는 존재들》

기후위기 시대의 중심 가치, 돌봄 | 이나미
《기후 돌봄》
노동과 예술은 어떻게 만나는가 | 황규관
《산재일기》
민주주의의 근원에 다가서기 | 손우정
《래디컬 데모크라시》